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대릴 스티븐스
(Darryl W. Stephens)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대릴 스티븐스
(Darryl W. Stephens)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소망·사랑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지음

© 202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이 책에서 인용한 내용은 반쪽을 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비영리 목적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다음 문구를 삽입해야 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라: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기*

© 202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모든 권리가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이 책 안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없이 복사할 수 없음.

다른 모든 사항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번역 사역 담당자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 바람.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Phone: (212) 870-3723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성경은 표준 새번역을 사용함

© 1989 대한 성서 공회의 허락을 받아 사용함.

ISBN: 978-1-952501-06-7

편집 책임: 프라비나 발라순다람(Praveena Balasundaram)

편집: 빅토리아 레벡(Victoria Rebeck)/사라 쉐펠(Sarah Scheffel)

예술 책임: 래 그랜트(Rae Grant)

표지 디자인: 래 그랜트(Rae Grant)

내부 디자인: 나나코 이노우에 (Nanako Inoue)

미국에서 인쇄됨.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경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책을 디코네스, 교수, 어머니,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인
마이카 케네디 스티븐스(Myka Kennedy Stephens)에게 바친다.



목차

서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모임 I: 땅에 속한 존재	11
1. 도덕적 딜레마	12
2. 예절, 도덕, 그리고 윤리	14
3. 선행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	20
4. 증언의 위험성	22
5.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25
모임 II: 깨어 있는 현재	31
1. 하나님의 지혜	32
2. 현재의 삶 속에서 증언하기	34
3. 의인 은총과 사랑의 계명	36
4. <i>디아코니아(Diakonia)</i>	40
5. 사랑에서 정의로	45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47
모임 III: 역사적인 조명	53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의 은총	54
2. 슬픔을 헤쳐나가기	56
3. 정의의 행동으로서의 회개	60
4. 샌드크릭(Sand Creek) 대학살	63
5. 회개를 통해 증언하기	66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72
모임 IV: 의미있는 참여	77
1. 기도하면서 이루는 변혁	78
2. 희망의 문턱	80
3. 화해, 번영, 그리고 샬롬	83
4.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기	88
5. 교회의 도덕적 증인이 되기	92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95
결론	101
감사의 말씀	106
저자 소개	107
참고도서 및 추천도서	108

서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고 포로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하고, 억압된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 교재의 목적은 교회와 교인들이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 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온 것을 환영한다! 당신 교회에서 새로 세례 받은 교인을 하 나님의 가족으로 맞아 들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있는가? 연합감리교회 세례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의식을 통해 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¹ 이 문장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암 시해 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어떤 무엇인가에 초청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었다. 즉,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세례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 이 예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선언문을 듣기 전에, 교회 건물에 발을 들여 놓기도 전에 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합류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 녀라고 하는 깨달음에 대한 시편의 증언이다 (시편 139:13-14):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나는 이 시편의 증언에 동감한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로 선택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단지 내 존재의 사실이며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일 부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보다 더욱 더 나는 당신 때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묘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진 이 관계를 인정하는 교회의 방식이다. 세례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집에 잘 왔다!”

가족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 이미지를 선택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마태복음 6: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먼 친척 아저씨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분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시사하듯이, 우리는 같은 하늘의 “아빠” (히브리어로 아바, abba)를 두었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의 남성/여성 이분법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이사야 66:13a)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으로서, 모든 인류와 가족 관계를 가지신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하나님 아래 있는 인간 가족 공동체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친족이다.

그러나, “가족 공동체”라는 말은 혈연 관계 이상을 뜻한다. 그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더 큰 무엇,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는 왕국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basileia)의 현대적인 해석이다. “가족 공동체”라는 단어는 작고한 무헤리스타(mujerista, 남미 혹은 남미 계의 여성신학) 여성 신학자인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ía Isasi-Díaz)에 의해서 소개되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면 자기 가족을 돌보듯이 다른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으로 세워 나가야 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² 마가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첫 단어는 바로 이 정치적인 실체를 언급하고 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15). 이 첫 설교에서 예수님은 지상 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지나가면서 강조한 말이 아니다. 복음을 언급하기 전에 잠깐 말한 짧은 문구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목을 가다듬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 (마태복음 6:10).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임박성이 예수님 당시의 왕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헤롯왕은 여기에 죽을 힘을 다해 맞서서,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처형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임 당한 십자가는 오늘날의 전기 의자나 독약 주사같은 사형 집행 방식의 한 형태였다. 이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에 맞서는 기독교인들의 저항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선포되었고 모든 지상의 권력 위에 서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는 설교에서 실제 정치적인 개입으로 넘어갔다. 이것은 위험한 화법이다. 하나의 큰 행복한 인류 가족을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정치 혁명을 부추기는 것, 혹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실제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누가복음 4:18-19) 오셨다. 우리는 정치적이 되지 않고는 가난이나, 대량 수감현실이나, 의료 보험의 부재나, 제도적인 부정이나, 대물림하는 부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³ 예수님의 의도는 전통적인 권력 지배 구조를 뒤집어 놓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일의 영향권 밖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모든 인류,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것이다. 해방과 회복과 자유와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며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일이다. 그러한 의제들은 예수님을 큰 위협에 처하게 했다. 결국 예수님은 쉽게 처형당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정치적이고 또 위험한 일이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통된 인간성을 가진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이 위험한 일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세례 예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일부라고? 그렇다. 나는 동의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다.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시편 139:14b). 그리고 나는 오묘하게 지어졌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진 것 아닌가? 나는 이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 드리려고 노력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 것입니다. 아멘” (마태 복음 6:13에 추가된 내용으로 몇몇 고대 사본에서 발견됨). “주님의 일입니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좋은 소식은 나에게서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구경꾼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세상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온 과거와 현재의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감하는 일에 참여한 것이다.

우리의 세례 서약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증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드러난 것이든 악과, 부정의와, 억압에 저항하라고 주시는 자유와 힘을 받아들일 것”을 서약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힘을 받았다. 아무리 악이 거대해 보여도, 아무리 부정의가 만연해도, 아무리 억압의 현실이 감당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하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도록 힘을 주신다. 이러한 새롭게 발견한 성령의 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다. 합류한다는 것은 그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그 어떤 것, 거룩한 어떤 것, 모든 피조물에게 중요한 어떤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이러한 합류 과정을 통해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바로 여기 실현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교재는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비추어 부정의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반응에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둔 일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하나님의 가족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믿음에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거나, 우리 지도자들을 믿거나, 우리의 인간의 제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특히 부정의의 피해자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증언한다. 개인적인 간증은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한 방법이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간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 (요한 1:1).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경험을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선언이다.⁴ 이것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

한 증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른 방식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좌절된 것 방법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부정의에 맞서서 하는 증언은 통상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생긴 것에 주의를 주목시킨다.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꿈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증언은 우리에게 선교를 통해 문화와 지역의 경계를 넘을 것을 요구한다.⁵ 우리는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 교재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실천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볼 것이다. 세례 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책은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교에 합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도덕적 증언은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하는 사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한 번의 입교의식 이상을 포함한다. 우리는 교회와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특히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양분을 받아야 한다.⁶ 연합감리교회의 성찬식 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치며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⁷ 을 초청한다고 나와 있다.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공부에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초청된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지금 여기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묘사한 내용은 진보적 제자도이다. 재넷 울프(Janet Wolf)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처럼 살라고 격려한다.⁸ 만약 십자가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하늘 나라에서의 개인의 안전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세력과의 지속적인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또한 거기에 우리가 부활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저항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이다.⁹ 본 교재도 울프(Wolf)의 부활의 실천: 마가복음과 진보적 제자도처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영적 성장 교재로 사용된다. 이것은 복음의 변혁적인 능력을 믿고 그것을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통해서 살아 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성찰과 기도, 이 공부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성과 남성 모두가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를 새롭게 배우게 될 것이다. 평신도나 목회자 모두 새롭게 자신의 믿음을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새롭게 증언하는 법과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증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함께 우리는 현대의 도덕적 도전에 직면해서 복음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지를 배울 것이다.

우리는 이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들을 필요로 한다. 한 저자가 모든 시각들을 혼자 제시할 수는 없다.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와 다양한 사람들의 저작에 의존하지만, 내 자신의 글은 필연적으로 내가 미국에 살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중년 백인 이성애자 남자로서 중산층에 사는 입장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다. 나는 기혼자다. 내 아내와 나는 두 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가족들이 그러듯이 다음 끼니는 어디서 때울까로 조바심하지 않고, 매달 월급이 끊어지나 걱정하지도 않는다. 우리 가족의 조상들 가운데 최근에 이민 온 이들도 없다. 미국 내에 내가 아는 수백만의 삶들이 직면하는 일상의 현실들이 있지만, 나는 직접 체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한다. 그래도 나는 이런 문제로 직접 영향 받는 이들과 계속 연대한다. 또한 인류의 변영에 도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 책에서 당신은 여러 관점의 목소리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각자 역할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다. 평신도, 디코네스,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그리고 감독; 남미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백인 그리고 미원주민; 기혼자와 미혼자; 부모들과 자기 자식이 없는 이들; 노년층과 젊은이들 모두 포함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다양하다.

복음의 현실은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지체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26).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다. 내 이웃의 고통은 내게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Martin Luther King Jr.)이 아주 잘 말하셨듯이, “한군데서의 불의한 일은 모든 곳에서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¹⁰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각자 다른 재능과 시각을 가지고 함께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가족 공동체라는 시각으로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일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사역의 예를 들기 위해 이 책은 창조 세계 돌봄, 정의 구현, 인종 관계, 경제, 그리고 정치가 관련된 복잡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하나도 서로 독립적인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인종 차별과 대량 수감 현실과 이민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다. 인류의 번영을 가로막는 이 모든 도전들은 동시에 자연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시 되돌아와서 직접 인류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제도의 연결 속에 짜집기된 구체적인 현실들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16).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인류만 의미하거나 지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cosmos),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말한다. 토론과 분별을 통해서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의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교재의 목적은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우리의 소명을 분별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교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지, 그래서 모든 창조세계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 교재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증언한다” 그리고 “도덕적 증언” 등의 구절들을 “더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맥락에서 정의하는 것.
- 어떻게 우리들의 도덕적인 증언이 상황을 고려하고, 정의에 초점을 맞춘 틀을 세우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집단적인 과정이 되는 지를 살피는 것.
- 어떻게 연합감리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우생학, 발전론, 중앙 지역 총회 등등의 문제들을 둘러싼 위기의 시간에 예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명령에 반응해 왔는지, 그리고 부정직한 교회와 예언자적 교회 둘 다의 행동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촉구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
-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공정한 습관을 확립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 우리의 도덕적 증언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독자들은 이러한 목표들을 네 번의 모임을 통해 탐구하게 될 것이다. 각 모임마다 **성경 봉독, 사례 연구, 목회 개요**, 그리고 **사회 원칙과 다른 연합감리교회 교리문들**에서 발췌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다. 각 모임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다른 면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개인적인 성결이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적 성결을 요구하는 지를 보여줄 것이다.

“증언하기”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에 틀을 잡아 준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증언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 지를 간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덕적인 삶은 우리들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응답, 이 둘은 서로 얽혀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노래하는 믿음, 2223장)라는 찬송을 불러본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의 도덕적 역할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다. 즉 은혜의 관점에서 볼 것이다. 은혜는 물질이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다. 아니 차라리, 랜디 매독스(Randy Maddox)가 말했듯이, “은혜는 창조되지 않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현존이다.”¹¹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은 인간의 고통과 제도적인 부정의와 상처입은 세상에 대한 은혜가 가능하게 해준 우리의 반응이다. 이 증언은 창조된 존재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웃과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만남을 통해서 현재 속으로 펼쳐지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는 모든 영원을 통해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증언을 하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와의 우리의 교감을 형성해 가면서 공동체와 관계를 통한 예언자적인 통찰을 추구하는 방식을 제공해 준다. 다음의 과정이 진보적인 제자도를 통해서 교회가 도덕적인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이 방식을 묘사해 준다.

과정표: 네 번의 다른 시점에서 증언하기

모임 제목	바라보는 시점	하나님의 은혜와 행동	우리의 도덕적 행동	관계적 내용	도덕적 강조점
I. 땅에 속한 존재	창조된 존재	선행은총, 주어진 가치	받아들임	존엄성	평등 실현과 인권존중
II. 깨어있는 현재	현재	의인은총, 죄의 확산	그 입장이 되 보기	사랑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생필품 공급하기
III. 역사적 조명	과거	의인은총, 용서	기억과 회개	정의	관계를 바로잡기,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IV. 의미있는 참여	미래	성화 은총, 화해와 살림	꿈꾸기	연대	모든 창조세계의 온전한 번영

증언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네 시점, 즉 한 번의 실존적 시점과 세번의 시간적 시점을 통한 신실한 도덕적 증언을 하도록 한다. 첫 번째 시점은, 이 책의 첫 번 모임에서 논의 되었지만, 땅에 속한 존재 시점이다. 즉, 다른 창조된 존재들까지 고려하는 관점이다.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자연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자 모든 인류와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이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고유 가치가 있다. 거기서 자연에 대한 경외가 나오고,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 나온다.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모임에서는 증언하는 일의 시간적인 시점들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현재에 존재하고, 과거를 재평가하고, 미래를 대변한다.¹² 현재와 씨름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둘째 모임에서 살펴볼 것이다.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이해하게 된다.¹³ 이런 의식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대한 헌신하게 된다. 과거와 씨름하는 일은 세 번째 모임에서 살 펴볼 역사적인 조명을 필요로한다. 기억이라는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재평가하고, 과거의 해악을 회개하고 불의의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한다. 이런 의식이 제도적인 억압을 분쇄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일 에 헌신하게 만든다. 증언하는 네 번째 시점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에 참여하는 의미있는 참여 시점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고 창조 세계의 완전한 변영을 꿈꾸면서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의 한 부분으로 화해 의 사역에 관여한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연대를 하게 된다.

내가 비록 이런 시점들을 특정한 순서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들은 엄격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시점은 다른 시점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비록 그 중의 하나를 강조할 때에도, 그 시점들을 모두 동시에 살아간다. 각 시점이 상호 연결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전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때도 우리는 과거를 바로잡거나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기억의 사역”은 이 과정의 중요하고도 늘 상존하는 사역이다.¹⁴ 도덕적 제자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주는 증언의 여정이다.

웨슬리 신학은 이 시점들 각각에서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위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¹⁵ 성령의 움직임은 선행 은 총, 의인 은총, 그리고 성화 은총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 거기에 참여할 지를 안내한 다.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선행 은총을 통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그리고 그것이 인권과 평등에 대한 헌신의 근거가 된다. 의인 은총은 교 회의 도덕적인 증언을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에 자리매김하고 교회는 거기에 참여한다. 의인은 총을 통해 하나님 은 우리의 죄를 확증하시고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 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막을 제공한다. 의인 은총은 또한 지속적인 회개를 하게 한다. 하나님의 정의의 빛에 비추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평가 하고 우리는 과거의 부정의의 대가를 치르고 보상할 필요를 보게 된다. 그것이 부정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의 헌신의 근거가 된다. 성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이 변영하고, 우리는 거 기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정의의 비전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도록 자라가는 동안 거룩함은 연대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한 변영에 대한 헌신 이다. 함께 이러한 신학적인 헌신들이 우리에게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증언의 네 시점들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구성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아가페, agape)을 출발점으로 하고 은혜의 지도를 받아서, 증언의 과정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게 도와 준다. 증언을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증언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모든 인간의 고유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불의에 기여할 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준다.

각 모임은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기도는 많은 목소리들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게 해 준다. 기도는 우리들을 우리 자신을 넘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 각자와 각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한다. 기도는 우리를 다른 이들과 연결시킨다. 기도는 우리에게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도록 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화와 정의를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나서게 한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연대해서 행동하며, 이 땅에서의 평화와 정의를 꿈꾸자! 켄 메데마(Ken Medema)가 적었듯이,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을 보내주소서, 능력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소서.”¹⁶

당신이 이 교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과 함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셔서 이 역정을 할 수 있게 하라. 아무 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세계적인 대 유행병이나, 사회적 불안이나, 인종 차별이나, 경제적 파탄이나,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한다. 각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세례 예식 때 서약한 것처럼 “죄에 저항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이제 다시 확인해 보자.

온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의 악의 영적 세력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함께 대답합니다: “예, 회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악과 부정의와 모든 형태로 드러나는

억압에 저항하라고 하나님이 당신께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함께 대답합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온전한 신뢰를 두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와 국가와 종족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함께 대답합니다: “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값이 없다. 그것은 변화된 삶만 요구한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활동:

1.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에 나오는 세례 예식문을 읽고 기도 동역자와 혹은 소그룹에서 토론한다. 이 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 예식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이 서약의 의미에 대해서 최근에 세례받은 어른이나 세례 학습을 받은 이들과 대화해 보라. 오늘날 그들의 삶에서 신앙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가?
3. 세례 갱신 예배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일기에 기록하라.

요약

교회의 도덕적 증거는 세례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받아 들여졌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더 큰 공동체의 일부가 된 것을 발견한다. 인간의 존엄성, 기본적인 생필품들,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 그리고 온전히 반영하는 공동체가 웨슬리 전통 믿음의 표현들이다.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에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다. 온전한 인간의 반영과 공동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게 하고 실제 공동체들이 거기서 멀어질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공동의 서약인 “악과 부정의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억압에도 저항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에게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일을 함께 하도록 이끈다.

후주

1. 여기 서문의 발췌문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내쉬빌: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2000) 33-39쪽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세례 예식문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ía Isasi-Díaz),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무헤리스타(Mujerista)의 제안,” 우리 자신의 목소리: 라티노/라티나 신학에 수록됨. 벤자민 발렌틴(Benjamín Valentín) 편집 (메리놀, 뉴욕: 오르비스 북스, 2010), 171-89쪽.
3. 나는 “제도적 부정의”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억압(불공정한 배제, 지배, 차별, 분리, 그리고 흑백 분리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4. 일레인 히쓰(Elaine Heath), “정신적 충격을 알고 대처하는 복음 전도,” 감리교회 선교 이백주년 기념 강연, 에모리 대학 2019년 4월, [youtube.com/watch?v=zO3SY3IF92c](https://www.youtube.com/watch?v=zO3SY3IF92c), 2020년 5월 12일 유튜브 접속.
5. 이 교재에서 제시된 방법은 “관계에 기초한 선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스캇 (David W. Scott), 경계를 넘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내쉬빌: 웨슬리스 파운데리 북스, 2019), 76쪽 참조.
6. 요한 웨슬리, “지속적인 교제의 의무,” 설교 101, wesley.nnu.edu/john-wesley/the-sermons-of-john-wesley-1872-edition/sermon-101-the-duty-of-constant-commun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7.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 2000), 7-11쪽
8. 재넷 울프(Janet Wolf), 부활의 실천: 마가복음과 진보적 제자도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19), 8쪽.
9. 앞의 책, 123-24쪽.
10. 마틴 루터 킹 (Martin Luther King Jr.), “버밍햄 시 감옥에서 보낸 편지,” 희망의 복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연설 및 주요 저작 모음집, 제임스 멜빈 워싱턴(James Melvin Washington) 편저 (뉴욕: 하퍼샌프란시스코, 1986), 290쪽.
11. 랜디 엘 매독스(Randy L. Maddox), 책임적 은혜: 요한 웨슬리의 실천 신학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4), 195쪽.
12. 나는 우마이크 해이크(Umair Haque)의 “왜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증언을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에서 영감을 받았다. 미디어(Medium), 2018년 5월 26, umairhaque.com/why-our-first-responsibility-is-bearing-witness-2e493c4d3fd, 2020년 5월 12일 접속.
13. 세 번의 시간적인 시점들은 도덕적인 행동으로 남의 입장이 되어 보기, 기억하기, 그리고 꿈꾸기를 담고 있다. 마조리 수하키 (Marjorie Suchocki)는 폭력에로의 타락: 관계적 신학에서의 원죄 (뉴욕: 콘티뉴움, 1999), 36쪽에서 이 셋을 초월을 위한 방식들로 이렇게 불렀다.

14. 이것이 왜 “교회의 기억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연합감리교회 총회 역사 자료 위원회의 사역이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지 말해주는 이유이다. 총회 역사 자료 위원회, “우리의 선교,” gcah.org, 2020년 5월 12일 접속.
15.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우리의 응답에 관한 이해를 신앙 생활을 위한 신학적인 틀로 제시하고 있다. 요한 웨슬러, “성경적인 구원의 길,” 설교 43, wesley.nnu.edu/john-wesley/the-sermons-of-john-wesley-1872-edition/sermon-43-the-scripture-way-of-salv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16. 켄 메데마(Ken Medema),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캐롤 스트림, 일리노이: 홉 퍼블리싱, 1973), 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2020년 5월 12일 접속.



모임 I:

땅에 속한 존재

증 언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믿음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땅의 흙에 뿌리를 둔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서로와 연결되어 있기를 추구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adamah]으로 사람[adam]을 지으시고, 그(들)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세기2:7 표준 새번역에 히브리어 단어를 첨가함).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흙, 기독교인들이 성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기운(루아흐, ruach)으로 생명이 주어진 흙이다. 이 거룩한 행동의 정점은 공동체의 창조이다. 여자 (ishah)와 남자(ish)를 분리해서 그들이 서로 서로와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2:23).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공동체이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가?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 보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이 당신 자신인 것을 알아 보았는가? 시편 148편을 나와 함께 같이 읽어 보자 (1, 3, 5, 12-14 절). 그리고 우리가 피조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감사하자.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 우리 모두의 어머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지녔을뿐만 아니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1. 도덕적 딜레마

내가 자랄 때, 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에서는 피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치와 종교.² 나의 가족은, 민주당과 공화당과 아마 몇 자유당과 사회주의자들이 섞여 있었고, 당시의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거리낌없이 이야기 했었다. 열정은 깊었고, 확신은 강했고, 존중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이야기 할 것은 엄청 많았던 것이 틀림없다. 내가 어릴 때, 미국은 첫 아폴로(Apollo) 우주선의 달 착륙이 있었고, 첫 지구의 날이 제정되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이 있었고,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했다. 정말 격변의 시대였고,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 집안에서는 종교는 토론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실천의 (혹은 실천하지 않는) 대상이었다. 나의 할머니는 평생 감리교인이었고, 남감리교회에서 자랐다. 나의 어머니는 계속 감리교회에 속했고, 내 형제들과 나도 나면서부터 감리교인들이다. 나의 할아버지는, 경건한 인본주의자인데 성경에 나오는 신화를 참지 못했고 자신이 본 남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믿는 방식의 기독교를 참지 못했다. 주일 아침이면, 그는 종교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취미인 목공이나 양조에 정성을 쏟았고 할머니는 교회를 갔다. 나의 어머니의 네 형제 자매들은 이런 부모의 종교성의 큰 폭 사이 어디엔가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았다.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별거하고 이어서 이혼한 후에 자기 스스로 감리교를 떠나 더 환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았다. 그 당시와 시대에는 감리교회는 자기 아내와 이혼한 남자를 친절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쪽 보다는 아버지쪽 가족들이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는 법을 알고 닦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 날씨는 언제나 안전한 주제였다.

시대가 얼마나 변하였는가! 최근에 기후라는 주제는 어떤 모임에서는 정치적인 피뢰침이며 종교적인 총성 서약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지구 온난화 덕분에 그 안전한 대화 주제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증언은 한번도 공손한 대화의 틀에 갇힌 적이 없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종종 분열을 요구한다.³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들을 회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도덕적 증언은 사회적 규범을 뒤집어 엮고 좋은 사람이라는 틀을 깨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것은 부정의를 직면했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⁴ 도덕적 증언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발언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제도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억압을 눈감아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도덕적 증언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더 공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태를 뒤집어 엮는 것을 종종 요구한다. 침묵과 공모 대신에,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정의와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의 도덕적 증언은, 기후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괜찮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것이다.

만약 교회의 도덕적 증언이 신실한 분열로 특징지어진다면, 우리는 딜레마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정의로운 증언을 해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우리의 성찬식 예문은 아주 솔직하게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신실한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도덕적 증언은 또한 위험을 감수한다. 우리가 물려받은 도덕들을 재검토할 때, 사회적 구조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틀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적 증언을 시도해야 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서로 다른 의견들과 신학들과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섞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증언을 앞으로 나가는 길로 제시하고자 한다. 증언의 첫 번째 시점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다. 땅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 즉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로서 자연 세계 속에 있음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류와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친구, 가족, 이방인, 그리고 적까지도 포함된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동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혈연 가족을 뛰어넘고, 교회를 넘어서고, 기독교를 넘어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우리에게 우리가 심지어 인식하기 이전부터도 다른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한다.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외에도, 신실한 도덕적 증언은 자연과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에 대한 종종도 요구한다. 나아가 증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된 존재들의 믿음의 빛으로 고려하라고 도전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공손한 대화, 가령 가족 모임 등에서 당신은 어떤 주제를 회피하는가? 왜 그런가?
2. 당신이 비록 분열을 초래할 지라도 도덕적 잘못에 대해 발언한 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증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3. 대화 상대자와 함께 당신이나 당신의 신앙 공동체가 도덕적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졌다가 잘못을 인식하고 (아니면 적어도 완전히 옳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태도를 바꾼 경험을 나누어 보라. 아마도 상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복잡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 경험으로부터 도덕적 증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가?

2. 예절, 도덕, 그리고 윤리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여러 차원에서, 즉, 예절, 도덕, 그리고 윤리 차원에서 살펴 보면서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증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각 증언의 차원은 정의와 부정의 두 가지 기회를 제시한다. 우리는 예절을 따지다가 고통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신실한 도덕적 증언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때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에 더 좌우되고 우리의 윤리적인 정당화는 자기 합리화가 된다. 이것은 아주 복잡한 일이다. 감리교 역사에서 예를 들어보자. 내가 예절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정중함의 지침이라는 뜻으로 쓰고, 도덕은 거룩한 삶의 원칙들이라는 뜻으로 쓰고, 윤리라는 말은 공공 정책 대변이라는 뜻으로 쓴다. 예절과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이런 개념들은 실제로는 중첩된다. 우리는 이 모든 개념들을 함께 살펴본다.

예절과 정중함

우리는 사회에서—혹은 어느 누구와도—어느 정도의 예절 혹은 정중함이 없이는 잘 지낼 수 없다. 말투, 태도, 사회적 관습, 그리고 몸짓 등이 모두 예절의 단면들이다. 우리가 적절한 예절을 지키면, 우리는 우리 문화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게 된다.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데는 어떤 도덕적인 분별이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기대되는 대로 잘 따르면 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오른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것을 보통 기대한다. 이런 의식은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왼손을 내밀면 계속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조직, 가령 보이스카웃(여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첫 해 내 딸이 가입했다)에서는 사람들은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초월성이나 예절 규칙과 관련된 더 좋은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화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절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예절은 전형적으로 공정한 불공정한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 그리고 더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적절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분별을 요구하지 않지만, 예절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런 분별이 요구된다. 예절, 혹은 정중함은, 건강한 관계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정중함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의 정치적 담론은 분열적이고 양극화되어 있어서 정중함을 지키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여겨진다.⁵ 이것은 새로운 요구는 아니다. 나는 2000년도에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있었던 교회와 동성애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다. 나는 이 토론회에서 연사들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대 부분의 연사들이 정확히 무슨 주장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퍼킨스 대학의 교수 한 분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교회의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불일치를 보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토론에서나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나 정중함은 중요하다. 정중함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 지낼 수 있게 해 주는 필수적인 요소이다.⁶ 그러나, 그 간의 세월 동안, 나는 이 교수의 반응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 보면서 그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중함이 모든 인류에게 고유하고 공평하게 내재하

는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대안으로 잘못 믿고 있다. 예절에 호소하는 것이 언제나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 해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예절은 토론을 잠잠케 하는 수단이 되거나 정의를 향한 노력을 중단시키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1963년 백인 지도자들은 알라바마 주의 버밍햄에 모여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시의 인종 분리에 저항할 때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다. 합당한 “인종적인 예절”은 알라바마에서는 당시에 (때로는 법으로 강제된 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사회적 관계의 모든 면에서 백인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다.⁷ 두 명의 감리교 감독들과 알라바마의 여섯 다른 백인 목회자들은 1963년 4월 12일에 “우리의 백인 및 흑인 시민들이 법의 원칙과 질서와 상식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⁸ 이 촉구에 포함된 “상식”은 백인들이 생각하는 예절의 상식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요구는 당시의 불공정한 권력 구조를 은폐하는 것이었다. 버밍햄의 법률은 “흑인 시민”들을 온전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백인 목회자 지도자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저항 노력이 “지혜롭지도 않고 시의적절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누구의 시간표와 누구의 이해 관계를 그들은 우선시하고 있었는가?

예절은 기독교인들의 회의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방식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기독교인들의 회의는 요한 웨슬리가 은총의 수단이라고 옹호한, 거룩한 삶을 장려하는 제도화된 방식이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양육과 상호 책임의 실천이다. 이것의 한 예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존중을 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의 상호 존중 지침”이다. 그 지침은 이렇게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게 되기까지 겪은 경험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⁹ 예의에 대한 계속되는 호소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전되어왔다. 가령 북동부 지역 총회에서 개발한 거룩한 기독교인 회의 원칙들이 그것이다.¹⁰ 2012년에는, 샬리 덕(Sally Dyck) 감독이, 당시에 미네소타 연회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거룩한 기독교인 회의의 여덟가지 원칙”들에 대한 지침 안내를 썼다. 이 원칙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로 시작한다.¹¹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들에게 서로를 예의와 존중을 가지고 대하게 훈련한다. 예절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예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도덕도 필요로 한다.

도덕과 거룩한 삶

도덕은, 예의와는 다르게, 무엇이 바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종종, 도덕은 어린 나이부터 우리에게 각인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행동을 조심해라”하고 말할 때, 그 아이는 자신이 옳다고 배운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훈계는 구체적인 관계 상황 속에서 바르게 형성된 양심이 있을 때에만 제대로 작용한다. 우리는 도덕을 외우고 연습해서 배웠다. 좋은 인격은, 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연습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이것이 기독교 도덕의 선의 기초이다. 도덕은 전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학교에서 배우고, 법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덕은 문화에 좌우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¹² 그래서, 교회의 증언이 도덕에 호소하는 것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감리교회는 언제나 개인적인 도덕성을 신앙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왔다. 그러나, 어느 특정 세대에 역사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것 혹은 심지어는 다른 시대에는 좋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의 조부모 세대의 감리교회는 카드 게임을 하고 당구를 치는 것은 부도덕한 타락으로 여겼다.¹³ “이제 당신 큰 문제 있다”(“Ya Got Trouble”)는 <더 뮤직 맨>(The Music Man)에 나오는 노래를 기억하는가? 그 노래는 리버 시티라는 목가적인 마을 한 복판에 시작된 새로운 변화를 탄식하고 있다: “문제는 ‘T’ (Trouble)라는 글자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 글자는 당구(Pool)를 나타내는 단어가 ‘P’로 시작하는 것과 운율이 맞지 않는가!” 이런 뮤지컬은 1912년의 상황에서는 나의 할머니가 태어나던 시대의 문화적 가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두 세대를 건너뛰는 도덕적인 차이가 1980년대 우리 감리교회의 중고등부 실에 당구대를 설치해 주었을 때 왜 나의 할머니가 놀라고 의아해 하셨는지를 설명해 준다.

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은 거룩한 삶에 관한 규칙들이다. 일반 규칙(The General Rules)은 이런 증언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예다. 1739년에, 한 소그룹이 요한 웨슬러에게 신앙 안에서 자기들을 지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연합 신도회(United Societies)에 들어오는 유일한 조건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일원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다: 해약을 행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라.”¹⁴ 웨슬러는 구체적이었다. 해약을 행하지 말라는 것에는 술마시고, 노예를 소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타락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감리교인들은 여전히 술을 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예 소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미국에서 감리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였다. 거룩하지 못한 타락에 반대한다는 규칙은 현대인들의 귀에는 약간 고시대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여전히 감리교회의 피속에 흐르고 있다.

초기 감리교인들에게 도덕적 증언은 점잖지 못한 오락을 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여가 시간의 사용은 영혼을 바로 세우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했다.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지식을 더하지 못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혹은 그런 책을 읽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배웠다.¹⁵ 신앙 생활의 성장에 관련한 중립적인 여가 생활은 없었다. 나중에 감리교인들은 그런 일반 규칙들을 특별 규칙(Special Rules) 혹은 권고들(Advices)로 더 자세하게 발전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회는 “해가되는” 타락들과 소설, 춤, 도박, 그리고 극장 등 “경건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해 서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였다. 여흥 뿐만 아니라, 특별 권고들에는 소박한 장신구와 의복, 기독교 안식일 준수, 결혼, 그리고 이혼이 포함되었다. 연합감리교회의 어떤 곳에서는, 가령 아프리카 중앙 연회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 특별 권고의 전통을 21세기까지 이어오고 있다.¹⁶ 기독교 회의에서 발견되는 양육과 서로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도덕적 규칙들의 배경이 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교회법으로 조문화 되기도 하였다.

감리교회에서 이혼과 이혼 후 재혼을 반대하던 교리의 역사를 보면 도덕을 법으로 만드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감리교회에서의 이혼 반대 규칙은 미국 사회가 점증하는 이혼율과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씨름하던 1920년대까지도 철저히 시행되었다. 이혼 후 재혼 금지 규정은 1922년 10월 8일 프랭크 엘 터틀(Frank L. Tuttle)이라는 부인을 사별하고 은퇴한 목사가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그로브에 살던 이혼녀인 앤더슨 부인(Mrs. E. L. Anderson of Pacific Grove, California)과 결혼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¹⁷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 터틀은 73세

였고 앤더슨은 기세 였다. 앤더슨은 13년간 이혼한 상태로 살았고, 그녀의 첫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떠나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법 위반이었다. 처음에는 연회 목사회(Conference Relations Committee)는 터틀 목사를 고발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감독과 사법 위원회는 이 결정을 뒤집고, 캘리포니아 연회에게 불법 결혼을 이유로 한 기소를 명하였다. 연합감리교회와 대부분의 연회는 지금은 이혼을 죄로 여기거나 재혼을 금지하지 않는다 (장정 ¶ 161.D항 참조).¹⁸

구체적인 비도덕적 행동의 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왔지만, 감리교회는 개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단지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다.¹⁹ 도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에 대한 규칙들은 종종 교회에서 논쟁이 되곤 한다. 이것이 특히 목회자의 행동에 관한 규칙들에서 그렇다. 목회자들은 도덕성이 모든 감리교회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일반 성도들보다 더 교회법에 엄격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법 집행이 특히 율법주의적이 될 때, 이것은 도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표이다. 논란이 되는 도덕의 상황이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회의라는 기회와 시간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덕적 규칙들의 배후에 있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가는데 필수적이다. 도덕적인 분별은 이런 때야말로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와 공공 정책 옹호

도덕적 증언의 세 번째 차원은 윤리, 즉 우리의 도덕을 의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 것은 특히 도덕이 변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이다. 윤리는 정당화하거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논리와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 이것이 윤리의 과제이다. 윤리는 무엇이 옳고, 선하고, 덕이 되는 지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성찰이다.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배웠던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윤리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윤리는 단지 바르고 좋은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의도가 중요하다. 윤리는 또한 결과를 고려한다. 윤리적인 행동은 책임적인 행동이다. 우리는 공손하라고 배웠고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배웠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 정당성을 결정한 때에만 윤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교회의 공공 정책 옹호는 윤리적인 씨름의 의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예이다.

감리교회의 공공 정책 개입의 대표적인 예가 금주 운동이다.²¹ 감리교회는 사회에서 술 음료를 없애는 전국적인 노력에 중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프랜시스 윌라드(Frances Willard)는 그녀의 동료 감리교인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 그녀는 1874년 여성 기독교 금주 연맹(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창당 당시부터 1898년 그녀가 죽을 때까지 20 여년을 회장으로 섬겼다.²² 윌라드는 능력있는 조직가였고 대변인이었다. 그녀는 술과 술에 취함이 모든 사회 악의 근본이고, "범죄와 학대와 가난과 실업과 타락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²³ 많은 감리교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20세기 초 감리교회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금주는 절주를 의미하였다. 헤버트 웰치(Herbert Welch) 감독은 성찬식에 쓸 발효되지 않은 포도 주스를 만들었다. 교인들은 절주 맹세 카드에 매년 서명을 했다. 연합 형제 교회(United Brethren Church)는 1905년에 금주 위원회(Temperance Commission)를 발족하였다. 감리교회는 1912년에 수도에서 정치적 로비

를 통해 그것을 절주, 금주, 공중 도덕 위원회(Board of Temperance, Prohibition and Public Morals)로 이름 붙였다.²⁴ 감리교회의 정치적인 옹호 활동 덕분에 미국은 1919년에 술 음료 제조 및 판매를 금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1933년에 폐기되었다. 금주운동은 단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도덕적인 증언을 공공 정책 옹호를 통해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오래 살아 남아있다.²⁵

총회의 교회와 사회 위원회는 그 전의 <절주, 금주, 그리고 공중 도덕 위원회>의 사역을 이어 받아 확대하였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사회 원칙이 실천되도록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총회의 정책 선언문들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책임에 포함되는 일에는 “다른 연합감리교회 총회 기관들의 국회 내 입법 옹호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 있다.²⁷ 위원회는 그 웹사이트에서 정책 대변 우선순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특정 입법안에 대해 자기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함으로써 정치적인 과정에 개입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²⁸ 현재 공공 정책 옹호 의제들에는 연방 정부 최저 임금 인상안, 기후 활동 지원,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 지원 등이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도 공공 정책 옹호에 개입하고 있다. 2016-2020의 주요 의제는 유색 인종 공동체의 범죄 집단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경제 불평등, 그리고 기후 정의와 산모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는데, 2021-2024의 의제는 유색 인종 공동체의 범죄 집단화 및 대량 수감문제, 특히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송수관을 중단시키는 일과, 기후 정의,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위한 공정한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들어있다.²⁹ 이러한 의제들 하나 하나가 공공 분야에서의 사회 원칙의 표현들이다. 즉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일부인 것이다.

공공 정책 옹호는 윤리적 및 신학적인 분별을 요구한다. 2008년 총회는 우리의 공공 옹호 활동을 위한 지침으로 “인간성과 정치와 기독교인의 일치”(“On Humility, Politics, and Christian Unity”)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³⁰ 여기서 “정의와 공공 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겸허한 기독교인의 사회적 개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결의문은 “공공 정책 논의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은 종종 ‘기독교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핵심은 어떤 공공 정책 결정을 하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공개적인 토론이 다르게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이들을 적대시하는 종교적인 원칙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총회는 “정치적 및 교회적인 분야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특정 공공 정책 제안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워 할 것”을 요청했다.

불확실하고 필요한 과제

금주 운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은 한 가지 단일 정책 제안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힘겨운 일이라는 점이다. 도덕적인 증언은 불확실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이든 우리 편에 계시다고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때에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언제나 끝나지 않는, 불완전한, 그리고 불확실한 과정이다.

연합감리교회가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너무 약하게 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780년대, 백임 감리교인들은 노예 소유와 매매에 반대하여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였다. 1785년에 출판된 첫 번째 장정은 이 규정을 어기는 감리교인은 출교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예외 조항이 늘어나고 집행이 느슨해 지면서 바로 뒷걸음을 쳤다. 초기 감리교회의 노예제도에 대한 증언은 뒤척거렸다.

나의 조상들은 적어도 일정 부분 이러한 증언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나의 가족은 미국 골수 남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 세대 이전에,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조지아와 알라바마에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나는 그들이 교회 간 것을 알고 있고 인종적으로 분리된 동네에 살았다고 알고 있다. 두 가지 다 당시에는 합당한 행동방식이었다. 나는 그들이 노예제도의 악에 대해 증언하였는지 아니면 성경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노예화하는 일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는지 알 지 못한다.

우리의 과거에서 있었던 예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기는 힘들다. 감리교회가 흔들림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노예제도는 악이라고 선언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렸다. 왜 이런 악의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감리교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도덕적인 불확실성을 보였을까?

이 책은 교회와 사회가 오늘날 대면한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도덕적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용기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가 담대하든 소극적이든 침묵하든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우리 믿음의 증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힘겨운 그러나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으로 표류하도록 남겨둔 것은 아니다. 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웨슬리의 신학에 확고하게 근거하고 있다.



생각해 볼 질문들:

1. 공손함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언제 “좋은 매너”와 합당한 예절이 정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경험을 하였는가? 언제 당신은 망가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2. 도덕적인 규율의 불확실성과 필요성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릴 때 배운, 그러나 지금은 한물 간 도덕적인 기대 하나를 말해 보라. 지금도 지키고 있는 지속적인 도덕적 기대 하나를 말해 보라.
3. 공공 정책 옹호의 필요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당신은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에 개입해 본적이 있는가? 여기에는 편지쓰기, 투표하기, 지역사회 토론에 참석하기, 지역 국회의원 접촉하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당신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3. 선행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서로 서로의 관계에서 각 개인이 가진 근본적인 정체성을 긍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 사회 원칙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받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다.”³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완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동등하다. 웨슬리의 선행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과, 보편적 구속의 교리는 인권과 평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근거로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배경을 제공해 준다.

선행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을 인식할 때 썬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매 순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이웃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창조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27).

당신과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든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우리 각자가 창조주의 반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주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사회 원칙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³² 아무 것도, 심지어는 죄와 죽음의 세력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38-39).

하나님에게 받은 기본적인 가치는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동등하게 귀하다는 것을 믿는다.”³³ 예절이나 존중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³⁴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 관계의 상호 작용에서 도움이 된다. 신학적인 가치의 인정은 동시에 인권에 대한 기반이다.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유대 및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 모두가 위대하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 거기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에 대한 확신의 기본틀이다.”³⁵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런 권리가 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평등한 가치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세운다는 것이다.³⁶ 감리교회는 종종 주어진 가치를 고유한 존엄성으로 이야기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존엄성이 있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열거된 것과 같은 기본 인권을 지지한다.³⁷ 그러므로, 연합 감리교회의 정치적 인권에 대한 옹호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사람의 기본 인권은 기독교의 진리와 타협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눈에 평등하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신학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토론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을 막는다면 공동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동등한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집단이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고요한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다른 집단의 의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논쟁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³⁸ 바로 이렇게 교회가 일관되게 각 개인의 고요한 존엄과 가치를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증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고요한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헌신은 예언자적인 도덕적 증언을 촉발시킬 수 있다. 1937년에, (백인) 남감리교회 여성교회(Women’s Missionary Council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는 인종적으로 통합된 교회를 옹호하였다. 감리교회가 결국 통합되기 30년 전이다. 선교회의 회원들은 <유색인종 여성들을 위한 지도자 학교>(Leadership Schools for colored women)에서 유색 감리교회의 흑인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였다.³⁹ 10년을 함께 동역한 인종 간의 벽을 넘은 여성교회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모든 사람을 향한, 즉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남자와 여자를 향한 그 분의 사랑”을 보았다.⁴⁰ 이 경험이 백인 여성교회원들에게 인종적으로 분리된 곧 형성되게 될 감리교회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감리교회의 연결주의가 우리에게 인종과 국가와 경제적인 계층을 넘어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인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는 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더 잘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⁴¹ 예언자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에 근거하여 인종 통합을 지지하는 말을 하였다. 이 선언의 배경에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말들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개인의 지고한 가치,” “인류의 형제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⁴² 감리교 역사학자인 앨리스 노트(Alice Knotts)는 이러한 긍정문의 영향을 잘 요약하였다: “하나님이 신적인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장을 함축한다.”⁴³ 이러한 기본적인 긍정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위험을 수반한다.

1939년에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중앙 지역회로 분리시킨 후에 여성교회는 계속해서 인종에 관계없는 평등에 대한 도덕적 증언을 해왔다. 1948년에, 그들은 인권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대한 회장보고>(To Secure These Rights: The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Civil Rights)를 널리 배포하고 그와 함께 학습 지침서를 출판 및 배포하였다.⁴⁴ 1950년에는, 여성교회는 미국 내의 인종 분리 법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연구를 출판하였고, 1952년에 처음으로 “감리교회 인종 헌장 정책(Charter of Racial Policies within the Methodist Church)”을 출판하였다.⁴⁵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은 거기서 첫 번째로 긍정적인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그의 자녀임을 믿는다.”⁴⁶ 이러한 역사적인 통합의 예와 인종 정의에 관한 사역이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하나님의 형상과 선행 은총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보여준다.



생각할 문제들: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러한 긍정의 말이 교회와 사회 안에서 당신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와 평등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긍정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2. 당신은 언제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방식 중의 특정한 면 (가령 피부색, 성별, 신장, 왼손잡이라는 점, 능력의 범위 등) 때문에 덜 평등하게 취급된 것을 경험하였는가?
3. 국제 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의 부분들을 읽고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이 문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들을 지지하도록 이끌었는지를 토론해 보라. 사회 원칙들의 어떤 부분들이 또한 이 권리들을 지지하는가?

4. 증언의 위험성

도덕적 증언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그것은 종종 우리들에게 불일치와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필 워거먼(Phil Wogaman)의 행동은 분별 혹은 예언자적 통찰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예절과 도덕과 윤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 준다. 워거먼(Wogaman)은 은퇴한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이다. 그는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고 웨슬리 신학교의 학장을 지냈다. 2017년 5월 31일 그는 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 워싱턴 연회에서 성소수자 안수를 반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뜻에서 공식적으로 자기의 목회자로서의 권리를 반납했다.⁴⁷ 공손하게 예절 바른 행동을 하자면 결혼한 레지비언인 티씨 머로우(T.C. Morrow)에 대한 연회 안수 위원회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 가지 공손한 반응이라면 위원회의 권위에 굴복하고 침묵하거나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 정도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워거먼은 결별을 택했다. 그는 온전한 인간의 변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인식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반론을 제기하는 도덕

워거먼은 윤리학자이다. 그는 평생을 도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로 보냈다. 교회 법이 동성애가 비도덕적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진 윤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었다. 연합 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그 정도는 지적한다—적어도 세상 법에 의하면 “정부의 법과 규정이 기독교인의 양심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주지는 못한다.”⁴⁸ 법만으로는 논쟁이 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을 판단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의 문제에 있어서 연합감리교회는 “우리는 개인들이 양심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때, 그리고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쓰고 난 후에, 자기들이 차별적으로 집행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에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주장한다.⁴⁹ 교회는 자기 자신의 법에 대해서도 같은 정도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하라고 권면할 것인가? 워거먼은 분명히 그렇게 믿은 것이다. 전통적인 도덕이 계속 정당성을 가지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윤리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과거에 대한 묵상은 현재에 대한 시각을 바로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워거먼이 태어난 해인 1933년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듯이,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를 것이 기대 되었다.⁵⁰ 채무와 마약과 이혼은 목회자의 도덕성의 기준으로 규정되었다. 감리교인들은 큰 채무를 지면 안된다고 배웠다. 감리교회는 금주운동을 지지했다. 감리교인들은 술을 멀리했다.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감리교인들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외가 있다면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한 가지 성경적인 이유 뿐이었다 (마태복음 5:32). 만약 교인이 이 법들을 어기면 그것은 위반 행위였다. 만약 목회자가 이 규정들을 어기면, 그것은 추문이었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술과 담배를 금하며, 이혼이라는 죄를 피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은 감리교회 전통이었고 워거먼은 그 안에서 자랐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도덕은 워거먼의 일생 동안에 변화 되었다.

2017년에, 연합감리교회 법은 목회자들에게 부채와 마약과 이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⁵¹ 목회자가 되려면 여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질문인, “당신은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목회자들은 긍정 혹은 부정으로 대답해야 한다.⁵² 그러나, 현실은 신학교 교육을 받느라 큰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후보생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비록 사회 원칙들이 완전한 금주를 신실한 증언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금주는 더 이상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⁵³ 연합감리교회는 더 이상 이혼을 죄로 여기거나 안수 사역의 부적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 장정에서 목회자의 이혼을 한 때 금지했던 그 부분은 “스스로 동성애를 한다고 선포한” 사람의 안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워거먼이 이의를 제기한 도덕이다. 그의 행동은 연합감리교회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윤리적 분별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변화하면서 발전한다. 우리는 이것을 워거먼의 일생에 걸친 감리교회의 도덕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1933년의 감리교회는 분열되어 있었다. 지금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섯 개의 다른 교단들이었다. 어떤 교단은 여자를 안수했다. 어떤 교단은 그렇지 않았다. 어떤 교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백인들로부터 분리했다. 어떤 교단을 그렇지 않았다. 모든 교단들이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었다.

미국에서의 감리교회는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예제도와 교회에서의 권위와 권력의 문제로 분리된 결과였다. 세 개의 감리교회 분파들이 1939년에 다시 연합되었다.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정치적인 타협의 짐을 졌고, 그 결과 인종적으로 분리된 지역총회 구조와 그 전에 여성 목회자의 권리를 지녔던 이들의 권리 상실이 초래 되었다. 여성 안수는 역시 1946년의 연합 형제 교회의 형성에서 피해를 입었다. 두 경우 모두, 힘을 합친 대다수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관련된 법들을 제정하는데 성경적인 뒷받침을 주장하였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백인들은 흑인들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감리교회의 초점은 채무, 마약, 이혼 등의 개인적인 도덕에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는 성차별을 바로 잡는 정의나 인종 차별을 바로 잡는 평등 등의 제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부족한 것이 입증되었다.

도덕적 증언은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나 목회자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오만함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고 의로움과 죄를 구분하는 분별을 요구한다. 도덕적 증언은 지속적인 윤리적인 성찰을 포함한다. 윤리적인 도전은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우리가 변화될 때 분별

하게 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2). 그러나 정의는 뒤돌아 볼 때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쉽다.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분별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예언자적이라고 할 때 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미래의 가족 공동체의 빛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예언자적인 통찰력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길을 분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고린도전서 13:9). 예언자적인 통찰은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때 하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 예언자적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옹호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감리교회 전통 안에는 도덕적인 도전을 촉발한 예언자적인 지도력의 많은 예들이 있다. 맥시 던남(Maxie Dunnam), 제임스 토마스(James Thomas), 조지아 하크니스(Georgia Harkness), 헬레노아 데이비슨(Helenor Davisson), 그리고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 등은 각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길을 찾았다. 던남(Dunnam)은 1963년에 인종 분리에 반대하고 인종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미시시피의 백인 감리교회 목회자 모임의 한 사람이었다.⁵⁴ 토마스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감리교회의 분리 구조를 없애려는 입법 노력을 인도하였다.⁵⁵ 데이비슨 목사가 감리교회 전통에서 첫 안수 받은 여성이 된 지 90년이 지난 후인 1956년, 조지아 하크니스는 다른 이들과 함께 여성의 온전한 목회자 권리 취득을 위한 결정을 촉구하였다.⁵⁶ 후버는 1968년에 연합감리교회의 총회 세계 선교부의 여성국 총무로 선출되었는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 교단의 그 정도 지위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다.⁵⁷ 이 사람들 각각은 교회가 더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도덕들에 도전하는 예의 바른 행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증언하기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고 선행 은총으로 불이 붙은 증언의 과정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 준다. 증언은 우리들이 이 노력에 내재해 있는 위험을 비켜 지나가는 것을 도와준다. 위의 예에서 워거먼(Wogaman)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제 자매 관계와 하나님 아래서의 공통된 존엄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역사적인 명료함을 찾기 위해 그는 부정의 유형을 분별하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였다. 그의 참여는 자신이 이해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를 위한 연대감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이런 것들이 증언을 위한 네 가지 시점들이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연대해서 하는 노력이다. 워거먼(Wogaman)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증언은 공동체에 뿌리를 둔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소그룹의 상호 책임성 안에서 시작된다. 기독교 회의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들은 자라고 서로를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공통점을 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교감을 잃을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의 밖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밖에 있는, 그리고 세상 전체에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평등한 존엄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사랑과 정의와 우리 이웃들과의 연대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는 윤리적인 분별을 위한 이러한 장을 제공하는 일이 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필요한 경우라고 해도 분열적일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굳건히 서서 우리는 모든 인류의 형제 자매됨을 인정한다. 먼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몫을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평등하고 무한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음을 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은 모든 피조 세계의 곳곳에서 우리와 만나준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에 직면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훈련된 방식이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당한 세상 법에 불복종해야 되는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같은 논리가 부당한 교회 법에 불복종 해야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2. 기독교 회의는 은총의 수단이다. 당신은 예절과 도덕과 윤리를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기독교 회의에 들어갔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3. 교회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분명히 제한된다. 우리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옳음과 그름,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바라보는 더 큰 세력들에 제한된 것을 고려하고 있는가?
4. 교회가 도덕적 증언을 할 때 개인의 경험에서나 교회의 경험에서나 당신이 읽은 교회의 역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보고 있는가?

5.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우리가 땅에 뿌리 내린 존재라는 사실이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우리를 존재하도록 생명을 주셨다! 형제 태양이여, 자매 달이여, 꽃들과 열매들이여, 너희들과 나, “모든 우리 하나님과 왕 되신 이의 피조물들이여. . . 모든 것들은 자기 창조주를 찬양할지이다!”⁵⁸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우리들은 감사할 것이 많다. 우리의 감사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주는 것이다.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어서 당신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무슨 물건이라도 되어서 기독교인들만이 덜 재수좋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특

권을 가지고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줄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보다 먼저 계시고 당신에게도 불구하고 계시고 당신을 만나주신다. 성 패트릭이 쓴 것으로 알려진 “목마른 사슴의 외침” 보다 더 분명하게 영원하고 어디나 계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는 없다:

나는 오늘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힘에 힘입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릅니다
삼위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창조세계의 창조주의 하나되심에 대한
고백에 힘입어.

...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는 내 이전에,
그리스도는 내 위에,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그리스도는 내 좌편에, 그리스도는 내가 누울 때,
그리스도는 내가 앉을 때, 그리스도는 내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는 나에게 대해 말하는 모든 이의 입술에,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그리스도는 나를 듣는 모든 이의 귀에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힘에 힘입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릅니다
삼위에 대한 믿음에 힘입어
창조세계의 창조주의 하나되심에 대한 고백에 힘입어.⁵⁹

출처: 성 패트릭, “목마른 사슴의 외침,” 영어 번역 쿠노 마이어 (Kuno Meyer), 데이비드 아담(David Adam)이 편집한 <목마른 사슴의 외침: 성 패트릭의 찬송 묵상>(The Cry of the Deer: Meditations on the Hymn of St. Patrick) (런던: SPCK, 1987, 2007), 3-5쪽에 수록됨.

아멘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고 우리를 따라 오신다. 나는 바보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이웃에게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는 이미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채우소서. 우리 속에 생명의 숨을 거둡 거둡 불어 넣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각 사람에게서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셔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부정의한 것도 깨어 버리도록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소서 . . .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⁶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활동:

1. 기도 모임에서 다음 찬송을 큰 소리로 읽어 보라, “내게 숨이 있을 때 나는 나를 지으신 분을 찬송하리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60장). 그리고 이 찬송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며 불러 보라.
2.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몇 시간을 지내 보라. 산책을 하든지, 정원에 앉아 보든지, 아니면 마당의 식물이나 애완 동물을 돌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신의 경험을 일기에 적어라.
3. 이웃과 동네로 나가보라—장을 보든, 건든,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든 말이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대화를 해라. 각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 이 경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김분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요약

연합감리교회는 도덕적 증언에 열정이 있다. 이것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 성결에 초점을 두는 전통에 있어서는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신앙 생활을 더 좋게 하는데 개인적 모범과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관여한다. 증언의 첫 번째 시점은 땅에 뿌리 내린 존재라는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을 피조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감리교인들의 도덕적 증언은 선행 은총에 뿌리내리고 있다.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다.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심오한 평등성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감리교인들이 정치적 인권에 헌신하는 근거가 된다. 도덕적 증언은 위험하면서도 필요하다.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은 윤리적인 분별과 함께 예언자적 통찰을 요구한다. 증언의 과정은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후주

1. 하나님에 관한 언어와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탁월한 연구는 아이다 페르난데즈(Aida Fernandez), 수잔 하일렌(Susan Hylen), 그리고 아드리엔느 트레바탄(Adrienne Trevathan)이 공저한, 성경 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 되었는지에 대한 연합 감리교회의 한 연구를 보라. 캐롤 쿡-무어(Carol Cook-Moore) 편찬 (시카고: 총회 여성 지위와 역할 위원회, 2017).
2. 정치에 관한 공개 토론은 그전보다 지금이 더 이견이 많다. 퓨 리서치 센터, “미국 내에서의 정치적 담론의 현실에 대해 대중은 아주 비판적이다,” 2019년 6월 19일, people-press.org/2019/06/19/public-highly-critical-of-state-of-political-discourse-in-the-u-s, 2020년 5월 12일 접속.
3. 트레이시 씨 웨스트(Traci C. West), *판을 깨는 기독교 윤리: 인종차별과 여성의 생명이 문제가 될 때* (루이빌, 켄터키: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프레스, 2006).
4. 월터 윈크(Walter Wink), *예수와 비폭력: 제 3의 길*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03), 12쪽.
5. 넬리 보울리스(Nellie Bowles), “어떻게 트럼프 지지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을 대화하게 할 수 있을까: 누구도 원 안에 앉게 하지 마라,” 뉴욕 타임즈, 2019년 11월 3일자, nytimes.com/2019/11/03/us/trump-voters-liberals.html, accessed 2020년 5월 12일 접속.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이들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레이튼 이 윌리엄스(Layton E. Williams), *거룩한 분열: 우리를 나누어지게 한 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루이빌, 켄터키: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프레스, 2019) 참조.

6. 공공 토론을 위한 전국 기관(National Institute for Civil Discourse), “황금률 2020,” goldenrule2020.org, 2020년 5월 12일 접속.
7. “인종적인 예절”—“일련의 일상 생활 관계에서 작동하는 인종과 관련된 의미와 해석 규칙”의 존재는 인종적인 분리와 차별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마이클 오미(Michael Omi)와 하워드 위난트(Howard Winant)의 “인종적인 형성”을 보라. 미국에서의 인종, 계급, 성별: 통합 연구, 9번째 개정판을 보라. 폴라 에스 로덴버그(Paula S. Rothenberg)와 켈리 에스 메이휴(Kelly S. Mayhew) 공동 편집 (뉴욕: 위스 퍼블리셔즈, 2014), 16쪽.
8. “알라바마 목회자 성명서,” 1963년 4월 12일, kinginstitute.stanford.edu/sites/mlk/files/lesson-activities/clergybirmingham1963.pdf, 2020년 5월 12일 접속.
9. “일치를 찾아서,” 연합 감리교회의 일치를 위한 제안을 담은 대화, 연합 감리교회의 신학적 다양성에 대한 대화, 내쉬빌, 1997년 11월 20-21일; 달라스, 1998년 2월 19-20일, umaffirm.org/cornet/unity.html.
10. 어퍼 뉴욕 커뮤니케이션스, “거룩한 회의의 원칙들,” 2016년 7월 8일, unyumc.org/news/article/the-principles-of-holy-conferencing.
11. 샬리 디크(Sally Dyck), “거룩한 회의의 여덟가지 원칙들: 교회와 모임들의 학습 지침,” 미네아폴리스, 2012, mnumc-email.brtaapp.com/files/eefiles/documents/holy_conferencing_study_guide_2012.pdf, 2020년 5월 12일.
12. 엘렌 오토 마샬(Ellen Ott Marshall)은, 그러므로, “특정 행동들이 덕스러운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의심의 해석학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엘렌 오토 마샬(Ellen Ott Marshall), 기독교 윤리학 개론: 갈등, 믿음, 그리고 인간의 삶 (루이빌, 켄터키: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2018), 120쪽.
13. 거룩하지 못한 여흥활동에 대한 감리교회의 가르침은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감리교회 도덕들: 대중적인 교회의 증언에 있어서 사회 원칙들을 보라. 학습 지침은 루스 에이 도어티(Ruth A. Daugherty)가 썼다. darrylwstephens.com/?page_id=93 (녹스빌: 테네시 대학 출판부, 2016), 62 쪽.
14.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에서 발췌. 판권은 © 2016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77-80쪽.
15.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에서 발췌. 판권은 © 2016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79쪽.
16.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1936 (뉴욕: 메소디스트 북 컨선, 1936), 78쪽. 특별한 제안들에 대한 논의는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회 도덕들, 61-64쪽을 보라.
17.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회 도덕들, 150-51쪽.
18.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에서 발췌.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D. 아프리카의 어떤 연합들은 아직도 이혼을 도덕적 문제로 여김.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라이베리아의 이혼법과 연결주의,” 유니타드 메소디스트 인사이트, 2016년 3월 3일, um-insight.net/in-the-church/umc-global-nature/liberian-divorce-rule-and-connectionalism, 2020년 5월 12일 접속.
19. 더 자세한 토론은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회 도덕들, 55-57, 61-64쪽을 보라.
20. 빈 더블유 로빈(Robin W. Lovin), 기독교 윤리: 핵심적 지침 (내쉬빌: 아빙돈, 2000).
21. 연합감리교회의 전신 교단들 전부가 금주를 지지했다. 제니퍼 우드러프 테이트(Jennifer Woodruff Tait), “다른 금주 교단들: 복음주의 연합 형제 전통과 알코올,” 메소디스트 히스토리 57 권1-2호 (Oct 2018년 10월호와 2019년 1월호): 64-73쪽.
22. 러셀 이 리치(Russell E. Richey), 케네스 이 로(Kenneth E. Rowe), 그리고 진 밀러 슈미트(Jean Miller Schmidt) 공저 미국에서의 감리교회의 경험: 약사, 1권 (내쉬빌: 아빙돈, 2010), 240-41쪽.
23. 앞의 책, 240쪽.
24. 앞의 책, 336쪽.
25. 테이트(Tait)는, 그러나, 금주운동은 실제 성공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의 술 판매를 두 세대에 걸쳐서 줄였다는 것이다. 발표내용은 “머징 더 스트림스(Merging the Streams)”라고 오하이오 주 데이톤에서 2018년 7월 9-12에 있었던 연합감리교회 50주년 기념 역사적 모임에서 한 것이다.

26.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004.
27. 앞의 책, ¶ 1004.
28. 총회 교회와 사회부, “행동하라,” umcjustice.org/what-you-can-do/advocacy/take-ac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29.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우선순의 주제들: 2016–2020,” unitedmethodistwomen.org/issues, 2020년 5월 12일 접속;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우선순의 주제들: 2021–2024,” unitedmethodistwomen.org/members-leaders/2021-2024-handbook/take-on-tasks.pdf.
30. 결의문 5104조, “겸손과 정치와 교회 일치에 관하여,”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661–62 쪽.
31.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도 자신의 자연적인 인권에 관한 신학을 주어진 가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다.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정의: 옹고 그림 (프린스턴,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2008), 360 쪽.
32.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
33.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
34. 딕(Dyck), “거룩한 회의의 여덟가지 원칙들.”
35. 볼터스토프(Wolterstorff), 정의, 393쪽.
36. 엘렌 오토 마샬(Ellen Ott Marshall)도 권리에 대해 관계적인 견해를 강조한다. 마샬(Marshall), 기독교 윤리학 개론, 56–57쪽.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대한 신학적 언급을 통한 인권을 지지한다; 볼터스토프(Wolterstorff)는 약간 다르게 주어진 가치에 주로 인권의 근거를 둔다. 볼터스토프(Wolterstorff), 정의, 360, 393쪽.
37.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 사회 원리들과 인권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 도덕, 82–94쪽 참조.
38. 이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것”을 왜곡하는 한 예이다. 볼터스토프(Wolterstorff), 정의, 7쪽.
39. “여성교회 일치에 관한 연구 그룹 보고, 1937,” 앨리스 지 노트(Alice G. Knotts), 사랑의 교제: 미국의 인종에 대한 태도를 바꾼 감리교 여성들, 1920–1968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6), 265쪽에 인용됨.
40. 앞의 책, 266쪽.
41. 앞의 책, 86쪽.
42. “여성교회 27차 연례 보고서, 1937,” 157쪽, 노트(Knotts), 사랑의 교제, 87쪽에 인용됨.
43. 노트(Knotts), 사랑의 교제, 87쪽.
44. 앞의 책, 170쪽.
45. 앞의 책, 196–97쪽. 1978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새로운 “인종 정의 헌장”을 만들었다. 그것은 1980년에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다시 반복해서 채택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상호의존적인 지구촌 공동체 안에서의 인종 정의 헌장,” unitedmethodistwomen.org/racialjusticecharter, 2020년 5월 12일 접속.
46. 앞의 책, 197쪽.
47. “연합감리교회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여 필 보가맨(Phil Wogaman)은 목회자 지위를 포기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인사이트, 2017년 5월 31일자, um-insight.net/in-the-church/ordained-ministry/in-protest-of-lgbtq-treatment-in-umc-phil-wogaman-surrenders 본인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보려면 제이 필립 보가맨(J. Philip Wogaman), 나의 안수를 포기함: 연합 감리교회에서의 동성연애자들을 위한 항변 (루이빌: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프레스, 2018) 참조.
48.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K.
49.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4.F.

50. 이 후의 논의는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독자 의견: 격변의 시기의 기독교 윤리,” 연합 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7년 6월 13일자를 따름, umnews.org/en/news/commentary-christian-ethics-in-volatile-times. 목회자 윤리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 도덕, 42-44쪽 참조.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 사역자의 도덕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긴 주석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310.2d). 논의는 스티븐스(Stephens), 감리교 도덕, 44쪽 참조.
52.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 2016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 336.
53. 최근 1960년대 까지도, 감리교회 교인들은 매년 금주 서약 맹세 카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되었다.
54. 조셉 티 라이프(Joseph T. Reiff), 확신을 가지고 탄생한: 백인 감리교인과 미시시피의 닫힌 사회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2015).
55. 제임스 에스 토마스(James S. Thomas), 감리교회의 인종 갈등: 중간 연회 이야기 (내쉬빌: 아빙돈, 1992).
56. 패트리샤 제이 톰슨(Patricia J. Thompson), 용감한 과거, 과감한 미래: 연합 감리교회 안에서의 여성 목회자의 온전한 권리를 향한 여정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고등 교육국, 2006).
57. 엘렌 블루(Ellen Blue), 변화를 위해 뭉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역사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19), 102쪽.
58. “우리 왕되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 연합 감리교회 예배서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 1989), 62 쪽.
59. 성 패트릭(Saint Patrick), “목마른 사슴의 외침,” 영어 번역 쿠노 마이어(Kuno Meyer), 데이비드 아담(David Adam), 목마른 사슴의 외침: 성 패트릭의 찬양 묵상 (런던: SPCK, 1987, 2007), 3-5쪽에 수록됨.
60. 켄 메데나(Ken Medema),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들으소서” © 1973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모임 II:

깨어 있는 현재

당 신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받기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우리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친밀하게 알려 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수줍거나 활달하거나, 자신이 없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우리의 이야기를 하라는 초청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린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친밀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는 없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 등 우리가 스스로에 관해서 간직한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진실된 것을 드러낸다. 누군가 우리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을 사랑에 빠지기 쉽게 한다. 우리는 알려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런 욕구에 움찔한다. 나는 말할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내 개인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흥미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내 갈등을 나누는 것은 조심스럽다. 내 내면의 의심과 꿈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다. 만약 질문한 사람이 자기가 들은 내용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쩌나? 내가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 체면도 구겨지고, 가면도 벗겨지고, 뒤에 숨을 보호막도 없다—오직 나의 타락한 인간성과 벌거벗고 두려운 모습만 남았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10). 그러나 나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를 갈망한다.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갈등이 아닌가?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한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망설여진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듣고 반응할 것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하기도 두렵고 사랑받기도 두렵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인식하고 있던 종류의 친밀함이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살살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1-3).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은 깊은 인간의 욕구이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운 일이다. 아마도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던 이유일 것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내 이야기를 숨길 방법이 없다. 그러나 벌거벗은 상태와 부족한 모습은 계속 나를 붙잡는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두려움을 미리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미리 행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다”고 선포하셨다. 내가 알려지기를 두

려워하는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된 것들이 “좋다”고 선언하셨고 인간은 “아주 좋다”고 선포하신 것에서 확신의 심을 가진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가치가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는 친밀함과 인도함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나를 살살이 살펴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 주십시오. 내가 고통받을 길을 가고 있거나 없는지 나를 살펴보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139:23-24). 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 주님. 제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미래로 인도하십시오. 당신의 정의를 꿈꾸도록 허락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세상에서 증언하게 하십시오. 아멘.

1. 하나님의 지혜

보통 사람이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공정한 세상을 원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감지하려면 단지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날씨, 정치, 심지어는 종교 자신도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바로 보고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지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판단하면 안되고 잘 들어야 한다.

증언의 둘째 시점은 깨어 있는 현재이다. 교회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 뿐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좋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라고 하는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기독교 도덕 철학자는 “현존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 모든 것이다. 창조된 세상의 모든 부분이 좋은 것이다. 기독교적인 도덕적 증언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온전히 깨어 있어 우주와 창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복합적인 것의 선함을 음미해야 한다. 심지어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도 그렇다. 모든 창조가 선한 것이지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가 현재적이고 깨어 있는 것 둘 다를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나머지 깨어서 현존해야 한다.

제인 더튼(Jane Dutton)이라는 펜실바니아 주의 목회자가 그 예다. 주현절 기간 동안 설교할 때, 그녀는 마태복음 2:7-12에 나오는 동방박사를 “변두리 출신 박사”로 묘사했다. 이 점성술사들은 헤롯 제국의 내부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었다. 헤롯은 이 외부인들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들은 사회의 변두리 출신이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외진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더튼(Dutton)은 자기 목회 경험에서 나온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나는 이곳 랭카스터에서 앵커리지 조찬 기도회의 담당 목회자로 매주 자원 봉사하고 있다.³ 나는 매 번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들여다 보며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여기 와주어서 정말 기쁘니다”라고 환영한다. 때로는 “지난 주에 못뵈어 섭섭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어떤 면으로든 애를 쓰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들은 실직자일 수도 있고, 무숙자이거나 최근에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 질환 판정을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사는게 버거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내가 아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중의 일부이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이 산다. 한 사람은 그 전주에 누군가가 코트를 주었는데 그 주에 보니 덜렁 옷옷만 입고 아침 기도회에 도착하였다.

“조, 내가 준 그 코트는 어땠어?”하고 물었다.

“응,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었어”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너는 지금 코트가 없잖아.” “응,” 하면서,

“그래도 나는 머물 곳이 있잖아”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따뜻한 자켓들을 준 적이 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내게 말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는 대로 한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지혜이다. 내가 “그래,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어?”하고 물으면 “축복 받았습시다. 안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제인 설교자님, 나는 축복 받았어요”하고 대답하는 것을 듣는 일은 아주 흔히 있는 일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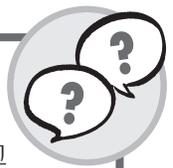
더튼(Dutton)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회 변두리의 사람들, 즉 제국의 외부인들이자 외진 길로 고향에 돌아가거나 아예 고향이 없는 이들의 삶 속에 임하시는 지를 증언한다. 자신들의 코트를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가난한 이들은 누구인가? 더튼(Dutton)은 앵커리지 조찬 기도회에 나오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계속해서 증언한다. 오 헨리(O. Henry)와 공감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결론내린다.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다.”⁵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7, 29). 조나 제인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둘 다 엄청난 인격의 힘을 보여준다. 바울이 “어리석은 것”과 “약한 것”을 언급할 때 그것은 조나 제인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말이다. 바울은 자기 독자들을 초청하면서, 고대 고린도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이들을 어리석고 약하다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독자들과 구경꾼들, 조(Joe)가 자기 단벌 코트를 주었다는 사실, 혹은 오 헨리(O. Henry)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속 여주인공 델라(Della)가 자기 머리를 팔았다는 사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박박사들이 아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그 먼길을 여행해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머리를 긁적이는 우리들 말이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계획하시는 지 안다고 자만하는 어리석고 약한 것들이다. 우리가 누가 어리석고 약한 지 아는 것처럼 전제된 이들이다—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동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겨왔건만 우리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드러낸다.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지를 배운다. 바울로부터 우리는 지혜와 힘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님을 배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는 단지 감사할 뿐이다. 조(Joe), 제인(Jane), 그리고 델라(Della)는 자신들이 지혜롭다기 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이들이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들은 하나님을 증언한다. 기독교 회의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많은 경우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는 이들)에게 서로 서로 책임을 지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면, 증언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와 전혀 믿음을 나누지 않는 이웃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선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같은 감리교인들과 기독교인들과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교제해야 한다.⁶ 그래서 증언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증언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창조 세계에 부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의 증언은 그 두 번째 증언의 시점으로 깨어 있는 현재를 요구한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깨어 있는 현재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이웃의 필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요한 웨슬리가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의롭다 인정받음과 비슷하게 깨어있는 현재의 순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 지를 드러내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심판한다. 사랑은 무관심과 무정함과 고난에 반대한다. 깨어있는 현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맞추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공감을 가지라는 촉구이다. 이것이 증언의 두 번째 시점이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당신은 “모든 현존하는 것들이 선하다”는 말을 믿는가? 만약 당신이 이 선언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믿는다면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당신의 이웃과 당신 자신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당신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2. 당신은 조(Joe)가 자기 코트를 준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현명하든 아니든, 어떻게 조의 행동이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는가?
3. 누군가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온전한 관심을 가져준 시간을 생각해 보라. 그들의 깨어있는 현재가 어떻게 이웃의 사랑을 표현하였는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가?

2. 현재의 삶 속에서 증언하기

증언은 내 이웃을 위해 같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들의 이야기에 기도하듯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빌립보서 2:4).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복음의 기쁨을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결혼 및 가정 상담사인 샤론 램지(Sharon Ramsay)는 증언을 우리의 관심을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맞추는 일이라고 묘사한다. 그녀는 이렇게 권한다.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을 창조하도록 하자.”⁷ 깨어 있는 현재는 정의로 이끄는 사랑의 행동이고 그 과정 중에 우리를 변화시킨다. 증언은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통해 하시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은 깨어 있는 현재를 통해 시작된다.

증언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일이다. 이것은 중요한 관계적인 개념인데,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인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증언은 다른 사람의 경험의 진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하는 것이다.”⁸ 이것은 그냥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 이상이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공감 활동이 들어간다. 증언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 주라고 부름 받았다. 그러한 짐들 중의 하나가 우리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나눌 이야기들이 있다. 증언은 우리 이웃들이 말 못할 사정으로 괴로와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라고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이야기인것 처럼 돌봐주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경험은 기쁨으로 가득찬다. 때로는 그것은 정신적인 외상을 가져다 주는 기억들이 된다. 특히 누군가 정신적 외상을 되살릴 때 같이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증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의사인 가보르 마테(Gabor Maté)에 의하면, “정신적 외상은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공감하는 증인이 없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⁹ 깨어있는 현재는 감정적 및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마음으로 듣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지역/연회 기독교 선교학교에서 (지금은 미션 유) 2011-2012년도 영적 성장 교재였던 <여정: 용서, 회복적 정의와 화해>를 쓰게 했던 것이다. 그 지침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교재 안에 있는 토론들은 개인들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참가자들에게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긴 상처를 불러낼 수도 있다—학대, 슬픔, 이혼 등등. 그런 상처가 되살아날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공감과 재능이 있는 이들이 필요하다.¹⁰

이것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위한 이 교재에도 적용된다. 증언은, 우리가 이번 영적 성장 교재에서 제시했듯이 도덕적 증언의 충격적 외상에 신경을 많이 쓰는 형태이다.¹¹ 우리는 깨어있는 현재를 나누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공감하는 청취자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이 둘 다일 수도 있다. 자기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될 정도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충격적 외상의 증언을 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우리 각자는 과거의 충격적 경험의 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 감정이 상처를 입을 요인에 드러나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충격적인 외상의 이야기를 증언하는 일에 안전하게 느끼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당신은 함께 하는 것을 사양할 수 있다. 사실, 당신은 남을 대신해서 충격적 외상을 경험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유로, 상담학 교수인 파멜라 쿠퍼 화이트(Pamela Cooper-White)는 “그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상처를 들어줄 지속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² 당신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기 자신의 감정적 및 영적 필요를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에 동참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다. 깨어있는 현재의 모든 경우가 당신의 책임이나 소명은 아니다. “감당이 안되요!”하고 소리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자신을 돌보고 공감하는 경청자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쉬도록 한다.

이 증언의 시점은 단지 참석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있다. 우리는 단지 참석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투자해야 한다. 콜럼비아 대학의 연극학과 교수인 앤 보가트(Anne Bogart)는 예술적인 시각으로 본 증언을 이렇게 묘사한다.

증언은 증언자가 본 것을 어떤 시각과 연관지을 것인지를 발전시키는 일이 또한 필요하다. 본 것에서 증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증거하는 것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은 무행동에서 의식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다. 먼저 우리는 다른 이들을 본다. 보는데는 의식적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는데서 증거하는데로 넘어가려면, 우리는 연결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언은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증언은 목회자나 상담사나 중재자들이 “불안하지 않은 현존”(a “non-anxious presence”)이라고 불리는 자세를 요구한다.”¹³

보가트(Bogart)의 연극과 다른 형태의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깊은 철학적인 사고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참여할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현재를 실천할 때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깊은 수준의 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된다. 온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주는 힘은 예술과 치유와 종교를 뛰어 넘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의 흔적을 보게 된다.

3. 의인 은총과 사랑의 계명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 성령은 선행 은총을 통해 우리의 인식 이전에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셨다. 우리는 회개로 응답하고 우리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응답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워진 관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웨슬리가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의로워졌다고 인정받고(의인)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 혹은 거듭남) 순간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증언을 할 때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다.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새로워진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와 고통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이웃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된다. 인간의 공감능력이 신의 사랑에 참여하는 통로이다.

요한 웨슬리의 구원의 길에 대한 이해에서, 의인 은총은 겸손을 불러 일으킨다. 겸손은 요한 웨슬리가 말하는 회개이다.¹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한다. 이러한 최초의 인정과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 삶으로 새로운 방향을 틀게 한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순위로 놓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뀐다. 나는 이제 내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들을 향하신 사랑의 빛에서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 이웃 앞에서 그들과 온전히 함께 함으로써 겸손을 보인다. 그렇게 해서 증언의 둘째 시점인 깨어있는 현재는 구원의 길의 최초 회개와 유사하게 된다.

이웃에 대한 공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당연한 귀결이다. 공감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보는 능력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다. 공감은 신앙 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산상 수훈을 이런 교훈으로 결론 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12). 그렇게 하려면 공감해야 한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기독교만 이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공감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오래된 진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겸손 위에 세워졌듯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공감 위에 건설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면 쉘마(Shema)를 들 수 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는 오직 한 분 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6:4-5). 유일신론, 신실함, 헌신 -- 그 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더 요구할 수 있을까? 탈무드는 유대교의 고대 율법 구전 전통이며 유대교의 해석인데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인 토라(율법서) 안에 613개의 명령이 들어 있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36). 그 질문은 예수님을 꼼꼼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기 19:18과 쉘마(Shema)를 결합해서 답을 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37-40)

이 두가지 율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웨슬리는 모든 계명은 암시된 약속이라고 가르쳤다.¹⁵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동시에 힘을 주신다.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은총으로 힘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의인 은총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종생의 영적 감동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회개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다. 사실, 각자 속에서 (혹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본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인정하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의로운 이들 가운데도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 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37-39)

우리는 서로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정성껏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살아내지 못한 경우에도 거기에 있다.¹⁶

우리가 선행 은총으로 알게 된 주어진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의인 은총으로 할 수 있게 된 이웃에 대한 공감을 결합하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40).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모두 평등하다. 2016년 사회 원칙은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확인한다.”¹⁷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눈에, 모든 귀에, 모든 입, 모든 가슴에 계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웃이다.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이다. 사회 원칙은 그러므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과 집단들에 대한 강력한 도덕적 헌신”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 가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사람들이다.¹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받았다.¹⁹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출애굽기 22:21-22).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들 가운데는 이방인, 과부, 고아들의 보호 규정들이 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의 보호자”(시편 69:5a)시다. 이방인 (이민자 혹은 나그네로도 번역됨)은 자신의 존재를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법 제도에 사는 경우에는 특히 취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공감에 대한 호소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돌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민자의 입장에 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잘 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에게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난한 이들의 편을 드신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출애굽기 22:25). 여기서 성경은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한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이다.

과부, 고아, 이민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 네 취약계층은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이들이다.²⁰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스가랴 7:9-10).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가장 취약한 이들 편을 드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신명기 10:18). 기본적인 생필품의 공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기본적인 생필품의 필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아주 간결하게 표현했듯이, “부정의는 동등하게 나누어져있지 않다.”²¹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이 기본 생필품과 인권을 가장 부정당하기 쉬운 이들이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의식을 가지고 동행한다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2016년 판 연합감리교회 사회적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주거, 교육, 의사소통, 직업, 의료혜택, 법률구조, 신체적 보호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책임을 표현하였다.²²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데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인권

개념은 그래서 사회적 및 경제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기본 생필품과 인권 존중은 나누어 질 수 없다. 2016년 사회 원칙 전반에 걸쳐서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돕고 부자들에게 도전하라”고 주문한다. 사회 원칙이 지적하는 것은 생필품의 결여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가난은 종종 제도적인 원인에서 초래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그들의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²³ 그러므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은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음식, 의복, 주거, 교육, 의료혜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할 책임을 같이 진다.²⁴

근본적인 점에서 감리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교때문에 생겨난 교단이다.²⁵ 감리교 신학자인 테드 제닝스(Ted Jennings)에 의하면, 웨슬리(Wesley)는 감리교회 운동의 모든 활동을 이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²⁶ 웨슬리의 마음에는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구원 혹은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다.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여라. 그리고 할 수 있는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는 할 수 있는대로 많이 주어라.”²⁷ 넉넉하게 주는 것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죄를 짓지 않는 길이다.²⁸ 할 수 있는대로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영적 타락의 지름길로 생각했다. 웨슬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주라고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쳤다. 나는 웨슬리가 깊은 차원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깨어 있는 현재가 부정의의 유형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많은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억압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분열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품은 이들과 함께 같은 지역사회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면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가난—생존에 필요한 기본 필수품들이 없는 상태—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현주소를 시험하는 제도적 현실이다.

기본적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도덕적 증언에 필수적이다. 1995년에, 총감독회의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가난한 이들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서”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어린이와 가난에 대한 촉구는 총감독회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발의안이다.²⁹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사역”에 개입하는 것은 연합 감리교회의 교단 재정 지원과 사역 우선순위를 지도하는 “네 가지 초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³⁰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가난한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증언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은 우리들에게 공감을 실천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들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왜 거룩한 회의의 원칙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는 지 하는 이유이다.³¹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공감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경험하는 것에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에게 응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웃 사랑의 습관이다. 사랑은 아무 것도 모르고도 돕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회개)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다. 의인은총은 우리에게 더 분명히 보게 만들고 더 사랑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특히 육체적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고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일부로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해야 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현재 속에서 증언하는 일에는 주의와 의도가 필요하다. 깨어있는 현재는 다른 사람을 단지 보고 듣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른 무엇이 개입되어있는가?
2. 당신은 깨어있는 현재와 사랑의 계명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고 있는가? 설명해 보라.
3. 왜 당신의 이웃에게 당신의 대답이나 물건이나 도움을 서둘러 주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4. 당신은 왜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목소리를 낼 거라고 전제하는가? 이런 구원 활동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무엇인가?

4. 디아코니아(Diakonia)

나의 어머니는 감리교회에서 자라셨다. 그녀가 14살 되었을 때, 그녀의 걸스카우트 모임은 병원을 방문해서 의료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재활 치료사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에게 일상 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을 관찰하였다. 바로 그 때, 그녀는 자신의 평생 소명을 분별하였고 그 소명에 응답해서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많은 이들을 섬기게 되었다.

재활 치료사로서의 그녀의 직업은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환자들과의 매일의 활동과 옹호 활동을 통해서 증언한다. 어린이들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그녀에게 조지아 주 수도에서 정치적인 로비를 하게 만들었고, 자기 직업의 자격증 제도와 입법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게 하였다. 그녀는 주정부와 전국 차원에서 많은 재활 치료사 단체장을 지냈고 동료들에게 널리 존경을 받아서 주정부 차원에서 당신을 기념하는 장학금까지 생겼다. 다음은 동료들이 그녀를 평가하는 말이다.

어떤 역할을 맡든지, 린다 스티븐스(Linda Stephens)는 겸손히 지도력을 맡아서 뒤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일을 하는데, 재활 치료[사]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한다.³²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데 대한 그녀의 헌신은 그녀의 평생의 일을 정해 주었다. 그녀가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교회 공동체는 지원에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도덕적 증언은 분명하였다. 여러가지 직업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을 살아낸 다른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처럼 나의 어머니는 결코 자기 일을 위해 교회에서 공식적인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증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녀는 자기의 평생의 일을 통해 디아코니아(diakonia)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디아코니아(Diakonia)는 미국교회에 여러 형태로 들어왔다: 평신도 사역, 안수사역, 그리고 임직사역. 디아코니아 세계 협의회(DIAKONIA World Federation)에 의하면, 디아코니아는 “모든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 부름받

은 기독교적 봉사이며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의 일부”이다.³³ 디아코니아는 그러나 단순한 봉사는 아니다. 디아코니아는 전달자, 대변인, 대표자, 혹은 봉사자의 역할을 일컫는다—“위임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다.³⁴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신으로 섬긴다. 좋은 예는 평신도 디아코니아인 <스티븐 사역>(Stephen Ministry)을 들 수 있다. 독자들 중에 이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1975년 시작된 이래로 천 삼백여 개 교회와 다른 단체들에서 시행중이다.³⁵ 이 프로그램은 사도행전 6장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 선출된 남자의 이름을 따서 시작되었다. 스티븐은 또한 첫 기독교 순교자이다. 세인트 루이스 <스티븐 사역>이 제공하는 지도력과 자원을 사용해서 6십만 명 이상의 평신도들이 돌봄 사역 자원봉사자로 훈련받아왔다. 나도 그 중의 하나다. 그 창시자이자 총무인 켄네스 호크(Kenneth Haug)에 의하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 (에베소서 4:12)이다. <스티븐 사역자>는 훈련 받은 성도로서 가족을 잃거나, 슬픔을 겪거나, 다른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대일 사역이 희망과 치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스티븐 사역자>의 주된 역할은 깨어있는 현재를 제공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현재 고통에 증인이 되어 주는 일이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디컨(deacon)은 디아코니아의 안수직이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디컨들은 하나님께서 평생 섬김의 직으로 부르신 이들이며 교회가 인정하고 감독이 안수한 사람들이다.”³⁶ 안수받은 목사들과는 다른 점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면, 디컨은 담임목사가 아니다. 디컨은 안수 받아서 “말씀과 봉사와 긍휼과 정의의 사역을 평생에 걸쳐서 지역사회와 교회 안에서 하면서 이 둘을 연결하는 사역을 한다.”³⁷ 다른 말로 하면, 디컨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디컨은 여러 다른 역할들로 섬긴다: 간호사, 소셜 워커, 변호사, 카운슬러, 교사 등등 많은 다른 직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글을 쓰는 특별 사역에 부름받은 디컨이다.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디아코니아도 있다. 증언의 과정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디코네스와 홈미셔너들은 디아코니아를 위해 성별된 평신도들이다. 디컨들과 함께, 그들도 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사역직—디아코니아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³⁸ 감독이 임직하는 디코네스와 홈미셔너들은 특정 직종을 통한 섬김에 평생을 바친다.

디코네스는 평신도 여성이며, 홈미셔너는 역시 평신도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의 지도하에 평생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에 자신들 바친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다.³⁹

감독이 임직하고 파송해서 섬기지만, 그들은 디코네스와 홈미셔너 사무실을 관장하고 직원들 두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를 통해 연합 감리교회와 지속적인 관련을 유지한다.⁴⁰ 디코네스와 홈미셔너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상을 향한 봉사의 직을 통해서”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선교의 완전한 모습을 알리는 일”에 헌신한다:

- a) 고통을 줄이는 일;
- b) 부정의의 원인을 뿌리뽑고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빼앗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

- c) 온전한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일; 그리고
- d) 보편 교회를 통해 지구촌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⁴¹

이러한 디아코니아를 규정하는 특징들은 증언의 중요한 면들을 보여준다. 증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식들을 찾고 특히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그들의 필요에 깨어 있는 동참을 하게 된다.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겠지만, 증언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의 고통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과거를 재평가하게 한다. 기억과 회개를 통해 우리는 부정의의 원인을 뿌리뽑게 된다. 마지막 모임에서는 우리는 또한 증언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지구촌 공동체에 향하신 뜻을 꿈꾸는 가우데 연대를 통해 인간의 잠재성을 온전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신디 안드레이드 존슨(Cindy Andrade Johnson)은 자신의 디아코니아인 매일 난민들과의 사역을 통해서 증언하는 모범을 보여준다.⁴² 존슨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멕시코 마타모로스(Matamoros, Mexico) 국경 건너편인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Brownsville, Texas)에서 자랐다. 그녀는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살면서 일하고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들을 섬겨왔다. 나는 무엇이 그녀에게 그 사역을 하게 했느냐고 물었다. “교사로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변두리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나는 안심하고 말해도 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자기가 브라운스 빌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서류미비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 양쪽에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깨어있는 현재는 자신에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곤경에 대한 공감을 가지게 하였다.

그녀가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랑은 그녀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도록 힘을 주었다. 매 주, 그녀는 국경을 건너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방문하였다.

나는 멕시코로 가서 사람들에게 음식과 약품을 준다. 우리는 [국경] 다리 밑의 멕시코 지역 텐트에 사는 약 5백여명을 만난다. 나는 지난 번에는 두명의 영양실조된 아이들이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갔다. 우리에게는 많은 수용소가 있고, 아이들을 위한 많은 구치소가 있다.

존슨은 이민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많은 기관들과 함께 일한다. 그 중에는 <굿 네이버 세틀먼트 하우스> (Good Neighbor Settlement House)와 <라 포사다 프로비덴시아>(La Posada Providencia)가 있다. 그녀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록 [국경에서의] 상황이 나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명령을 받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한다” (마태복음 25) 라고 말한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이 동기가 되어 당신과 다른 이들은 이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섬기는가?”하고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는 그녀는 이렇게 전해져 온 지혜를 나누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을 결코 들여다 보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친절해라.” 존슨에게는, 그녀의 친절이 공감과 이해와 옹호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자비의 사역에 개입하

게 되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정당하지 못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해 화법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그녀는 단지 사랑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정의와 연대를 통해서도 증언한다 (이 책의 다음 두 모임의 주제를 미리 기대하게 만든다).

존슨이 난민들을 위해 옹호하는 방식 중의 한 가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도록 돕는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면서 짐바브웨에서 도망친 여자의 이야기를 하였다.⁴³ 샬롬(그녀의 실명은 아님)은 정치적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나라에서 성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었다. 계속되는 공격에 노출되어 그녀는 자기 나라에서 탈출하여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의 수용소에까지 오게 되었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를 폭행한 사람이 임신을 시킨 것을 알게 되었다. 직원들은 유산을 권하였다. 존슨은 샬롬을 텍사스 주의 샌베니토에 있는 <라 포사다>에서 만났다—그녀를 받아준 유일한 난민 수용소였다.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다. 존슨은 이렇게 썼다.

그녀는 출산이 임박하자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 병원에 갔다. 그녀는 출산하는 동안 나에게 방으로 들어와 있으라고 했다. 나는 엠마누엘의 출생을 보았다. 그녀는 지금 한 살이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 아이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샬롬과 엠마누엘은 지금도 난민 수용소에 살고 있다. 이제, 샬롬과 신디는 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정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 신디와 심리학자가 돕고, 샬롬이 책임자이다.

우리는 본인들의 체험 이야기를 내놓아 사람들이 읽게 하려고 한다. [난민들] 자기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기록하지만 이름을 밝히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내놓는다—단어 하나 하나를 직역해서 말이다. “그들의 고국에서는 무엇이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직접 한 이야기들은 웹사이트에 출판될 것이다. 나중에, 엄선된 이야기들은 책으로 출판될 것이다. 힘을 얻은 난민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글로 적어 나눈다. 신디와 샬롬은 우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경험한 실제 벌어진 일들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한다.⁴⁴

존슨은 또한 사람들을 미국에서 데리고 국경을 건너가서 매주 그들에게 직접 현실을 체험하도록 한다. 그녀는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묘사하고, 인도주의적인 위기로 치닫는 기본권 침해들을 묘사한다. 난민들은 제대로 된 샤워 시설도 없어서 리오 그란데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곳은 위험하고 오염된 강이다. “멕시코와 경계한 미국 내의 가장 가난한 네 개의 카운티에서 변두리의 사람들과 일하면서, 나는 옹호의 필요성과 내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그녀는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선서하고 적은 증언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삶의 상황을 문서로 남기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설들에서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도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빼앗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가? 돈을 보내고, 생각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묻자, 존슨은 한 마디로 대답했다: “옹호!”

그녀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조직적인 변화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 우리에게 경보가 울릴 때마다 . . . 우리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부정의 앞에서 침묵하면, 우리는 문제의 일부가 된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지속적인 인종 정의와 인권 및 인도적인 권리에 대한 헌신”의 한 노력으로 가족 수용소 철폐 운동을 지지한다.⁴⁵ 이 운동은 많은 정보와 교육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존슨이 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2012년도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영적 성장 교재인 이민과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⁴⁶ 총회 교회와 사회국도 역시 이민에 관한 자료들과 경고들을 제공하고 있다.⁴⁷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하원에 채택하기를 촉구하고 보낸 편지 초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레위기 19:33-34의 말들이 난민을 환영하라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제시한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연합 감리교인으로서, 나의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다. “거주 이전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연합감리교회 결의문 #6025항 참조, “세계화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미친 영향”). 연합 감리교회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이민의 문제를 부족이나 국가의 고나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사랑과 환대의 믿음 공동체에서 비롯된 관점으로 볼 것”을 상기시킨다(결의문 #6028항, “전지구적 이주와 정의 추구” 참조).

난민을 환대하는 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까의 문제이다.⁴⁸ 이러한 노력들은 독립된 것도, 예외적인 것도, 단기적인 것도 아니다. 총회 교회와 사회국과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다른 연합감리교회 안의 단체들은 성경의 분명한 소명과 총회 결의문에서 국경에 있는 우리 이웃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 대한 증언을 하라는 수십년에 걸친 옹호를 하라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대하도록 이끈다. 존슨은 아주 분명하게 이런 어린이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하는 노력이 “우리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여긴다. 그녀의 난민 어린이들과의 관계는 “지구촌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의 일부이며, 그것은 연합감리교회 장정 2016 [¶ 1913.1(d)]에 나오는 <디코네스>의 할 일 중의 하나라고 인용하고 있다.⁴⁹ 난민촌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언급하면서 존슨은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 지구촌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를 따로 떼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지구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가?

이민자, 나그네, 외국인—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들이다.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교회를 이끌 때, 존슨은 모든 인류의 번영을 위해 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당신은 어떻게 디아코니아에 참여하는가? 당신은 이런 식의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2. 당신은 당신의 동네에 정착한 난민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당신이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그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고려해 보라. 당신 지역사회의 난민들을 알고 싶다면, 지역 학교나 여성 심터나 다른 봉사 단체에 자원봉사 하면서 깨어있는 현재를 실천해 보라.
3. 왜 현재를 증언하는 일이 존슨에게 부정의에 대한 더 날카로운 인식을 하게 하고 난민들을 대변할 필요성을 갖게 하였는가? 사랑과 정의와 연대에는 불가피한 연결성이 있는가?



5. 사랑에서 정의로

깨어있는 현재는 심오한 사랑의 행동이다. 이런 형태의 사랑 (아가페)은 너무 강력해서 현재로부터 분리되어 나오고,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형성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현재한다는 것은, 특히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온전히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정의를 인식하게 한다. 증언은 자연스럽게 한 시점에서 다음 시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깨어있는 현재, 즉 두 번째 증언의 시점은, 우리에게 역사적 조명, 세 번째 시점의 필요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의미있는 참여, 네 번째 시점으로 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한다. 현재는 인식을 낳고, 인식은 옹호를 낳는다. 증언의 이 시점들을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이러한 증언의 온전한 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1971년에 당시에 자신이 목격한 잔학행위에 대해 침묵하기를 거부했던, 나이지리아에 있는 적십자에서 일하던 프랑스 의사가 만들었다.⁵⁰ 국경없는 의사회에 의하면, 적십자사의 “침묵외교” 정책은 의사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공개적 성명서도 자기들의 인도주의적인 일에 방해가 된다는 고려 때문이었다. 그와 반대로 국경없는 의사회는 인도주의적인 노력은 증언을 요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의학적 진료는 정의를 위한 목소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불편 부당한 중립을 지키는 것과 침묵이 동의어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 국경없는 의사회 팀들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극도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거나 생명을 살리려는 의료행위가 방해받을 때 공개적으

로 발언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결정은 고통을 줄이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사명에 따른 것이다.⁵¹

이러한 증언에 대한 헌신은 의료 붕대와 게시판, 환자 대기소와 증언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각적인 신체적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편적인 것임을 드러내 준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인도주의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의사들이 자기들이 목도한 고통을 증언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사랑은 진료소에서 멈추지 않는다.

증언은 사랑의 사역을 자비의 행위보다 한걸음 더 나가게 확대한다. 사랑은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사랑은 우리 이웃의 곤경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의도하신 완전한 변영에 따라 측정하고 그 차이에 주목한다. 사랑은 부활의 빛에서 고통의 현실을 보고 어두움에 대해서 증언한다.⁵² 증언하는 것은 우리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안되요하고 말하는 것이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오나전한 인간으로 변영하도록 그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들이 “고통을 줄이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인간 존재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정받고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동행하는 일,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과 동행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은 의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감히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빛에 비추어서 증언한다. 증언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전인적인 노력이며 다른 사람들을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온 것”(요한복음 10:10)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네 번째 모임에서 온전한 인간의 변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하게 될 것이다.) 세례 받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죄악을 거부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자유를 받아들이고 악과 부정의와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 억압은 거부함으로써 내 이웃에게 증언할 책임을 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34쪽). 나는 침묵할 수 없다. 아무리 나의 반응이 자비로운 것이라고 해도, 나는 자비에서 멈출 수 없다. 나는 말해야 한다.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며, 그때, 나는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요한일서 3:17). 사랑은 즉각적이며, 현재의 필요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뚫고 들어가는 것이라서 제도적 억압에 맞서 정의를 요구한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에게 고나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에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앵커리지 조찬 모임에서의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제인 더튼(Jane Dutton)은 이런 묵상을 나누었다.

나는 몇 주 아팠고 내 정규 월요일에 빠졌다. 그 다음 주에 몇 사람 이상이 나에게 어떠냐고 물었고 내가 빠져서 섭섭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쪽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하나님은 경계선 안에서 일하셨고 경계선 위에서 일하셨다.⁵³

더튼(Dutton)의 깨어있는 현재는 조(Joe)와 다른 그녀의 공동체의 변두리에 있는 이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했고 그들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했다. 신디 존슨(Cindy Johnson)도 비슷한 반응을 나누었다: “나는 이러한 이들[난민들이] 하는 일 속에서 일 하나님을 본다.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을 준다.”⁵⁴ 그녀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 청취자가 질문하였다. “당신이 부당 대우를 받은 이민자를 만날 때, 그들과 나누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녀는 우리가 그 질문을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나와 신앙을 나눈다. 우리는 둘 다 우리 믿음을 나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본다. 그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 나는 단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뿐이다.”⁵⁵ 사실, 존슨과 더튼 둘 다 고대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신다. 신비이며, 이해를 뛰어넘지만, 실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비이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한다.

무작정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적인 명령이다. 낭비하는 것같은, 넉넉한, 대책 없는 사랑 -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모든 사람을 섬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다, 신적인 존재의 귀한 순간이다. 그러나, 모든 이웃과 대책없이 나누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사랑은 나를 감동없는 무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옹호로 이끈다. 사랑은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에 근거한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나는 그들의 복지를 내 우선 순위로 삼는다.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랑은 나에게 그들을 대변해서 모든 형태의 부정에 반대하게 한다. 고통에 직면해서 공감은 나에게 과거의 부정을 지적하게 하고 더 공정한 관계의 방식을 꿈꾸게 한다. 사랑은 자비를 넘어 증언의 다음 시점인 정의 실현으로 움직여 가게 한다.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현재 안에서 증언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모든 면에서 완전히 구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증언은 내가 그들의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의 야망이나 위선”을 벗어 던지고, 나는 겸손으로 채워지기를 구한다 (빌립보서 2:3). 겸손은 단순히 내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정도로 내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 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이웃의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예를 따라 그와 함께 하기를 힘쓰는 일이다. 증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신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깨어있는 현재의 삼위일체의 춤이다. 나를 통해,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추는 춤이다.

증언을 하는 것은 단지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그의 온전함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감은 거룩함의 흔적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도 내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 당신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영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빌립보서 2:13)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엄청나게 선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굉장히 의로울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허용하면 된다.⁵⁶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 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보내주소서.”⁵⁷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활동들:

1. 모임에서 <디코네스>, <홈미셔너>, 혹은 <디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그들을 교회나 주일학교나 서클 모임에 강사로 초청하라. 그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지를 물어보라.
2. <신앙 토크>(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라는 방송을 듣고 어떻게 그 대담에 나와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
3. 교회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권리를 위협당한 개인들이나 그룹들을 위한 옹호 차원에서 응답해 보라. 장정이나 연합감리교회 결의문집 2016년에 나오는 자료나 연합 감리교회 총회 교회와 사회국 또는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웹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를 사용하라.

요약

증언의 두번째 시점은 깨어있는 현재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우리를 조율하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한다. 공감은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것을 드러낸다. 공감의 도덕적 행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디아코니아라는 개념은 증언이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바로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그 다음 시점으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준다. 사랑은 우리에게 정의의 감각을 일깨워준다.

후주

1. 니케이 신조,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 연합 감리교회 예배서 (내쉬빌: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 1989), 880쪽.
2. 에이치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 책임있는 자아: 기독교 도덕 철학 문집 (뉴욕: Harper 샌프란시스코, 1963), 125쪽.
3. 앵커리지 조찬 모임은 매일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펜실바니아 랭카스터에 있는 제일 연합 감리교회에서 운영한다.
4. 제인 더튼(Jane Dutton), “변두리 동방박사들,” 샌티 채플, 랭카스터 신학교, 2018년 1월 3일.
5. 오 헨리(O. Henry), “동방박사의 선물,” 단편 모음집, 폴 레이 호로비츠(Paul J. Horowitz) 편집 (뉴욕: 도어셋 프레스, 1995), 763쪽.

6. 데이비드 더블유 스캣(David W. Scott), 경계를 넘어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내쉬빌: 웨슬리스 파운데리 북스, 2019), 76쪽.
7. 샤론 램지(Sharon Ramsay), "증언: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한다," 프레스비테리안 레코드 140권:10호 (2016년 11월): 22쪽.
8. 라헬 나에프(Rahel Naef), "증언: 간호사-개인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관계맺는 방법," 너싱 필로조피 7권:3호 (2006년 7월호): 146-56쪽.
9. 가보르 마테(Gabor Maté), "서문" 말해지지 않은 목소리: 어떻게 몸은 외상을 벗어나서 선함을 회복하는가 피터 에이 레빈 (Peter A. Levine) (버클리, 캘리포니아: 노스 아틀랜틱 북스, 2010), xii쪽.
10.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온정을 가진 경청자 지침" 지역 및 연회 기독교 선교학교에서 2011-2012년 영적 성장 교재인 여정: 용서, 회복적 정의와 화해와 함께 사용하게 함.
11. 더 자세한 정보는 카렌 에이 맥킨토크(Karen A. McClintock), 외상이 아플 때: 치유와 희망의 길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9) 참조.
12. 파멜라 쿠퍼 화이트(Pamela Cooper-White), 다말의 외침: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교회의 응답, 제 2판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2), 195쪽.
13. 앤 보가트(Anne Bogart), "증언," SITI, 2016년 2월 18일, siti.org/content/bearing-witness, 2020년 5월 12일 접속.
14. 가령 웨슬리가 "하나님의 형상," III,1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라.
15. 요한 웨슬리, "완성에 대하여," II,11, wesley.nnu.edu/john-wesley/the-sermons-of-john-wesley-1872-edition/sermon-76-on-perfec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16. 하나님의 형상은 잠재적이다. 하나님의 모습은 형상이 실현된 것이다. 랜디 엘 매독스(Randy L. Maddox) 책임적 은총: 요한 웨슬리의 실천 신학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4년), 69쪽.
17.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H.
18.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감리교회 도덕: 공개적인 교회의 증언에 나타난 사회 원칙들, 학습 지침서는 루스 에이 도더티(Ruth A. Daugherty) 지음, darrylwstephens.com/?page_id=93 (녹스빌: 테네시 대학 출판부, 2016), 80쪽.
19. 이 계명의 현대적 적용은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와 마이클 아이 알레맨(Michael I. Alleman), 앤드류 브라운 (Andrea Brown), 루스 에이 도더티(Ruth A. Daugherty) 그리고 메리 메리맨(Mary Merriman)이 지은, 출애굽에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사역의 여정 (유진, 오레곤: 캐스케이드, 2018), xiv쪽을 보라.
20. "취약한 계층 4 그룹"에 대한 토론은 니콜라스 볼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정의: 옳고 그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2008), 75쪽 참조.
21. 볼터스토프(Wolterstorff), 정의, 79쪽.
22.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
23.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3.E
24.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3.E
25. 테드 제닝스(Ted Jennings)는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는 감리교회 운동이 존재하게 된 이유이고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설득력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테오도르 더블유 제닝스(Theodore W. Jennings, Jr.),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요한 웨슬리의 복음적 경제학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0), 25쪽 외 여러 곳.
26. 제닝스(Jennings),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63쪽.
27. 요한 웨슬리, "돈의 사용" III,1.
28. 요한 웨슬리, "부의 위험"II,6, 관련성구 마태복음 6:19.
29.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지침서 Study (내쉬빌: 콕스베리, 2003). 또한 파멜라 디 쿠투어(Pamela D. Couture), "어린이와 가난에 대한 감독회의 사역계획: 그 역사와 미래," 쿼털리 리뷰 21권:3호 (2001 가을호): 279-91쪽을 보라.

30. 결의문 8002, “선교와 사역에 있어서 일치를 위한 헌신,”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673–74쪽.
31. 어퍼 뉴욕 커뮤니케이션스, “거룩한 회의 원칙들,” 2016년 7월 8일, unyumc.org/news/article/the-principles-of-holy-conferencing, 2020년 5월 12일 접속.
32. 조지아 재할치로 협회, “포상과 인정: 린다 스티븐스(Linda Stephens) 장학금,” gaota.com/recognitions-awards, 2020년 5월 12일 접속.
33. 디아코니아 세계 연맹 실행 위원회, “디아코니아 사역 회고: 우리의 다양한 디아코니아 소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는가,” 1998, diakonia-world.org/files/theologiepapier98english.pdf, 2020년 5월 12일 접속.
34. 존 콜린스(John Collins), “안수 사역과 그 외의 사역들: 변화를 만들어 냄,” *에클레시올로지* 3권, 1 호(2006): 11–32쪽.
35. 스티븐 사역 세인트 루이스, “스티븐 사역의 역사,” stephenministries.org/aboutus/default.cfm/721.
36.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328.
37.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329.
38. 디아코니아 세계 연맹 실행 위원회에 의하면, 디아코니아 직제는 “디아코니아 ‘공공’ 사역으로 불림받고, 인정받고, 준비되고, 성별되거나, 임직/안수된 이들로써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때로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봉사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사역한다”고 되어 있다. 디아코니아 세계 연맹 실행 위원회, “디아코니아 사역 회고.”
39.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913.2.
40.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디코네스와 홈 미셔널 사역,” unitedmethodistwomen.org/dhm, 2020년 5월 12일 접속.
41.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913.1.
42. 다음 이야기는 두 자료에서 발췌함: 신디 존슨(Cindy Johnson)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11월 14일; 신디 존슨 방송 인터뷰 신앙 토크,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 2020년 5월 12일 접속.
43. 샬롬의 이야기는 두 자료에서 발췌함: 신디 존슨(Cindy Johnson)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11월 14일; 야스민 아메르(Yasmin Amer)와 안드레아 아수아헤(Andrea Asuaje), “호흡 센터가 그녀의 치료를 돕다. 이제 그녀는 다른 난민들이 자신들의 외상을 극복하는 일을 돕고 있다,” *WBUR*, 2019년 10월 22일, wbur.org/kindworld/2019/10/22/place-of-respite, 2020년 5월 12일 접속.
44. 라이프라인 시리즈 이야기들은 야스민 아메르(Yasmin Amer)와 안드레아 아수아헤(Andrea Asuaje), “남쪽 국경에는 많은 비극이 일어난다. 거기에는 또한 깊은 공황이 있다,” *WBUR*, 2019년 10월 25일 참조, wbur.org/kindworld/2019/10/25/lifelines-series, 2020년 5월 12일 접속.
45.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세계 선교와 이민권,” unitedmethodistwomen.org/what-we-do/service-and-advocacy/mission-focus-issues/global-migr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46. 조앤 엠 마루스키(Joan M. Maruskin), 이민과 성경: 진보적 현대 지침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12);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나그네 환영2.0: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자료 중심,” unitedmethodistwomen.org/immigr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47. 총회 교회와 사회국, “미국으로의 이민,” umcjustice.org/what-we-care-about/civil-and-human-rights/immigration-to-the-united-states.
48. 총회 교회와 사회국, “미국 의회에 요청하라: 난민을 보호하라,” umcjustice.org/what-you-can-do/advocacy/take-action/stand-with-immigrants-and-refugees, 2020년 5월 12일 접속.
49.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50. 국경없는 의사회 (MSF), “증언하기,” doctorswithoutborders.org/who-we-are/principles/bearing-witness.

51. 앞의 글.
52. 셸리 램보(Shelly Rambo), 영성과 외상: 남는자의 신학 (녹스빌: 웨스트민스터 존 녹스, 2010), 41쪽.
53. 제인 더튼(Jane Dutton), “변두리의 동방박사들.”
54. 신디 존슨(Cindy Johnson),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11월 14일.
55. 페이스 토크 인터뷰, 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 2022년 5월 12일 접속.
56. 요한 웨슬리, “우리의 의가 되신 주님,” II.13.
57. 켄 메데마(Ken Medema),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 1973 홉 퍼블리싱 컴퍼니, [hopepublishing.com/ find-hymns-hw/hw2988.aspx](http://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모임 III:

역사적 조명

고통을 증언하는 일은 당황스럽다. 고통과 외로움과 상실의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생필품들, 즉 음식, 의료시설, 주거지, 신체적 안전 등이 없는 이들과 만나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다. 그들의 정신적 외상을 겪는 나의 이웃과 동행하는 것은 내게도 정신적 공감 외상을 겪게 하거나 금홀 피로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깨어있는 현재는 위험한 일이다. 나아가, 사랑은 우리 안에 의로운 불만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인과 설명을 찾게 하고, 유형과 관련성을 보게 한다.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한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을 실감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다. 나는 14세기 영국의 신비적 영성가인 노르위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처럼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일의 방식이 잘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다. 고통을 증언하면서, 나는 내 이웃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음을 본다. 세상은 폭력과 상처와 부정의와 억압으로 가득차 있다. 내 자신의 삶은 정신적 외상과 생존과 타협으로 곰보처럼 자국이 나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인식이 나에게 우주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의 부정의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회개하는 순간에 나는 시편 130편의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다:

주님, 내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죄를 지켜 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 시편은 죄악, 즉 불공평, 부정, 죄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은 드릴 수 없는 기도이다. 누가 삶의 깊은 구렁을 인식하거나 만나지 않고서 “깊은 구렁 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가? 누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고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현재를 간구할 수 있는가? 누가 자신의 죄와 자신이 이 세상의 고통과 공모한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 용서를 갈망할 것인가? 누가 자신의 회개의 필요성을 보지 않고서 용서를 구할 것인가? 누가 사회적 죄의 실체와 사회적 구원의 가능성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을 기대할 것인가? 누가 모든 것이 참지 않다는 것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바랄 것인가?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진실과 직면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생각해야 한다.

1.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의 은총

증언은 우리에게 시편 130편을 기도하게 한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 이웃과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비난 받아야 한다. 깨어있는 현재에서 일깨워진 공감은 우리들을 증언의 그 다음 시점으로 인도한다. 그것은 역사적 조명이다. 우리가 이웃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너머에 있는 실체들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게 된다. 그 고통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식으로 내가 공모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는가? 이러한 현재의 아픔에 비추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평가해 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제도적인 억압을 인식하고 부정의를 지적할 수 있게 해 준다. 한 사람의 곤경은 단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체 집단의 곤경은 집단적인 회개의 필요를 요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증언의 세째 시점은 우리가 역사적 조명을 할 때 우리의 기억을 동원한다. 역사적 조명은 우리에게 억압의 유형을 인식하게 한다. 예를 들면,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정한 생명이 자기들의 피부 색 때문에 역사적으로 차별과 부정의와 감금과 태형과 노예를 겪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

다. 법학자 미셸 알렉산더(Michelle Alexander)는 새로운 짐 크로법: 인종차별 시대의 대량 수감(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³ 그러므로, 우리들이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유색인 남녀를 취급하는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정상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웃의 삶 속에서 부정의의 유형을 인식하고 나면 우리의 과거를 다시 평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한다. 기억은 우리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죄악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인 활동이다. 죄를 깨어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죄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관계에서의 치유를 필요로 한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정의를 지적하게 되고 미래의 보상과 배상의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깨어진 관계들을 고치는 일에 합류한다. 이것이 증언의 세째 시점이다.

역사적 조명은, 어떤 면에서는, 증언의 가장 힘든 시점이다. 백인 감리교인으로서, 나는 현재가 나의 백인 조상들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에 의해서 계속 심화되어온 인종적 부정의의 유형의 일부임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⁴ 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증언하는 일은 나에게 과거를 검토하도록 만들었다. 역사적 조명은 큰 소리로 외치는 옹호를 하기 전에 내면을 들여다보는 정점으로서, 사랑과 정의 사이의 일시 멈춤이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시적으로 이런 회개의 순간을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의 은총”이라고 표현했다.

진보적 기독교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 . . 은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이들의 무행동이다. 그것은 뒤로 물러선 인내의 무행동이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희망으로 가득찬 인내의 무행동이다.⁵

니버(Niebuhr)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는 동안 죄악 속에 있는 세상과 자비의 사역의 필요성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한다. 증언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행동-하지 않음 속에 있음”을 준비시켜 준다. 부정의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깊은 함수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증언의 과정을 완성시키는 선한 일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회개의 힘든 일을 하지 않고는 화해로 서둘러 달려 갈 수 없다. 이러한 기억의 존재가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모임에서는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특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우리 주변 세상에서 도덕적 도전에 응답해 왔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생학, 발견의 교리, 기후 변화, 인종차별, 그리고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해왔는가? 우리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더 신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실패로 인해 고통을 당한 이들을 위해 어떻게 부정의를 외치고 옹호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언을 하는 것은 회개로 이끄는 기억활동을 요구한다. 용서를 구하면서 치유의 관계를 향해 일할 때 우리는 부정의의 피해자들의 이야기 내용들을 도덕적으로 증언해 나간다. 오직 우리의 과거와 계산을 마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에 의미있게 참여할 준비가 된다.



기도하면서 할 활동들:

1. 시편 130을 동역자와 함께 혹은 모임에서 기도하라. 다른 이들이 외치는 깊이를 들어보라. 그들이 경험한 부정의를 묵상하면서 앉아 있어라. 그들의 고통의 증인이 되라,
2. 자신의 공동체와 오늘날의 세상이 직면한 모든 감당하기 힘든 도덕적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 기후 위기, 약물 남용과 중독, 제도적 인종차별, 가난 등. 자신의 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드러내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묵상에 전념하라: 분노, 낙담, 두려움, 희망.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라.
3. 자신의 교회에서나 다른 믿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보라. 회개와 용서의 기회에 주목하라. 예배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해결책을 찾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가?

2. 슬픔을 헤쳐 나가기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는 세계 선교부의 환경 유지 정책 선임 고문인데 그녀의 사역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역사적 조명에 들어갈 수 있게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⁶ 세계 선교부를 통한 그녀의 사역의 일부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녀는 외진 곳에서 전기없이 사는 이들이 연합감리교회 구제 위원회에 태양발전판을 설치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신청서를 써준다. 세계적으로 많은 시골 가난한 지역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해결한 자원이 없다. 이주, 영양실조,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태양발전판 설치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들이 기후 이상으로 인한 문제들, 특히 자기들이 원인 제공하지 않은 기후 악화의 영향에 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다.

어떻게 자기들이 에너지를 쓰고 사용한 것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것으로부터 자기들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후 악화에 기여한 사실에 제대로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필립스(Phillips)는 이 점에서는 자신의 묵회에서 아주 의도적이다. 특권을 누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지 걱정하면서, 대리 고통을 겪을 때 그녀는 그들과 함께 슬픔의 과정을 함께 걸어준다.

종종 내가 함께 일하는 모임에서 나는 슬픔과 슬픔의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후 변화 문제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 나는 예전에는 논쟁도 했다. 이제는 나는 슬픔을 겪는 사람을 만날 때 묵회적인 접근을 취한다. “만약 그들이 듣는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세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일어나야 할 변화를 원치 않는다. 아주 분명한 과학적인 자료 앞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인한다. 그리고 분노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모든 일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하나님에게 화를 낸다. “내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내가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면...”이라 생각하며 타협하려고 한다. 그러나, 제도적인 변

화가 이제 필요하다. 우울해 진다.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받아들인다. 모든 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불공평한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세상을 만든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우리는 매일 이런 슬픔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복한다. 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존재의 고통은 언제나 실제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재산이 많은 잘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상에 일어나야 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말이다.

필립(Phillips)의 사역은 분명히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Elisabeth Kübler-Ross)의 슬픔의 다섯 단계의 영향을 받았다: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⁷ 슬픔은 상실과 고통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슬픔은 우리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을 견딜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슬픔의 과정은 처음에는 추상적이고 먼 것 처럼 보이는 현실들을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도록 도우면서, 필립스(Phillips)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수용의 단계에 들어갈 때, 그녀는 그들이 과거의 대가를 치루는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있었다. 그녀는 회개의 산파역을 하면서 그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초기의 도덕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회개는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방법이다.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지난 길에서 돌아서서 더 이상 잘못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우리가 증언한 고통에 비추어서 과거를 재평가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행동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였거나 범죄를 막지 않은 것을 고백하는 일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했습니다, . . . 우리는 필요로 하는 이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합 감리교회 찬송가, 12쪽). 회개는 죄의 고백부터 시작한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서 시작한다. 그 단계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단계들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잘못을 그만두는 것이다. 우리는 상처주고 해를 입히던 옛 습관에서 돌이켜 건강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회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요구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이중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다. 깨어있는 현재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이 실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역사적 조명은 우리들에게 그 고통에 우리도 보태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경청하고 공감으로 반응하며 내가 해를 끼치고 부정의를 초래한 행동을 회개할 필요를 생각하게 한다. 과거 행동에 대한 후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에서 돌아선다. 그리고는 내가 일단 과거와 그 속에서의 나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난 후에는, 나는 어떻게 교회와 내가 그것을 고쳐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고치려는 시도이다.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해악을 치유하고 부정의의 제도를 깨뜨릴 능력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에 힘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공정한) 관

계에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복지로 이끄는 사회 구조를 세워나갈 수 있다. 우리는 화해를 향해 일할 수 있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반영할 수 있다. 요한 웨슬리의 “구원의 길”을 이해하는데 사용한 비유가 우리에게 회개를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의도하신 것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새롭게 발견한 확신에 대한 은총으로 인한 응답이다. 최초의 회개는—웨슬리의 “성경적인 구원의 길”에서 묘사된 의인과 신생으로 이끄는 회개는—믿음의 도약이다. 그것은 “완전한 [흔들림없는] 용서받은 감정...의 확신”이다.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한 첫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두려울 수 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의인 은총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면, 회개의 실천은 덜 두렵다. 그것은 영적인 훈련이 된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다. 나는 그러나 회개의 최초의 불확실성을 거듭해서 경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외상처럼, 최초로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했던 기억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재생된다. 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지만, 의심의 안개구름은 우리의 시야를 흐린다. 회개는 매 번 믿음을 필요로 하며 매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는 성찬식 예식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생활 속에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일부이다.

우리의 깨어있는 현재를 토대로 한 역사적 조명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한다. 이 과정은 부정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이해려고 할 때에는 어려울 수 있다. 필립스(Phillips)는 이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나와 나누었다. 그녀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토론에 참여했다. 거기서 음식이 없는 상황, 에너지 접근이 안되는 상황, 그리고 다른 긴급한 상황 등 조지아 주 아틀란타의 유색인 저소득층 지역사회가 겪는 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취약한 이들은 종종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이 없게 마련이다. 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그런 취약계층이 아니었다. 이 교회에 온 청중들은 대부분 부유한 백인들로서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적합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부분, 그들은 기후 변화의 폐를 느껴본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기후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했을 것이다.

이 행사의 질의 응답 시간에 한 나이드신 백인 남성분이 그녀에게 물었다. “목사님, 저는 우리가 괜찮을지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 분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도록 도전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재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사람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이 방안에 있는 이들은 기후 변화의 가장 나쁜 피해로부터 보호막이 쳐진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냐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괴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유한 교회 교인들인지 지구촌 인류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원한다면 지금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더 기다린다면,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필립스(Phillips)가 지적인 “괴리”는 기후 변화의 피해자들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고쳐질 수 있다. 부정의는 공평하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와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조명을 추구해야 한다. 앞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자. 그녀는 자신의 증언을 다시 확인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큰 공동체의 일부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도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괜찮지 않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일꾼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녀의 사역의 큰 도전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부정했던 방식들을 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과 화해하시기 위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기 전에 우리 이웃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다 괜찮지는 않다고 보는 것은 회개의 준비이다. 이 준비는 슬픔의 여러 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기후 변화같은 제도적 부정의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용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에게 절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으로 무기력하게 마비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쉽게 세상을 구하는 일은 너무 벅찬 것이라고 압도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정의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미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

우리는 용서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식 물 안에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고 우리들의 수억개의 작은 시냇물들은 함께 합쳐져서 과거의 잘못들을 씻어 내고 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만드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세례서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옹호자가 되라고 불림받았다. 그것은 필립스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세상의 문제들에 공모하고 있다는 인식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세례 서약을 기억하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할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들여서 악과 부정의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든 억압에 저항하겠습니까?”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당신의 세례 서약은 어떻게 당신이 사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부정의와 억압에 저항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가? 성찬식 예문이 어떻게 당신에게 힘을 주고 이 일을 하도록 유지시켜 주는가?
2.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것이 어떻게 당신의 도덕적 증언을 강화시켜 주는가? 당신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인종차별이나 가난이나 기후 변화 같은 아주 다루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는가?
3. 당신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슬픔의 단계들을 통한 개인적인 여정으로 생각해 보라. 당신은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어에 분노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어에 우울해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문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과 정의를 위해 일할 힘이 있는 것을 측정하는가?

3. 정의의 행동으로서의 회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한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13).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라고 불림받았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묘사하는 시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다. 정의는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들이다. 정의는 사자가 양과 함께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이다. 정의는 하나님이—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기억의 사역이 제자도를 활성화하고, 어떻게 회개가 정의의 행동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어서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두 가지 분리된 것처럼, 정의를 예배로부터 분리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은 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미가 6:6). 희생제물이나 번제물이 아니라고 미가는 말한다. 단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그러나 이것은 아모스의 유일한 증언은 아니다. 그 선지자도 마치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취향이 좋은 농장 농물과 크고 음악이 들어간 찬양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것처럼 정의 대신 화려한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아모스 5:21-23). 하나님의 불만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 증언하는 일에 실패해서가 아닌가?

예배는 정의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성전 밖에서 필요한 희생을 대신해서도 안된다.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와 공의의 강물에서 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2:26). 세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성례전과 예식과 일상 생활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중의 사랑의 계명은 사실상 단일 한 계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회개의 예식은 우리들의 도덕적 증언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연결시킨다. 성찬식의 예식은 우리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형성해 준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6쪽). “서로 평화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서로 화해와 사랑의 표시들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창조부터 구속을 통해 구원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동과 우리 자신의—개인들로서든, 민족으로서든, 교회로서든—실패 사이의 대조는 우리가 증언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조명을 제시해 준

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산 제물로”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의 문제이다. 이러한 진리들을 증언하면서 우리들은 거듭해서 다시 교회가 된다. 성찬식의 자양분을 공급 받아서 우리는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준비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 정의를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교회로서 증언하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2008년에 총회는 지난 감리교회의 우생학 지지를 회개했다.⁹ 많은 주요 백인 개신교단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에 감리교회는 “더 나은 인종”을 옹호하면서 강제 불임법과 인종간 결혼 금지법을 지지했다. 2008년 결의안은 이렇게 경고한다. “지난 세기의 우생학 운동의 드러난 인종차별은 더 이상 오늘날의 시민 사회가 강단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우생학을 향한 추진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 아직도 정의의 사역은 시행되어야 한다. 그 결의문은 인간의 배아 선택과 인간의 복제와 관련된 새로운 생명 공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인종차별과 다른 우월주의적인 마음 가짐은 여전히 개인과 정책 차원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치유의 필요가 있다. 부정의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한 후에, 총회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우생학 정책에 대한 감리교회의 지지”를 애통해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총회가 교회로서의 실패를 회개한 첫 번째 경우는 아니다.

연합감리교회는 2000년도에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의 행동”을 하였다. 바로 그 제목으로 된 공식적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회기간동안 회개의 의식적인 행동을 함께 하였다.¹⁰ 연합 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취급에 초점을 맞춘 이 결의문은 역사적 조명을 하고 지난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하고 후회하면서 고백하였다. 이것은 더 긴 관정의 일부이다: “인종차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치유와 온저남으로 인도하는 마음의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증언은 옛날 편견을 버리고 부정의의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사이의 새로운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일을 요구한다.¹¹ 그것은 권력과 특권의 재분배를 요구한다. 그것은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행동하던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까지도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총회는 인종차별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학습 지침, 온전함을 향한 발걸음: 배움과 회개도 채택하였다.¹² 그 결의안은 교회 전체적으로 학습할 것과 모든 연회가 그 다음 해 연회에서 “회개의 예식적인 행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연합 감리교회는 아직도 그 앞에 놓여있는 인종적인 화해의 긴 여정을 가야 한다. 치유와 화해는 사람들이 역사적 조명을 하고 보상을 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식적인 회개 행위는 그러나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 증언하는 더 큰 과정의 일부이다.

연합감리교회는 또한 자신들이 미원주민들과 다른 원주민들을 잘못 취급했던 역사를 회개하고 있다. 호머 놀리(Homer Noley)의 학문적 연구는 그 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준비를 해주었다. 총회 역사 보존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980년대 놀리(Noley)는 첫 하얀 서리: 미원주민과 연합감리교회라는 역사를 썼다.¹³ 그의 연구는 유럽인들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사람같이 생긴 짐승들”의 인간성을 의심했던 방식과 요한 웨슬리가 미원주민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들”이며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할 때는 “함께 있어주는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다.¹⁴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나는 증언의 첫 두 시점인 알아줌과 함께 있어움을 분명히 다시 인식할 수 있었다.

1988년에, 연합 감리교회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을 준비하면서 미원주민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고려하였다.¹⁵ “발견의 교리”는 15세기 로마 가톨릭 교황의 문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독교 세계 밖에서 발견된 땅과 민족들은 기독교인의 정복 대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황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이 원주민들과 그 땅을 지배할 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곧, 유럽의 개신교들도 그러한 교황의 칙서를 정신적으로 포용했다. 문화적 우월성의 철학이 서구 유럽의 법이 되었다. 유럽의 이민자들은 북 아메리카에 특권 의식과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왔다. 발견의 교리는 미국 연방법에 1823년에 입법화되었다. 백인 감리교인들은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 정치에 참여하였다.

1992년에 과거를 청산하면서, 총회는 교회의 죄를 고백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원주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¹⁶ 그리고는 연합감리교회는 그 실수들을 바로잡는 회개의 과정에 들어갔다. 그 결의안은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감각으로 과거의 사건들을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현대적인 결과에 대해 직면할 책임이 있다.”¹⁷ 다른 말로 하면, 연합감리교회는 자신이 원주민들과 유색인들과 또 “다른 지배의 구조 밑에서 고통당했던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했던 것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을 증언해 오고 있다. 이런 도덕적 증언의 선언은 평등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증언의 첫 시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주이며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창조되었음을 고백한다.”¹⁸ 이것은 사소한 고백이 아니다. 놀리(Noley)의 역사 연구가 상기시켜 주듯이 말이다. 인정은 결국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인식을 하게 하고 변화의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폄하하고 그들에게서 존엄성을 빼앗고 우리 모두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빼앗는 모든 가치체계와 구조를 도전해야 한다.¹⁹

망가진 관계에 기여한 태도들을 도전하는 것은 회개의 한 부분이다. 총회는 원주민들의 땅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보상을 알아보라고 권고했을 때 그 도덕적 증언을 부활과 새로운 시작의 맥락에서 이해하였다. 원주민들에게 대한 연합 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1996년에 총회는 1864년에 있었던 샌드크릭 대학살(Sand Creek Massacre)—감리교인들이 주도하고 이끌었던 공격에 대해 오클라호마의 아라파호(Arapaho) 부족과 샤이엔(Cheyenne) 부족에게 보상할 것을 지지하였다. 2000년, 2004년, 2008년에 반복된 결의문은 원주민들과의 치유와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2008-2009년 선교학교 교재, 우리의 마음을 담아줌: 원주민들의 생존²⁰ 그리고 총회에서 2012년 4월 27일에 있었던 교단의 “원주민들을 위한 치유와 회개의 행동은 역사적 조명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 결의안, “회개와 치유의 길”은 원주민들과의 치유관계를 이루는 과정은 학습과 자기 반성과 고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결의안은 특히 이 과정의 몇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그것은 증언의 특정 시점들에 상응한다:

- 깨어있는 현재: “원주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서 . . . 원주민들과 관계를 맺는다.”
- 역사적 조명: “역사적 외상의 지속적 영향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외상의 지속적인 영향에 우리 자신이 참여한 것을 고백한다.”
- 의미있는 참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주민들과 함께 사역하며” 또한 “치유의 한 부분으로서 원주민들과 다른 본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역들을 옹호하고 지원한다.”²¹

그렇게 사랑과 정의와 연대의 행동들은 20년 전에 총회가 선포한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인식 위에 세워졌다. 증언은 신앙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미국에 사는 백인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미원주민들에게 수세기 전에 행해진 부정의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가지고 씨름한다. 나의 조상들은 원주민들의 파괴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나는 계속해서 나와 다른 미국에 사는 백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 구조와 유산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백인 미국 감리교인들은 그러한 죄악된 마음, 기독교와 문명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복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왜곡된 복음을 선포한 마음에서 돌아서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4. 샌드크릭(Sand Creek) 대학살²²

감리교회의 샌드크릭 대학살(Sand Creek Massacre) 관여는 역사적 조명을 위한 사례 연구를 제공해 준다. 감리교회 정착민들에 의해서 18세기에 샤이엔(Cheyenne) 부족, 아라파호(Arapaho) 부족, 그리고 다른 원주민들에게 가해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회개의 한 부분이다. 2012년 총회는 1864년 샌드크릭 대학살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안전한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북미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잔혹행위 중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 중의 하나이며 감리교인들이 주도하고 도운 것이었다. 이 일은 2016년 총회에서 책의 형태로 완전 공개되었는데, 샌드크릭 대 학살 추모: 감리교회의 개입과 영향과 반응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게리 엘 로버츠(Gary L. Roberts)라는 조지아주 티프톤(Tifton, Georgia) 출신의 역사가가 저술하였다.²³ 로버츠는 감리교인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을 대했고 1864년 11월 29일에 콜로라도의 샌드크릭에서의 사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생각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날 미국 군인들은 평화롭게 진을 치고 있던 샤이엔(Cheyenne)족과 아라파호(Arapaho) 족 진영을 쳐들어가서 대부분의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서 끌어낸 후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을 학살하였다. 그런 무고한 이들을 학살할 수 있게 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미국 백인감리교인들이 여전히 회개해야 할 사회적 죄로 남아 있다.

로버츠(Roberts)에 의하면, 원주민과 백인의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사물을 보는 독특한 법과 다양한 문화와 다른 마음가짐이 관련된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민들과 유럽계 미국인들은 세상을 다른 식으로 본다. 원형 세계관과 직선적 세계관의 차이이다.²⁴ 이런 다른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과 언어들과 전통들이 있다. 북미에도 다양한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데 마치 유럽에도 다양한 유럽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차이점들과 공동점들 자체는 어떻게 개인들과 전체 민족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맺는 방식을 규정한다. 19세기 유럽계 미국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²⁵ 로버츠는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생각의 발전을 추적하였다. 그것은 승리주의 신학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었고, 로마 제국과 중세 십자군 전쟁과 유럽의 “발견의 교리”로 표현되어왔다.²⁶ 이런 일반적인 유럽인들의 마음 속에 영국인들이 “깊이 마음 속에 새겨진 앵글로 색슨족의 우월성”을 추가했다.²⁷ 로버츠는 이런 마음 가짐이 “점잖은 보호주의”부터 “공격적인 멸시와 심지어는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낸 것으로 적고 있다.²⁸

유럽계 백인 미국인들의 마음 가짐은 원주민들과의 의미있는 관계설정을 방해하였다. 미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했던 감리교 선교는, 대부분 백인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의 시각, 문화, 언어 등을 배우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를 거듭했다. 로버츠는 이렇게 설명한다:

오래된 “반원주민 정서”가 미국 감리교인들에게는 은총이나 성화처럼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었다. 인디안들 속에서 한 감리교인들의 노력에 대해 가장 좋게 봐준다고 해도 매년 선교사회에 내는 보고서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몇몇 선교사의 정신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이거나 열정적인 지원은 없었다. 감리교회의 영혼은 미국인 예외주의에 묶여 있어서 원주민을 위한 가슴은 남아 있지 않았다.²⁹

우월한 마음은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고 억압을 정당화했다. 백인 감리교인들은 백인 미국인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신앙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으로, 아니 사실상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기독교인은 곧 미국인이라는 두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시민 신학을 포용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감리교회는 백인 미국 정착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나갔다. 백인 감리교인들과 다른 유럽계 미국인들은 원주민들을 미개한 “다른” 사람들로 개화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했다.³⁰ 감리교인들은 그 중에서도 개화를 우선시해서 원주민들을 개화시키려고 애썼다.

감리교인들은,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에 대해서] 미개인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행동했고 그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알고 믿고 중요시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의 성장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과 “약속의 땅”이라는 성경적인 명제와 혼합되어서 “미개한 다른” 민족은 교회의 원칙들과는 더 동떨어진 것으로 만들었다. “시민 신학”으로 떠오른 내용은 백인의 시민사회와 기독교의 복음전도를 연결시켰다. 미국 독립 혁명 당시의 감리교인들과는 달리 그 당시의 [1850년대] 감리교인들은 정치적 영역에 충분히 진출해 있었다. 합중국에 대한 충성은 종교적인 의무였고 기독교화하는 것은 개화에 필수적인 것이었다.³¹

이러한 묘사는 교회가 증언하는데 실패한 것을 보여준다. 백인 감리교인들은 부리 내린 존재로서 증언하지 않았고, 미원주민들과의 근본적인 평등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증언하지 못했고 미원주민들을 알아가거나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들은 그들로 하여금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부정의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지 못하는데 자기들 마음에서나 생각 속에서는 회개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의미있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배제시켰다.

백인 미국인들의 마음에 있는 우월성은 원주민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금씩 더 정복할 때마다 얻게된 사소한 업적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생각을 더 강화시켰다. <명백한 사명>(Manifest Destiny)이라는 생각으로 추

진된 민족주의적인 선교는 백인 감리교인들이 자기 나라와 그 나라의 발전을 신앙의 진리의 증거로 보는 시각을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는 자기 충족적인 상황을 만들어 냈다. “감리교회는 국가 교회”가 되었고 로버츠(Roberts)에 의하면, “미국 예외주의를 받아들이고 <명백한 사명>을 교회 정책과 사역의 교리라고 받아들였다.”³² 일단 백인 감리교인들이 이러한 “시민 신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들이 미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류 백인 문화가 자행하는 부정의는 동시에 기독교까지도 물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그러나, 교회가 미원주민에 대한 죄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리교회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로버츠에게 두 명의 잘 알려진 백인 남자 감리교회 지도자와 감리교회가 샌드크릭의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를 결정하는 임무가 주어졌다.³³ 그의 결론은 확실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창설자와 동명이인인 감리교회 성도였던 존 에반스(John Evans)는 당시 콜로라도 주의 주지사였는데, 로버츠는 이렇게 결론내렸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존 에반스(John Evans)가 샌드크릭 대학살을 가능하게 한 조건에 책임이 있다.”³⁴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자 미국 육군 대령이었던 존 밀턴 치빙톤(John Milton Chivington)은 그 공격을 지휘하였는데 로버츠에 의하면 “자기 야심을 펼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³⁵ 치빙톤(Chivington)은 그 당시에 이미 “싸움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비록 샌드크릭 대학살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정죄되었지만,³⁶ 감리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³⁷ 로버츠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샌드크릭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대한 감리교회의 반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관심이었다. 샌드크릭은 교회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중요하지 않았다.”³⁸

로버츠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편만했던 시민 신학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백인 미국인들의 생각이 샌드크릭의 비극에 가장 중요한 작용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적은 수의 백인 감리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극복했지만 자신들이 공헌한 그 부정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로버츠의 보고서가 제시한 역사적 조명은 나에게 그러한 부정의를 증언하고 교회의 회개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당신의 교회 예배 순서를 생각해 보라. 회개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 순서가 과거에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이 교재에 비추어서 회개 시간은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당신에게 줄 수 있는가?
2. 당신은 회개를 정의의 행동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정의가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당신에게 어떻게 그 일을 돕는가?
3. 만연된 “백인 미국인 우월주의 태도”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당신이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가지는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5. 회개를 통해 증언하기

마음 가짐은 바뀔 수 있다. 회개는 과거의 생각하던 방식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준다. 나의 해가되는 정신적인 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우월주의도 바뀌어야 원주민들과의 관계가 치유될 수 있다. 사실상, 치유되고 치유하는 관계가 나같은 백인 미국 감리교인들이 물려받은 우월주의 태도를 극복하는데 핵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증언의 네번째 시점인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에 참여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역사적 조명과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게리 로버츠(Gary Roberts)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평화나 화해같은 말들이 의미와 목적과 실제적인 희망을 가지기 전에 먼저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식들은 이해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³⁹ 먼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우리는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역사적 조명을 추구하는 일

회개로 이끄는 역사적 조명은 증언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총감독회회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2012년의 원주민들을 위한 치유와 회개의 행동 이후에 총감독회회는 치유 과정을 도안하였다. “우리가 원주민들과의 치유의 과정으로 나가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총감독회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감독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증언할 것인지를 묘사했다.

오늘,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해서 총감독회회는 우리 자신의 가슴과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역사는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조사하기를 기다리는 연구나 참고를 위해 자료실에 보존된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살아 있고, 숨을 쉬는 현상이며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해하게 돕는 것이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게있게 다가온다. 함께 우리는 아직도 미국 내의 원주민들과 세계 모든 곳의 본토 주민들을 짓누르는 역사를 애통해 한다.⁴⁰

증언을 위한 이 시점에서 감독회회는 부정의를 밝혀 내고 과거에서 배우고자 하였다. 감독회회는 이 시점을 의도적인 중단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듣기 위해 멈추었다.” 이런 자세는 단지 깨어있는 현재 뿐 아니라 회개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은 기억의 도덕적 활동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게있게 다가온다.”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것은 도덕적 부담감이며, 과거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인정이며, 그것을 깨는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한 역할에 대한 고백이다.

과거 청산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감독들은 자기들이 회개를 준비하는데 애통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정직했다. 그리고, 그들의 편지는 서두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가 폭력적인 살류의 역사와 강압적인 이주와 파괴와 대학살과 수감과 대량학살의 정책 등에 타협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고백에 이어서 감독들은 성경에서만 아니라 자신들이 해를 끼친 원주민들에게서도 지혜를 구하고 있다: <라코타 화이트 버팔로 칼프 우먼>(Lakota White Buffalo Calf Woman), <블랙 엘크>(Black Elk), <트래디셔널 엘더스 씨클>(Traditional

Elders Circle), <블랙 호크>(Black Hawk), 그리고 <퀸 릴리 우오칼라니>(Queen Lili uokalani). 그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어 있는 현재를 나누었다. 그들은 교회가 죄를 확신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역사에서 밝은 조명을 얻기 원했다.

이런 준비 행동을 한 후에, 감독회의는 회개의 성명서를 냈다. 여기적인 말들은 깨어진 관계를 고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한 절실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감독회의로서 우리들은 여기서 회개하며 지난 이백여년에 걸쳐서 교회의 선교를 확대했던 모든 장소에서 토착민들과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과거에 행한 행동에 대해 참회한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을 토로하고 아주 크게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른 모든 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해악을 중단할 것을 결단하고, 다르게 살 것을 서약하며, 폭력과 부당한 대접과 원주민과 토착민에 대해 무시했던 것을 통해서 저질러진 피해를 되돌리고 우리가 치유와 모든 것의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짐한다.

이러한 회개의 자세는 후회에서 시작되어 과거의 해를 보상하겠다는 다짐을 포함했다. 그들은 자신과 교회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했다. 그들의 용서 요청은 완전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고백과 해악 중단과 변화 의도와, 피해 보상과 치유와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회개의 선언은 계속되었다. 감독회의는 부정의의 제도적 면을 인식하였고, 제도적 교회에 의한 억압을 포함하였다. 감독회의는 원주민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였고, “그들로부터” 세상과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배우기를” 구하였다. 우리 감독들은 원주민들과 비원주민들 사이에서 동등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서로 배우고 유익이 되는 은혜의 쌍방향 통로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태도, 이러한 변화된 마음 가짐은 그전의 샌드크릭 대학살 같은 파괴와 상처를 촉진시켰던 우월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감독들은 또 빈말을 피하고자 한다: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우리의 사역은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며, 책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제도 보다는 미래의 상호적인 관계를 우선시한다.

“우리의 원주민 및 토착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말로 자신들과 교회를 대표해서 감독들은 과거와 현재의 실수들을 고백했다.

우리는 당신들의 부족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한 우리의 최악된 행동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당신들에 대한 폭력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문화를 아무 생각없이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감독회의는 연합감리교회와 그 교인들을 대표해서 지속되는 잘못을 인정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원주민 이웃들의 기본 인권과 기본적인 필요인, “기아, 건강, 취업, 주권” 등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들의 이웃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잊지 않기로 결의했다: “우리는 역사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그들은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증오의 나누는 담을 허셨고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치유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감독회의는 회개의 계획의 일부로, 구체적으로 헌신할 일들, 교육할 내용, 옹호할 문제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할 것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보상 행동

연합감리교회의 지속적인 회개는 2012년 감독회의 성명서에 제시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보상 행동을 낳았다. 그런 보상의 중요한 예는 2019년 9월 21일 토요일에 벌어졌다. 연합감리교회가 오하이오주 어퍼 샌더스키(Upper Sandusky, Ohio)에 있는 땅을 와이안도트/테(Wyandot/te) 부족에게 돌려준 것이다.⁴¹ 이 부동산은 1843년 감리교회에 신탁된 것으로 장지와 감리교 선교사 존 스투어트(John Stewart)가 와이안도트/테 부족과의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 교회를 포함하고 있다. “와이안도트/테 말로 우리는 티저메이(tizameh), 즉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라고 빌리 프렌드(Billy Friend) 오클라호마 와이안도테/트 부족장이 말했다. 다음 인용문은 오하이오 연회 뉴스에 실린 릭 월코트(Rick Wolcott)의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⁴²

이 토지 상환은 지속적인 회개의 사역의 일부이다. 행사의 연사들은 비록 더 많은 회개와 치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체본 커넬(Chebon Kernell)은 연합 감리교회 원주민 사역 총괄(United Methodist Church Native American Comprehensive Plan)총무는 이렇게 말했다.

2012년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가 원주민들과의 치유 관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잘못) 인정과 (배상) 의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노력한다.

회개는 동역하면서 함께 가는 여정이자 새롭고 더 공정한 관계의 기초이다. 오하이오주의 두 주재 감독들인 트레이시 말론(Tracy Malone)과 그레고리 파머(Gregory Palmer)는 둘 다 참석했다. 함께 그들은 2012년 감독회의 성명서의 다짐을 하였다:

우리는 정의의 기회와 자원들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들 내에서의 지도력 개발을 지원하고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 일할 것이다.

실제로 치유라는 주제는 거듭해서 나오는데, 완성된 일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이 추구하는 목표로 나오고 있다. 댄 호크(Dan Hawk)는 이스트 오하이오 연회 원주민 사역 위원회(Native American Awareness Committee) 위원장인데 보상이 회개의 더 큰 과정의 일부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세례 요한을 언급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말하고 전체 연합 감리교회의 정신의 일부로서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는 망가진 것을 고쳐주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작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중요한 회개와 화해와 회복의 단계이며, 긴 여정으로의 한 걸음이지만 우리가 회개의 행동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눈에 보이게 삶 속에서 사는 일이며 비록 그것이 작은 땅 한 필지일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돌려준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에게 대해서 많은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호크(Hawk), 파머(Palmer), 말론(Malone), 커넬(Kernell), 프렌드(Friend), 그리고 다른 참석자들에게 땅을 와 인도트/테 부족에게 돌려주는 것은 하나의 회개하는 교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런 작은 행동은 그 자체로서 수세기에 걸친 잘못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해악을 끼친 과거를 청산하는 필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회개의 참된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관계 속에 있다.

사랑 없이는 회개가 없다

트위디 솜브레로 나바레떼(Tweedy Sombrero Navarrete)는 나에게 증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합감리교회의 원주민들과의 회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⁴³ 나바레떼(Navarrete)는 디네(나바호 족)이며 아리조나에서 목회하는 목사이다. 그녀는 미원주민 교회와 백인 교회 둘 다를 섬겼다. 그녀는 사역, 관계, 그리고 회개—특히 깨어있는 현재가 맺어준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

내가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멘토에 대해서 말했다. 해리 롱(Harry Long)은 피닉스(Phoenix)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미원주민 친교회(Native American Fellowship Ministries) 평신도 사역자이다. “그는 겸손한 종이요 아주 격려하는 분이다. 그는 내가 되고 싶은 모든 것의 모범이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나에게 롱(Long)에 대해 말할 때, 나는 그녀가 특히 그의 깨어있는 현재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입양된 딸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그녀는 아직도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하게 지낸다. 정말 가족 공동체였다! 그녀가 그를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그녀는 분명히 그가 그녀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언제나 무속자들 사이에서 걸터다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다.” 그의 증언은 공동체를 통해서 빛이 났다. 친교교회는 많은 무속자들을 섬겼고 환대로 소문이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지를 알았다. 우리는 웃도 나누어 주고 음식도 나누어 주고 뒤쪽으로는 한증막도 있다.” 롱(Long)이 은퇴할 때가 되자, 그는 감독에게 나바레떼(Navarrete)를 목사로 파송해 달라고 추천하고 그녀가 인수 인계 받는 것을 도왔다.

롱(Long)의 깨어있는 현재의 자세는 나바레떼(Navarrete)의 사역의 기초를 이루었다. “많은 원주민들이 교회 땅에서 안전하게 느낀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했다. 그녀의 작은 교회는 여름 동안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그들은 교회 마당에서 잘 곳을 찾는다. 목사관은 교회 옆에 있고 목회는 사택 문턱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한 밤중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지 보려고 거기있는 무숙자들 사이에서 걷는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겁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사는 여자다.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때로는 내 딸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한 번도 겁이 나지 않았다. 나는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나갔다. 우리는 겁을 낸 적이 없다. 나는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느꼈다. 바로 이렇게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존중하는 때에, 그들은 올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 거기 있었다.

이런 가족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은 그녀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자 하고-그들의 고유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역을 되돌아 보면서, 그녀는 그 도심지의 교회를 자기 사역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의 한 순간이었다고 묘사했다.⁴⁴

그녀가 섬기던 백인 회중에서 증거하는 일은 종종 그녀에게 편견의 벽을 허무는 일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녀에게 원주민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회중들의 공개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태도나 방식은 집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된다면 거실에서 소변을 볼 것으로 여겨지는 “술취한 인디언들”이라는 상처되는 고정관념과 놀림감으로 가득찬 것이었다. 그녀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백인 회중들 안에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던 두 교회에서 강의를 했다. 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가르쳤고 40명을 데리고 원주민 부락으로 가서 삶의 체험을 하게 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마쳤을 때 그들은 그 전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 그 교회들에 갔을 때, 그들은 “우리는 술 취한 인디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녀의 몸으로 보여주고 사랑으로 함께 하는 모습이 40명의 이 수업에 참석한 이들과 이 교회들 안에 있는 다른 백인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증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동료 인간으로 보고 그들과 공감하는 법을 배우면서 시작한다.

존엄성과 사랑의 기반이 없이는, 회개의 시도는 흔들거린다. 내가 그녀에게 2012년 총회에서의 “원주민들을 위한 회개와 치유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자기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청중들은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그 당시 백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물어봤다.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할일을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아직도 한다면, 우리는 먼저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모습은 내게는 한 교회 회중이 여러 슬픔의 단계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깨어진 관계는 깨어짐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 나바레테(Navarrete)는 연합감리교회의 회개의 교리와 실제 역사적 조명에 근거한 매일의 실천으로서의 회개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특권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의 구조와 그 타협성을 검토해야 한다. 단지 1864년의 샌드크릭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개체 교회에서의 타협성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치유와 회개는 반드시 깨어있는 현재와 이웃에 대한 공감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이 없이 회개가 있을 수 있는가?

나바레테(Navarrete)는 또한 <회개의 행동>은 너무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고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샌드크릭에 멈추어 있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가 더 많은 노력을 원주민 교회를 강화하고 원주민들이 목사가 되도록 하는 일에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식적인 <회개의 행동>은 현재의 문제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그녀는 별로 진전이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여전히 옛날 싸움을 아직도 싸우고 있다.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원주민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백인으로서, 나는 그녀가 나같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깨어있는 현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낀다. 존엄성을 더 인정해 주고, 더 공감하고, 더 사랑하고, 총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덜하기를 바란다. 연합감리교회의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옛날 행동 방식과 특권은 다시 떠오른다. 사회적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함께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억압을 더 분명하게 맞닥뜨리는 때가 오면, 자기 자신의 불편함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깨어서 바라보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는 한편, 그녀는 자기가 섬기는 백인 회중들 안에서 중요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나에게 자기가 최근에 우리가 말했던 그녀가 섬긴다고 하는 피닉스에 있는 셰퍼드 어브 더 밸리 연합감리교회(Shepherd of the Valley United Methodist Church, Phoenix)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한 젊은이에게 가서 물 한병을 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최근에 무속자가 되었다. 그는 동성 연애자라서 집에서 겨눴다. 그는 나에게 “여기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다. 나는 그저 전화를 충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기도했다.

사랑은 진료소에서 멈추지 않는다. 정의도 사랑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증언의 과정은 단축되거나 간략하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수백만의 깨어진 관계를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의 회개의 의식 속에 압축해서 넣을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깨어짐을 위한 치유를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 나바레테(Navarrete)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는 어떻게 무감각에서 지식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도록 도와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것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 성소수자,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민감해야 한다.

교육.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사역 전반에 함축된 내용에 대해 몇 마디 더하고자 한다. 뿌리내린 존재로서,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그리고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 증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호하시는 미래를 향해 전진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누군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 이런 회개의 행동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고치는데 기여했는가?
2.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위에 논의한 것처럼 가령 연합감리교회의 행동처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개의 집단 행동에 참여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 경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토론 상대와 함께 혹은 모임에서 논의해 보라. 어떤 지속적인 효과를 그런 행동이 가지고 있는가?
3. 당신은 나바레테(Navarrete)가 연합감리교회의 회개의 행동에 반대해서 놀랐는가? 당신은 그녀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가? 만약 당신이 놀라지 않았다면 그녀나 다른 원주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가?
4. 연합감리교회는 회개의 행동과 더불어 실제로 더 건강한 마음과 공평한 권력 구조와 새로운 형태의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 아니라면, 그런데도 회개의 행동은 여전히 유용한가?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과거 청산은 증언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이다. 어떻게 우리는 역사적인 조명을 정의의 행동을 위해, 특히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 우리는 잊고 또 잊혀지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는 적합한 책임의 과정 이전에 서둘러 “화해”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과의 깨어있는 현재는 우리에게 죄를 일깨우는 은혜의 거울을 비추어 주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자신의 깨어짐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사적 조명은 그 때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한다. 좋은 소식은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놀워치의 줄리안(Julian of Norwich)을 다시 한 번 인용한다면 말이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들어올리시는 손의 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것은 이웃들 안에 자리잡은 은총이며, 용서를 기꺼이 해주는 은혜이며, 희망을 주는 치유의 임재이다. 다시 한 번 시편 130편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한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이 멈춤의 순간, 이 회개하면서 기다림의 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의도하신 일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의미있는 참여를 통해 증언을 할 수 있을까?”

“주여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소서.”⁴⁵



기도하면서 할 행동들:

1. 이 과에서 제시된 증언의 시점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 및 영적인 반응을 일기에 적어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
2. 모임에서 회개의 의식에 참여해 보라. 그 후에 그 경험을 토론했다. 회개의 행동이 일반적이었는가 구체적이었는가? 인격적이었는가 비인격적이었는가? 개인적이었는가 집단적이었는가? 어떤 깨어진 관계가 치유될 필요가 있었는가?
3.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을 초대해서 교회에서 말하게 해라. 그의 마음가짐이나, 삶의 경험이나, 사회적 위치가 당신 교회의 규범과는 아주 다른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할 때 깨어있는 현재를 실천해 보라.
4. 교회 임원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까? 역사적 및 사회적 죄의 결과 모아둔 재물을 가지고 할까 아니면 우리 교회 건물이 있는 땅을 가지고 할까?

요약

우리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역사적 조명을 요구한다.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의 현실을 통감하며 기본적인 생필품의 필요를 깨닫고, 우리는 우리 과거와 계산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악과 부정의와 억압에 기여했는가? 때로는 우리는 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슬픔의 단계들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용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회개를 요구한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개는 기억을 되살리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치유를 추구하는 그 이웃들에게 깨어있는 현재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한다고 할 수 없다. 회개는 동시에 개인적 및 공동체의 보상을 요구한다. 보다 더 건강한 태도를 만들어 내고, 보다 더 공평한 권력 구조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나 다른 기관 안에서 새로운 책임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앞으로 전진하고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 즉 치유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과거를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후주

1. 더 알고 싶으면 파멜라 쿠퍼 화이트(Pamela Cooper-White), *다말의 부르짖음: 여성에 대한 폭력과 교회의 반응*, 2판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2), 195쪽; 카렌 에이 맥클린톡(Karen A. McClintock), *정신적 외상이 상처입을 때: 치유와 희망으로 가는 길*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9)를 보라.
2. 이 주제를 잘 다룬 (비록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글을 보려면 존 콜맨 베네트(John Coleman Bennett), *사회적 구원: 사회적 변화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 (뉴욕: 찰스 스크리브너, 1948)를 보라.
3. 미셸 알렉산더(Michelle Alexander), *새로운 짐 크로(Jim Crow)법: 인종차별 시대의 대량 수감* (뉴욕: 뉴프레스, 2012).
4.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자료들 참조, "인종 정의: 옹호와 교육," unitedmethodistwomen.org/racialjustice, 2020년 5월 12일 접속.
5.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의 은총," 현대 정치 신학 분야 에더만스(Eerdmans) 출판사 독자들을 위한 선집, 윌리엄 티 카바나(William T. Cavanaugh), 제프리 더블유 베일리(Jeffrey W. Bailey), 그리고 크레이그 호비(Craig Hovey) 공동 편집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에더만스, 2012), 258쪽.
6. 이후의 내용은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가 저자와 2019년 8월 15일에 저자와 한 인터뷰에서 발췌함.
7.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뉴욕: 사이먼 앤 슈스터/타치스톤, 1969).
8. 랜디 엘 매독스(Randy L. Maddox), *책임적인 은혜: 존 웨슬리의 실천 신학*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4), 165쪽.
9. "우생학을 지원한 것을 회개함," 결의문 3185,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08.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08 허락을 받아 사용함, 340–46쪽.
10. 결의문 149,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의 행동,"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00.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00 허락을 받아 사용함, 384–85쪽.
11. 제임스 폴링(James Poling)은 관계를 바로 잡을 때, 비록 우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서로 돕기는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요구와 피해자에 대한 요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임스 뉴턴 폴링(James Newton Poling), *믿음을 다시 생각함: 실천 신학 논의*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1).
12. 캐롤린 헨닝스 윌러(Carolyn Henninger Oehler), *온전함을 향한 발걸음: 배움과 회개* (총회 기독교 일치와 제반 종교 문제 위원회, 연합 감리교회, 2000).

13. 호머 놀리(Homer Noley), 첫 하얀 서리: 미원주민과 연합 감리교회 (내슈빌: 아빙돈, 1991).
14. 놀리(Noley), 첫 하얀 서리, 18, 48, 229-30쪽, 각각의 경우.
15. "1992년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386-92쪽.
16. "미원주민들에게 한 고백,"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1992.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1992 허락을 받아 사용함, 210-11쪽.
17. "1992년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18. 앞의 글.
19. 앞의 글.
20. 톰 화이트 올프 파세트(Thom White Wolf Fassett), 우리의 마음을 주는 일: 미원주민의 생존, 학습 지침은 브렌다 코넬리(Brenda Connelly) (뉴욕: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2008) 지음.
21. 결의문 3324, "회개와 치유의 길,"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2.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2 허락을 받아 사용함, 420-22쪽.
22. 이 부분은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샌드크릭: 그 당시와 현재의 제국주의적인 자세를 회개함," 유니티드 메소디스트 인사이트, 2016년 4월 7일, um-insight.net/general-conference/gc-archive/sand-creek-repenting-of-an-imperialistic-mind-set-then-and-n, 2020년 5월 12일 접속.
23. 게리 엘 로버츠(Gary L. Roberts), 샌드크릭 대학살을 기억함: 감리교회의 개입, 영향, 그리고 반응에 대한 역사적 고찰, 어드밴스 에디션 데일리 크리스찬 애드보케이트 2016, 1235-1408쪽, ee.umc.org/who-we-are/gc2016-advance-edition-daily-christian-advocate, 2020년 5월 12일 접속. 이 책은 그 후에 출판되었음. 게리 엘 로버츠(Gary L. Roberts), 샌드크릭 대학살을 기억함: 어떻게 감리교회가 미국의 비극에 개입하였는가 (내슈빌: 아빙돈, 2016).
24. 로버츠(Roberts), 샌드크릭 대학살을 기억함, 1254쪽.
25. 앞의 책, 1255-56.
26. 앞의 책, 1261-62쪽.
27. 앞의 책, 1263쪽.
28. 앞의 책, 1394쪽.
29. 앞의 책, 1362쪽.
30. 앞의 책, 1273쪽.
31. 앞의 책, 1285쪽, 제프리 윌리엄스(Jeffrey Williams), 초기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의 종교와 폭력: 힘으로 왕국을 차지하기 (블루밍턴, 인디애나: 인디애나 대학 출판부, 2010), 95-130쪽을 인용함.
32. 로버츠(Roberts), 샌드크릭 대학살을 기억함, 1395쪽
33. 앞의 책, 1389쪽.
34. 앞의 책, 1389쪽.
35. 앞의 책, 1391쪽.
36. 앞의 책, 1378, 1397쪽.
37. 앞의 책, 1393쪽.
38. 앞의 책, 1395쪽
39. 앞의 책, 1254쪽
40. 연합 감리교회 감독회의, "우리가 원주민들과 치유의 관계를 향해 여정을 시작하면서 감독회의가 내놓은 성명서," 2012년 4월 30일, epaumc.org/archives/2012-general-conference/2012/04/act-of-repentance-and-healing-for-indigenous-persons, 2020년 5월 12일 접속.

41. 총회 세계 선교국, “거룩한 미원주민의 땅이 와이인도테(Wyandotte) 부족에게 반환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umcmission.org/share-our-work/news-stories/2019/august/sacred-native-american-lands-will-be-returned-to-wyandotte-n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42. 이것과 다음의 인용문들은 릭 올코트(Rick Wolcott), “기억, 회개, 회복: 교단은 맡아왔던 땅을 와이인도트/테(Wyandot/te) 부족에게 돌려준다,” 이스트 오하이오 컨퍼런스 뉴스, 2019년 9월 24일에서 인용, eocumcnews.com/2019/09/24/remembrance-repentance-and-restoration-denomination-returns-entrusted-land-to-the-wyandot-te-n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43. 트위디 솜브레로 나바레테(Tweedy Sombrero Navarrete),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12월 5일.
44. 트위디 솜브레로 나바레테(Tweedy Sombrero Navarrete), “미원주민으로서 사역하기,” 리스판스, 2017년 11월, unitedmethodistwomen.org/news/in-ministry-as-a-native-american, 2020년 5월 12일 접속.
45. 켄 메데마(Ken Medema), “주님, 당신 자녀들을 들으소서,” © 1973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2020년 5월 12일 접속.



모임 IV:

의미 있는 참여

복 합적이고 지속적인 역사적 죄의 유산을 다루는 일은 힘에 벅찬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역사적인 조명의 순간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나 사회로서나 우리들의 실패의 엄청난을 정말 조금이라도 살펴볼 때, 혹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부정의의 만연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 마비를 피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2:20)라는 말씀을 기억한다. 우리는 혼자자 아니고, 우리는 혼자서 갈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어주시고, 힘을 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17-21).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주눅이 들게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이웃이 나그네 들일지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들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연대하게 하소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당신의 뜻을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도덕적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1. 기도하면서 이루는 변혁

그레이스 무수카(Grace Musuka)는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로서 “알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한다”라는 세계 기도일의 좌우명인 말에 따라 산다.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역 선교사이며, 중앙 아프리카의 여섯 개 국가를 섬기고 있다. 그녀는 여성들을 위한 지도력 훈련을 하고 자신이 태어난 짐바브웨에 기반을 두고 있다.¹ 세계 기도일은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일에 합류하라고 초청하는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하는 초교파적인 전세계적인 운동이다.² 짐바브웨의 여성들은 2020년 세계 기도일의 주제로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라”는 요한복음 5:2-9a에 나오는 말씀을 골랐다.³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화해와 평화를 위해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응답을 요구한다. 기도는 단지 첫째 걸음일 뿐이다. 그리고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 및 사회적 변혁을 위한 걸음을 제시하신다.”⁴ 이것이 교회의 도덕적 증언이다.

무수카(Musuka)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알고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일을 연결한다. 그녀는 2012년에 지역 선교사로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평가를 하고, 여섯 맡겨진 나라들(카메룬, 콩고 공화국, 말라위, 나미비아, 탄자니아, 그리고 짐바브웨)을 방문하고 여성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⁵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들었다. 여성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것이 그들에게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 신앙 토크라는 방송 인터뷰에서 그녀는 아프리카에서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주제를 탐구하였고, 2020년의 초교파 세계 기도일이 짐바브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종종 기도할 때 특정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의 하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13)이다.⁶ 이 구절은 그녀에게 자신의 지역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들에서 증언하도록 영감을 주었고 평화와 정의의 행동에 합류하게 하였다.

그녀로부터, 나는 공동체의 필요를 인식하게 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미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를 질문받았을 때, 그녀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그 중에는 더 많은 학교들과 기본 생필품들이 있었다.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을 더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품들, 교육, 건강 문제등이 필요하다.”⁷ 그녀는 곧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켰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 아니면 발이 없다. 우리의 손이 아니면 손이 없다.”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놓기 전에 우리는 지침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서 걸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증언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점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와 함께 할 것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미래의 한 형태는 이사야에서 발견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65:17).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화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의로움의 꿈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이웃들, 특히 가장 못사는 이들, 부정의가 끊임없는 현실이 되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것을 요구한다.

증언의 과정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한 존엄성의 인정은 뿌리 내린 존재로서의 처음 시점에서 생긴 일이다. 선행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응으로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발전시켰다. 공동체 안에서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은 둘째 시점인 깨어있는 현재에 일어났다. 의인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책임을 깨닫고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랑으로 응답하였다. 현재의 억압적인 제도에 과거에 타협했다고 하는 기억은 세째 시점인 역사적 조명에서 떠올랐다. 의인 은총에 더욱 힘입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부정의의 피해자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고, 회개의 행동에 관여하였다. 이제, 네번째이자 마지막인 증언의 시점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구원, 그리고 용서는 우리들을 화해와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 의미있는 참여를 하도록 준비시켜왔다. 하나님은 정의의 꿈을 꾸며,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연대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미래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오늘 삶 속에 살아 내라고 초청되었다. .

이번 모임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배운 <메노나이트>(Mennonite) 교단의 설교자인 파멜라 부루베이커(Pamela Brubaker)의 설교로 시작한다. 연합감리교인들은 우리의 전통의 일부를 마틴 뵘(Martin Boehm)에게 빚지고 있는데, 그분은 메노나이트 교단 감독이자 연합감리교회의 창시자 중의 한 분이다.⁸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전통의 이 부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대의 메노나이트 설교자로 우리에게 희망의 문턱을 넘게 한 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이다. 브루베이커(Brubaker)의 “문턱” 설교는 두 시점, 역사적 조명과 의미있는 참여 사이의 균형 잡힌 지점에 자리한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현재에 증언을 할 때 하나로 합쳐진다. 이번 모임에서 우리들은 화해와 온전한 창조의 변영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이다. 거룩함, 제자도, 그리고 기독교인의 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할 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포용하고 풍성한 삶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들일 때, 깨어진 관계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관계들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총회 여성 지위 향상 위원회를 통해 성별 정의와 평등을 위해 했던 나 자신의 사역에서 예를 찾아 옹호를 위한 깨어있는 현재로부터 앞으로 나가는 예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미래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일은 폭력의 죄를 대면하고, 그것이 제도적인 현실임을 인식하고, 교회로서 증언하는 일을 요구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 및 모든 피조물과의 진보적인 연대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 관계들 속에 있음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창조를 주시는 가능성을 증언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거룩한 균열을 일으킬 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기도하면서 할 활동들:

1. 서클이나 속회에서 혹은 기도 동역자와 함께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방송 <신앙 토크>(Faith Talks)에서 그레이스 무수카(Grace Musuka)와의 인터뷰를 들어보라(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 그녀의 증언은 당신에게 무엇에 관해 기도하도록 영감을 주는가?
2. 어떻게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당신 자신, 교회,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의 신앙 생활에서 예를 생각해 보라.
3.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지 어떻게 아는가? 기도 동역자나 그룹과 함께 당신의 교회가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필요를 의도적으로 들어보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4. 세계 기도일에 참여하라: worlddayofprayer.net/index.html.

2. 희망의 문턱

이사야 65:17-25를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메노나이트(Mennonite) 교단 목사인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는 미국에 사는 과테말라 이민자들의 경험을 자신이 증언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선지자의 희망에 관해 묵상했다.⁹ 그녀는 2019년 조지아의 라그레인지(LaGrange, Georgia)에 있는 과테말라 공동체에 들어가 타문화 체험을 열흘간 하였다. 그녀가 숙박한 가정은 안톤(Anton)과 샬롯 플로레스(Charlotte Flores)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 집이었는데, 그들은 시민권이 없어서 직업, 교육, 주택, 수입, 존엄성의 기회를 부당한 이민자들과 30년 이상을 지낸 이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라그레인지(LaGrange)에 있는 동안 경험한 몇 가지 일들을 나누었다:

나는 스투어트 수용소(Stewart Detention Center)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약 2 천명의 남자들이 갇혀 있었다. 살인이나 횡령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갇힌 것이다. 나는 그곳의 형편없는 상황을 보았다. 나는 여러 시간 걸려서 자기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일주일에 한 시간 정해진 시간 동안 면회하러 와서는 그 이천명을 위한 면회 창구가 다섯 개 밖에 없어서 다시 수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 십 가정들을 만났다. 사실, 나는 몇 시간을 와서는 몇 시간을 다시 기다리고는 결국에는 면회가 거절된 가족도 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는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하였다. 두 청소년의 아버지는 몇 달을 스투어트 수용소에 있다가 추방되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재미있고 책도 많이 읽는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아주 계획성이 있었다. 브루베이커(Brubaker)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대학들이 서로 그런 아이들을 데려 가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대학 진학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녀는 평온한 자세로 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15살이 되었을 때 <다카>[DACA, 어릴 때 미국 온 아이들 추방 유예 행정명령이 취소되어 그녀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브루베이커(Brubaker)가 개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청소년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경험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일대일 관계 없이는 하나님님의 가족 공동체를 실현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의 공동체와는 아주 다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과 깨어있는 현재를 보낸 후에, 브루베이커는 사회를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과 그들이 나눈 현실들은 그녀에게 과거를 청산하게 하였다.

나는 과거의 노예 제도와 짐 크로(Jim Crow) 법과 현재의 이민자들을 대하는 우리 나라의 태도와 정책들 사이의 깊은 관련과 그 둘의 배후에 인종 차별과 백인 우월주의가 추진력을 가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라그레인지(LaGrange) 마을은 면화 농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그 중앙에 있는 건물들과 대학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예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거리에는 레드라인 앨리(Redline Alley)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한때는 잘 사는 백인 지역과 가난한 흑인 농장 일꾼들을 나누는 경계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 거리가 이민자 구역과 잘 사는 이들을 나누는 경계이다. 캘러웨이(Callaway) 가문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마을에서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는 집안이지만, 그 마을을 건설하느라고 피와 땀을 흘린 노예들에게는 어떤 공로도 돌리지 않았다.

⁹미국 검찰총장은 <다카>를 2017년 9월 5일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3년 뒤에 그 결정을 무효화하였다. <다카>는 현재 논쟁 중이다.

이러한 과거는 그녀와 몇 과테말라 청소년들이 유적 박물관(Legacy Museum)을 방문하기 위해 알라바마 몽고메리(Montgomery) 근처를 여행할 때 생각지도 않은 방식으로 살아났다.

박물관의 목적 중의 하나는 대중들을 교육하고 우리 나라의 노예 제도와 개인적인 처형 역사에 관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곳에 한 전시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엄마와 그녀의 아이들이 잔인하게 분리되고 팔리는 것을 생생하게 재현한 3차원 동영상이었다. 그런데 나는 브라이언트(Bryant)가 나에게 돌아서서 한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부 국경의 많은 다른 가정들에게도요.”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강력한 중첩된 모습을 보며 브루베이커는 미국에 이민 온 이들의 곤경에 그동안 자신이 타협하고 있었음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러한 이웃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 그녀는 자신이 그 전에 무심하게 지나졌을 수 있었던 부정의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법정에서 한 과테말라 남자가 아무 위법 사실이 없이 그냥 트레일러를 단 트럭을 운전하다 경찰에게 검문당한 일을 보았다. 그 남자는 면허증이 없어서 \$1,000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건의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스튜어트 수용소로 보내졌는지 아니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든지 (왜냐하면 적법한 신분 없이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아니면 운전을 포기하고 직업과 생계와 가족을 먹여살릴 능력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여야 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조지아주에 있는 과테말라 공동체의 증언들이 그녀가 이사야 65:17-25에서 발견되는 희망을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말들은 주전 8세기 정치적 격변기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다. 앗시리아 제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다. 히브리인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 외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래를 선포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18-19).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가진 의도를 듣게 된다: 오래 살고, 안전하게 거하며, 생산물이 많이 나는 포도원과, 수확을 많이 얻는 노동과, 축복된 자녀세대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다. 이 꿈 속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는다” (25절). 더 이상 상함도 없고 파괴도 없다. 브루베이커는 이런 말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묵상하고 있다.

한 때, 몇 년 전에 이 본문은 내가 설교하기를 즐겨한 본문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말들로 가득차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음 소리와 탄식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하신다. 이것은 아름답다. 솔직히, 나는 이 말들을 받들고 히브리 성경 안에 있는 그 본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말을 뽑아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게 내가 이해하는대로 말하였다. 내 설교는 아마도 희망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한다면, 이는 알뜰하고 쉬운 희망이었다. 나는 [이전의]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사회적 위치와 그것이 보장해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어떤 사람을 본다. 나는 이 말들을 기록한 사람 혹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그들과 그들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과 그들의 역사를 고려해 본적도 없다.

그녀는 어려운 유년 시절에도 불구하고 백인이며 이성애자 미국인 기독교인으로서 극단적인 가난, 억압, 추방, 무기력 등의 곤경에서는 보호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가 함께 살았던 과테말라 공동체는 나보다는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처럼, 억압 밑에서 사는 것을 이해한다.”

인식과 사랑을 통해 증언한다는 것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모습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다. 그녀는 브라이언트(Bryant)와 또 다른 과테말라 청소년들과의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며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과 가지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통찰을 얻었다.

나는 놀라운 마음으로 이 본문 안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희망과 믿음을 바라 보았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선을 가져다 주실 것이며 수세기에 걸친 정신적 외상 이후에도 삶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함께 살았던 과테말라 사람들과 경험했던 기쁨과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거시였다. 이 두 공동체는 정신적 외상과 억압에서 탄생된 희망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이런 본문을 어떻게 다루고자 했는 지, 나 자신을 히브리인들의 시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직하게 말한다면 나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인들의 문화에 더 연결되어 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계속 여기에 걸렸다. 나는 어떤 지혜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 보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고백 속에서 브루베이커는 비록 이런 과정의 전체를 또는 말들을 표현하였지만, 자신이 과거와 현재를 먼저 청산한 후에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필요를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그녀에게 증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게 하였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이 곳으로 오게해서 내가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로 마치게 하셨다, 특히 내가 특권을 가진 곳에 왔을 때는 듣고 끝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나는 백인 미국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억압하는 이들 쪽의 문화의 일부로서, 긴장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불편함을 이용하셔서 나를 가르치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당신들도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를 초청한다. 우리는 아주 다른 장소에서 왔다.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내가 가진 것같은 특권을 가지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상황에서 이해가 된다면, 나는 당신이 듣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고 초청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아주 다른 장소에 서 있다면, 나는 내가 무어라고 말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고 청중으로 왔다. 나는 듣고 싶다.

이런 말로 그녀는 증언의 마지막 시점에 접근하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의 미래를 받아들이기 준비가 된 것이다. 그녀의 비록 자신이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영혼은 주님을 기다린다” (시편 130:6). 그녀는 우리에게 문턱의 희망을 가져다 준다. 이사야의 하나님의 의에 관한 꿈을 묘사하는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실히 모르는 가운데 부르베이커는 우리에게 모든 창조의 온전한 번영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왜 브루베이커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의도로 마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그녀는 희망의 말씀을 서둘러 선포하기를 거부하였는가?
2. 어떻게 그녀의 새롭게 발견한 과테말라 이웃들과의 증언의 경험이 세상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변화시켰는가?
3. 역사적 조명의 순간 후에,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긴장과 불편을 인식하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구하였다. 그녀의 상황의 어떤 점을 당신은 공감하는가? 당신의 상황의 어떤 점이 그녀의 상황과 다른가?
4. 하나님이 브루베이커의 삶과 당신 자신의 삶에 일으키실 변화를 상상해 보라. 이 희망은 어떻게 보이는가?

3. 화해, 변영, 그리고 살림

화해와 온전한 변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새롭게 하신 창조의 빛에서 본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고린도 후서 5:17-20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움을 묘사한다.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선포는 하나님이 아직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확인해 주었다. 바울은 선언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2). 바울이 자신이 그 문장을 쓰던 그 날에 자신의 선포를 국한시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히려, 바울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 활동하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재 시점에 행하시는 활동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제자도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동기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고린도후서 5:17-20에서 설명하면서, 화해의 사역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는 온전한 복음적인 명령을 제시한다.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엄청난 환대를 하며, 인종 관계와 이민과 성소수자 옹호와 많은 다른 영역들 즉 인간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쌓아 놓은 분열의 담을 만들어 놓은 곳들에 합당한 엄청난 책임이다.¹⁰ 우리들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불림 받았다.

거룩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것이 가능해진 믿음의 삶이다. 데이비드 필드(David Field)는 스위스에 있는 감리교인이며 세계 감리교 협의회 회원인데, 거룩함을 “인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과 다른 인간 사랑으로 특징지어 지도록 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¹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협력하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이해를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겸손을 일깨우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자라가는 가능성일뿐이다.¹² 의인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세워 주심을 뜻한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허락하는 일이다.¹³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단지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다. 거룩함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성령의 변화시키심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갈 때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는 방식이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감리교인들이 전체 성화 과정을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¹⁴ 기독교인의 완전은 신앙 생활의 마지막 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다.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완전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와 실수와 잘못과 유혹에서 면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거룩함의 다른 말이다.”¹⁵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자 한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쳤듯이,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5, 12-13)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할 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인간으로서 변영한다. 웨슬리는 거룩한 삶은 평화, 기쁨,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로서 다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복음 13:34).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과 믿음을 가질 힘과 소망을 가질 힘을 주신다.

제자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고, 각 사람이 온전한 인간의 가능성을 다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 변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단지 몇 선택된 사람들이나 특히 경건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변성하도록 초청된다. 예수님은 선포하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복음 10:10). 사회원칙은 감리교회의 인간의 변영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는 믿는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셨듯이 우리는 함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환영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¹⁶ 이것은 새창조의 사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며 화해하시는 사역을 우리도 각 사람이 온전한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함을 통해서 증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가능성을 혼자 이룰 수 없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여행에서 돌아온 리즈 풀머(Liz Fulmer)는 펜실바니아 주 랭카스터에 있는 부목사인데, 나에게 자신이 증언했던 경험을 나누었다.¹⁷ 그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것에 놀랐다. 마레바트(Marevat)와 안와르(Anwar)는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로 정기적으로 외국 방문객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에 초청한다. 풀머(Fulmer)는 나에게 처음에는 그들이 점령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듯이 보였다고 했다. 그보다는 일상 생활의 기쁨을 더 보여주

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미국 언론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심지어는 부정되는 사람으로서 점령 치하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¹⁸

풀머(Fulmer)는 자신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것을 묘사하면서 특히 이 집을 방문한 것이 일종의 정치적인 모험으로 묘사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반화하지 않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그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증언하는 한 방식으로 말하였다.

나는 정부에서 방문객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방문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성지를 순례한다고 말하라고 들었다. 우리는 더 유명한 장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나블루스(Nablus)나 라말라(Ramallah) 등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을 방문한다고 말하는 것을 피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를 여행할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겁주기 작전이다. 이야기를 통제하는 노력이 있었고, 관광객들, 특히 미국인들은 종종 뉴스 언론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피상적인 왜곡된 사실 이상을 아는 사이가 되는 일—은 위험해 보인다. 왜냐하면 당신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배울 때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폭넓게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류 사회가 전하는 소식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일은 어쨌든 담대하고 거룩한 일이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풀머(Fulmer)는 팔레스타인들을 위해 증언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도덕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레바트(Marevat)와 안와르(Anwar)의 집을 떠날 때 그들에게 약속하였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네가 여기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우리는 네가 여기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증언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그녀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녀는 연대하기로 헌신하였다.

우리의 완전한 가능성을 살아 내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를 요구한다. “공동체는 인간이 자기들의 온전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가능성을 제공한다.”¹⁹ 그러므로, 사회 원칙은 교회가 단지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만 제공하지 말고 우리의 최선을 살 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개인들의 온전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돕도록 공동체를 혁신하고, 공동체를 지원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평가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²⁰ 감리교회는 지원하는 공동체 밖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녀의 팔레스타인 집주인들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풀머(Fulmer)는 그들의 지원하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와 다른 연합감리교인들은 돕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의 도덕적 증언을 빛나게 한다. 예를 들면, 중동 연합감리교회 협회(Middle Eastern United Methodist Caucus)는 자키 라비브 자키(Zaki Labib Zaki)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의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창설했는데, 정신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난민들에 대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다.²¹ 자키(Zaki)는 자기들의 존재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다:

공동체 식사와 친교 시간 이후에 [의료 진료]를 하고, 우리는 많은 난민들을 방문하고 때로는 기도한다. 한 사람 이상이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다른 난민들은 모임과 공동체 식사가 단지 자기들의 주린 배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채우고 난민이 되고 집에서 강제로 도망쳐 나온 이후 처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인간으로 회복됨”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말했다.²²

의료적 돌봄과 공동 식사와 복음서 낭독—이런 일들은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요소들이다. 이것이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일의 한 단면의 예이다. “온전한” 참여라는 개념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회적 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²³ 의료 보험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선언한다.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하는 일 혹은 육체적 및 정신적 온전성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영구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²⁴ 그래서, 거룩함은 다른 이들에게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포함한다.

감리교회는 당신이 혼자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기독교인으로서 변성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과 동시에 사회적 의식을 요구한다. 믿음은 언제나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와 우리 이웃 안에서 양육하는 일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공동체의 일이다. 독특하게 웨슬리리적인 강조점은 이렇게 주장한다. “성경적인 성결은 개인적인 경건 이상을 포함한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정의를 향한 열정과 세상에서의 생명의 갱신과 연결되어 있다.”²⁵ 그래서,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중요하다. 공동체는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대된다.

연합감리교회는 모든 피조물과의 연대성을 표현하기 위해 “풍성한 삶”이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환경 보존을 강조한다.²⁶ 1996년의 결의안인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팽배한 소비주의와 환경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서 “충분함의 신학”을 제시했다.²⁷ “창조세계 전체는 그 자체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안은 “풍성한 삶”이 “우리 세대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가 올 세대의 필요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 결의안은 개인과 집단의 전지구적 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존하는 이가 되거나 파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을 보존 가능하고 정당한 삶의 자세로 보는 생각은 또한 2016년의 기후 변화 결의안을 만드는데도 작용하였다: “교회는 반드시 [기후 변화를] 이야기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이 우리 자손들과 미래 세대에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²⁸ 여기서, 풍성한 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채우는 능력과 완전한 인간의 번영의 가능성을 채우는 능력을 말한다. 연합 감리교회 사회 원칙에 있는 정의의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거룩함은 우리와 다른 피조세계가 변화되어 살롬을 향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교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보다 덜한 것이면 안된다.

살롬은 평화, 온전함, 이루어짐이다. 그것은 “모든 창조세계의 조화롭고 상호연결된 완전한 상태”라고 연합감리교회 “환경 청지기직”의 도덕적 증언은 말한다.²⁹ 1984년 결의안은 청지기직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참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살롬은

연합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위한 지도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좋은 미래를 꿈꾸어 보라: “청지기직은 그렇다면 온전함이 결여되는 곳에 개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화해와 재결합과 치유와 온전함을 이루는 곳에서 그와 조화롭게 사역하는 것이된다.” 창조 세계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연합감리교회의 증언은 “세상을 고친다”는 뜻을 가진 유대교의 티쿰 올람(tikkun olam)이라는 개념을 반영한다.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Mary Elizabeth Moore)는 연합감리교회 디컨이며 보스턴 신학교의 학장인데,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변혁”으로 이 개념을 탐구하였다.³⁰ “티쿰 올람(tikkun olam)은 세상의 회복 혹은 정의와 의로움의 회복에 대한 희망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의 꿈이며 거기에 우리는 참여한다.

하나님의 미래를 살롬으로 꿈꾸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모든 부분들이 상호연관 되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살롬의 비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구하러 오셨고 인간이 완전하게 상호연관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온전함과 조화”이다.³¹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연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그들의 모든 기관들을 포함한다. 연합감리교회의 “보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정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살롬의 비전의 한 복판에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 정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믿는다.”³² 그런 확대된 도덕적 증언은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어떻게 우리가 땅의 자원들을 치유와 건강과 온전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는 경외감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대함에 놀라움을 표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구 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당연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연결을 하도록 허락한다.³³

환경을 위한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필립스(Phillips)는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가진 건물들 등등을 없애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다.” 요점은 환경 보호는 인간 공동체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선한 미래는 우리와 우리가 만든 것들을 포함한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내가 기대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22:1-5인데, 하나님의 도성과 그 상부구조, 나무 등등을 포함한 조성된 환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장엄하다.” 살롬의 비전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늑대와 양이 함께 이사야의 비전에서 있듯이, 그 도시의 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강 옆에 있다. 이것이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모든 피조물에게 확대되는 연대 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이해는 너무 중요해서 감독회의는 이것을 위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냈다: “환경적 성결.”³⁴ 환경적 성결은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와, 모든 피조물의 치유가 살롬을 실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제자도의 삶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교회는 이러한 새롭게 시작되는 현실을 도덕적 증언을 통해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증언의 네째 시점을 우리의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살롬은 어떤 모습인가—당신에게,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에서는? 당신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환경적 성결을 실천 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공동체에서는? 전국 혹은 구체적인 정치에서는?
2. 어떤 점에서 당신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에서 부족한가? 당신의 이웃과 도시에 서는 온전한 번영은 어떤 모습일까?
3.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화해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오염되고 방치된 지역과의 화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가? 당신의 상황에서 연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4.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기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조명을 거쳐 옹호의 자리로 옮겨가게 한다. 하나님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비전을 기도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까? 캐롤 네이피어(Carol Napier)는 북 조지아 연회에 속한 글렌 메모리얼(Glenn Memorial)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인데 한 예를 보여준다. 그녀는 2016년 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 헌법을 수정하자는 청원을 내었다 .

성경이 보여주듯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연합감리교회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차별하는 오랜 역사를 인정한다. 연합감리교회는 개인들이건 조직 내에서건, 삶과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 있어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도전하고 차별을 없애야 한다.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복지와 평등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일을 해야 한다.³⁵

이 헌법 수정은 2019년 11월에 총회와 연회들의 90% 이상의 찬성을 얻고 승인되었다. 비슷한 청원들이 수십년 동안 연합 감리교회에 제안되고 부결되곤 하였었다.

이러한 교회 헌법의 새로운 조항은 증언의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역의 상징이다. 그 본문 안에 분명히 담긴 증언을 주목해 보라: 완전한 평등과 존엄성, 과거에 대한 재평가와 부정의의 고백, 깨어진 관계를 고치려는 의도와 제도적인 억압을 이야기하려는 의도, 그리고 온전한 번영(복지)와 연대에 대한 헌신. 네이피어(Napier)는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이 헌법 수정을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이등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모든 세상의 소녀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온 모든 여성들을 위해 제안했다.³⁶

네이피어(Napier)의 옹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오랜 세월 동안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다른 여성들과 소녀들이 성차별로 고통 당하는 것을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이루어진 헌법 수정은 이제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두드러진 부분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시는 것을 새롭게 꿈꾸라고 도전한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다. 몇 년 전에 나는 보스톤 신학교에 있는 안나 하워드 쇼 센터(Anna Howard Shaw Center)에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초청되었다.³⁷ 제 29차 세계 여성 협의회 참가자들은 “21세기의 경제 정의를 위한 사역”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자고 초대되었다. 우리는 모여서 경제 정의라는 주제에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공통된 확신을 나누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경제 정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³⁸ 인간 존재의 물질적 조건은 하나님과 교회에 문제가 된다. 가난과 불평등과 억압과 모든 형태의 불의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외친다. 우리는 우리가 주변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권력과 특권을 가진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정의와 사랑을 분리시키고 우리 사랑의 요구를 자비를 통해서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공통된 그러나 부적절한 경향을 인식하였다. “사회는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은 덜 편하게 여긴다”고 모임 주관자들은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연합감리교인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정의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정의를 오늘날의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를 물었다. 우리가 모여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연구하고 친교하면서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사회에서의 정의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정의도 생각하자고 도전하였다.

여성을 위한 정의

나의 발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기”였는데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하였다. 나는 내가 총회 여성의 지위향상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연사로 초대된 것이었다. 이런 연합감리교회의 총회기관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포용을 옹호하고, 교회의 제도적인 성차별에 도전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학대와 성희롱을 목회 환경에서 다루도록 돕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 사이의 성학대는 내 사역의 초점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아주 많은 다른 상황들에서 사역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사역하는 여자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사역에서의 경제적인 정의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였고, 하나님의 정의의 의미와 어떻게 교회가 그 정의를 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았다. 나는 부정의의 많은 이야기들을 증언하였다.

내 일과 관련해서 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연합감리교회 안에서의 실체와 태도에 있어서 다양한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주간에 나는 두 개의 이메일 문의를 받았다. 첫 이메일은 “우리 교회는 여성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우

리는 여성 담임 목사와 여성 감독이 있다. 위원회에서 더 이상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하고 묻는 여자분에게서 온 것이었다. 두번째 것은 다른 연회의 지방 안수 위원회에서 섬기는 여성 위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왜 연합감리교회가 여자에게 안수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는 남성 후보생에게 줄 수 있는 성경적 및 신학적인 자료를 요청하였다. 동시에 목회자의 성적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세 번째 연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었다. 한 여자분은 내가 메리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그 분의 실명이 아님) 자기 전임 목사가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목회 협력 위원회가 불편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교회에서 해고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밀을 폭로했다고 하고당했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난장판 속에 그리고 이웃의 갈등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 내가 이 세명의 여성들에게 깨어있는 현재를 가지고 대할 때 아주 다른 경험들의 다양한 범위에 나를 조절해야 했다. 때로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서로 반대되는 증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인 일화들로부터 세상에서 정말로 진행되는 실체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일화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는 한 개인의 진리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남미의 여성 신학자(mujerista)로서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ía Isasi-Díaz)가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썼듯이 여성들의 실제 살고 매일 경험하는 <로 코피디아노>(lo cotidiano, 일상의) 이야기들을 반영한다.³⁹ 일화들이 함께 모이면 많은 장소와 시간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통계 자료가 된다. 이러한 통계가 유형을 보여주면, 우리는 부정의 유형이 지적해주는 제도적 억압의 더 큰 틀을 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지 통계적인 경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학대와 착취를 대면해야 되는 여성들과 소녀들의 매일의 갈등의 더 큰 그림을 보여준다.

증언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 내는 것을 꿈꾸게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것은 여성들이 힘을 뭉쳐서 자기들 자신의 도덕적 행위자들이 될 것을 주장하게 한다. 삶 속에서 경험된 내용들이 공유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지되면, 그것들은 자유게 하고, 역사성을 지닌 도덕적 주체의 사역이 된다. 이사시 디아즈(Isasi-Díaz)에게 있어서, 정의는 개인적인 구체화된 신앙의 여정이며, 그 목적지는 해방이다. 그녀는 삶은 투쟁 속에서 (엔 라 루차, en la lucha) 발견된다고 가르쳤다: “공동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공공선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투쟁과 우리의 능력을 온전하게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가지려는 투쟁” 속에서 발견된다.⁴⁰ (그녀의 견해는 그레이스 무수카(Grace Musuka)의 것과 많이 비슷하며 2020년 세계 기도일의 주제와도 공감한다.) 여성의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것은 동시에 남성들도 자기들의 현실과는 다른 현실을 보게 하고 이 투쟁에서 여성들과 합류하게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합류하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이러한 경험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은 제자도의 행동이다.

폭력의 죄

“여성들과 소녀들의 평등과 복지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위에 인용한 헌법 수정을 인용하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폭력이다.⁴¹ 폭력의 죄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부정의를 심화시키고 영구화한다. 마조리 수하키

(Marjorie Suchocki)라는 연합감리교회 신학자는 인간의 원죄를 창조세계의 안녕에 대한 반항이라고 자신의 책, <폭력으로의 타락>(The Fall to Violence)에서 지적하였다.⁴² 교만도 아니고, 음란도 아니고 불필요한 폭력에 의존이 죄의 근본적인 표현이다. 성희롱과 성적 학대는 이러한 폭력의 형태들이다. 여성을 누르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연합 감리교회 윤리학자인 트레이시 웨스트(Tracy West)가 수치와 성적 죄와 폭력의 결합된 영향으로 묘사한 “영혼에 입힌 상처”를 준다.⁴³ 성적 학대의 양쪽 당사자들과의 사역에 기초해서 신학자 제임스 폴링(James Poling)은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인간의 권력 학대와…권력을 학대하는 쪽으로 제도화한 지배 구조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들에 대응하는” “비폭력 저항의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⁴⁴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을 꿈꾸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폭력이 죄악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폭력의 구조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하여 통제와 지배를 하는데 사용된다. 전세계적인 폭력의 구조가 여성들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부정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현실이다. 여성을 위한 미스 파운데이션(Ms. Foundation for Women)에 의하면,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신체적인 폭력은 근본적으로 힘과 통제의 문제에 뿌리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상대적으로 연약한 경제적인 지위와도 연관되어 있다.”⁴⁵ 폭력, 차별, 그리고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브 엔슬러(Eve Ensler)라는 저자는 그녀의 평가에 있어서 덜 외교적이다: “폭력의 제도는 여자들을 파괴하고, 여자들을 지배하고, 여자들을 무시하며, 여자들을 소위 말하는 여자들의 자리에 가두어 둔다.”⁴⁶

성에 근거한 폭력은 처음부터 경제 정의를 왜곡시킨다. 여성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적 학대와 희롱을 당할 때 권력은 불평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성들에 반대하여 사용된다. 불평등한 권리와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은 바로 더 큰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권력 남용은 부정적인 악순환을 유지한다. 이제 메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메리가 자기가 목회자의 성적 학대의 피해자라고 보고했을 때, 그녀의 봉급이 남성 사역자와 비슷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안전이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음식과 주거와 건강 보험이었다. 혼자사는 엄마로서 두 작은 아이들이 그녀의 개인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녀가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보복성 해고를 당하면 그녀는 월급도 건강 보험도 없게 된다. 그녀의 학대자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교회 공동체는 그녀에게서 당시에 그녀의 삶에서 변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빼앗아 간 것이다. 폭력적인 강제에서 자유로운 삶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이다. 그런 능력없이 온전한 인간의 변영은 훼손된다.⁴⁷

우리는 폭력과 학대의 순환을 끊을 수 있다. 우리의 희망은 수하키(Suchocki)의 용어를 빌리면, 기억과 공감과 상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폭력을 넘어서는 능력이다. 이러한 증언의 독특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독특한 점이다. 비록 폭력을 대물림하고 사회 구조가 폭력에 범벅이 된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안을 꿈꾸며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폭력은 더 이상 우리들이 함께 관계하는 것을 지배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더 나은 길을 제시하는 것을 꿈꿀 수 있다.

5. 교회의 도덕적 증인이 되기

우리가 교회로서 증언을 할 때 우리는 평생 폭력으로 얼룩진 상처를 가지고 증언을 한다. 증언을 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폭력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며 이 폭력이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영구화시키는데 사용된 방식을 지목하는 것이며, 교회가 정의의 장소가 될 것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증언을 해야 한다. 선행 은총과 의인 은총과 성화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땅에 뿌리내린 존재로서 하나님에게 평등하게 사랑받은 우리는 깨어있는 현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을 증언하고, 우리 자신의 실패들에 대해 역사적 조명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미래에 의미있게 참여한다. 우리가 교회로서 증언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서진,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서 증언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방식으로 삶 속에서 실천될 것이다. 당신은 그 가능성들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유니스 무사 일리아(Eunice Musa Iliya)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인데 나이지리아의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⁴⁸ 그녀가 안수받던 2000년도에 그녀는 오직 세명의 여성 정회원 목사 중의 하나였다. 나는 그녀가 총회의 여성 지위향상 위원회에서 이사로 섬길 때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많은 여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오직 극소수만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묘사해 주었다. “여자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재산으로 취급된다.”⁴⁹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필요성이 그녀의 사역을 규정해 왔다. 2013년에, 여성 지도력 훈련원의 교장으로서 그녀는 여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있어서 동등하며. .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믿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사역을 한 경험에 대해서 되돌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섬긴 것은 정말 놀랍고 아주 보람찬 일이었다.”⁵⁰ 그녀는 또한 2013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성윤리 훈련을 최초로 가지고 강간과 근친상간의 성폭력에 대해서 다루었다. 나중에 그녀는 나이지리아 감독구의 연합감리교회 남부 연회의 감독대행으로 파송되었다. 나이지리아의 여성들을 위한 희망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싶다. 나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로 창조 되었음을 아는 것을 보고 싶다.”⁵¹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꿈꿀 때, 나는 유니스 일리아가 나이지리아 여성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모습을 그린다.

메릴린 제링(Marilyn Zehring)은 사회 정의와 선교에 열정적인 평신도 여성이다.⁵² 그녀는 1889년에 시카고에서 헐 하우스(Hull House)를 공동 개척한 사람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의 사회개혁가인 제인 애담스(Jane Addams)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10대 소녀일 때, 그녀는 애담스(Addams)의 전기를 읽고 네브라스카에 있는 자기 마을의 감리교 청소년들(Methodist Youth Fellowship)과 함께 헐 하우스(Hull House) 근처 이웃을 방문하였다. 이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제링(Zehring)은 나에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여행은 그녀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을 돕고 싶게 만들었다. 어른이 되어서 그녀는 나중에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총무로 섬겼다. “우리는 이민자들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자 테네시 주 수도로 갔다.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집회를 가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곳의 여성들이 내 삶을 바꾸었다. 나는 다시 참석할 것이다!’” 제링(Zehring)은 자기가 몸으로 한 증언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녀가

하던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여성에게 알게하신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 증언 모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모임과 함께, 그녀는 공정 거래 무역, 소식지 기고문 쓰기, 자기 교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등을 통해 어른들 교육을 장려하는 도구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민 문제, 인신매매 문제, 총기 폭력 규제, 인종 정의, 종교간 대화 등의 문제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노력은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교회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지역 “이맘”(Imam, 이슬람 지도자)을 초청했다가 협박을 받기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상상할 때, 나는 메릴린 제링(Marilyn Zehring)이 네브라스카 콜럼버스에서 사회적 문제에 의식을 고양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박희로 목사(HiRho Park)는 실천신학자이자, 기독교 교육자이며 안수 받은 정회원 목사이고 몽고 울란바토르 허리 대학교(Huree University, Ulaanbaatar, Mongolia)의 국제 관계와 개발 담당 부총장이다.⁵³ 그녀는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도력 개발에 열정적이다. 현재의 역할과 그전 총회 고등교육국의 연합감리교회 사이버 캠퍼스(UMC Cyber Campus)의 전문성 개발 총무로서의 직책을 통해서 그녀는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 그녀는 2009년에 사이버 캠퍼스를 시작해서 10년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소명은 다른 방식으로 고등 교육에 접할 수 없는 이들에게 기술 지원을 통해 그들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여성이 여성을 코칭하기(Women Coaching Women) 프로그램의 지도자이다. 여성 목회자와 다문화 적응 훈련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가지고 그녀는 짐바브웨에서 약 45명의 여성들과 필리핀에서 약 50명의 여성들에게 2019년에 2주간의 훈련을 제공하였다.⁵⁴ 내가 필리핀에서 여성들이 어떤 종류의 갈등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차별, 불평등, 여성의 발언권 금지, 인종적 민족적 차별과 사회 계층 문제”가 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과 계층차별의 혼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3중고는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도와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코칭은 듣는데서 시작한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여성들은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의 확인을 경험한다.” 분명히, 그녀의 깨어있는 현재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이것은 분명 많은 여성 목회자에게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다.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가 내 말을 들어준 것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나는 박희로 목사가 여성 지도자들을 코칭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 2020년 5월 1일자로, 총회 고등교육국은 연합 감리교회 사이버 캠퍼스를 폐지하고 현재 이미 형성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화상 교육 협력단에 합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참조 gbhem.org/clergy/clergy-lifelong-learning.

변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고린도후서 5:17)로 만드실 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그의 화해의 메시지를 부탁받았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꿈을 보게 되면, 우리의 꿈이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6-17). 당신이 이 새로운 실체를 증언할 때, 거듭 거듭 변할 것을 기대하라!

갈린다 버튼(Garlanda Burton)은 <내쉬빌 프리덤 스쿨 파트너십>(Nashville Freedom School Partnership) 회장이자 디렉터이며 총회 여성 지위향상 위원회 전임 총무인데,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⁵⁵ “내가 처음 내쉬빌에 있는 홉슨(Hobson) [연합감리] 교회에 갔을 때 나는 초등부를 맡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중산층 흑인 지역에서 상당히 안전한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다녔던 성장기를 묘사했다. 그녀가 40대에 홉슨(Hobson) 교인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다른 경험이었다. “홉슨(Hobson)에서는 많은 부모들이 아주 가난했다.” 그녀는 약 60 내지 70 퍼센트의 교인이 돈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으로 고전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어린이 사역에서 가난을 직접 목격했다. “우리는 매주일 주일학교 전과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다른 교회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을—그리고 다른 이들도—먹여야 했다.”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그녀는 특히 한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첫 번째로 [나에게] 든 생각은 이 네명의 아이들, 형제 자매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집에서 전혀 대책이 없었다. 남자 아이 하나는 정신 질환이 있었다. 나머지 세 여자 아이들은 성적으로 학대 당해 왔었다. 그들의 사촌들도 역시 성적으로 학대되어 왔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형적인 주일학교 교사 이상이 되라고 부르셨다.

버튼(Burton)은 이 가족을 직접 돌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네명의 아이들을 매 주일 교회로 데리고 왔다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홉슨(Hobson)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회 전과 후에 음식을 마련해 주었다. 버튼(Burton)은 그 네 형제 자매가 자라는 것을 지켜 보았고 지금도 30대의 그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극도의 가난을 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친 것은 버튼(Burton)의 사역에 대한 이해에 도전이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다.

지난 몇 년간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특히 가난과 폭력과 중독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고 어린이 예배만 드리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하나님은 기독교 공동체를 온전한 사람을 돌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내게 주셨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확신한다.

버튼(Burton)은 계속해서 이러한 경험이 자기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홉슨(Hobson)은 나에게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가난한 이들은 종종 헌금과 십일조에 앞장섰다. 한 번은 홉슨에 있는 한 자매가 아무 돈이 없었다. 이 자매는 그 전날 밤에 약에 취했다. 그런데도 헌금함에 \$50 상당의 복권을 집어 넣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전부였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그것을 주었다.

바로 흡스 교회 식구들이 나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교회와 서로를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앉아서 만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 거만 의식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공동체의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신앙 공동체, 흡스 연합감리교회는 버튼(Burton)이 자신이 편하게 여기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도전하였다. 그녀는 이제 가난의 사람을 쇠약하게 하는 영향력도 보았고 억압된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사역도 보았다. 나는 이것이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상한다.



성찰을 위한 질문들:

1. 꼭 바꾸거나 변화시키고 싶은 불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혹은 불의를 당할 위기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불의였는가?
2. 당신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신의 깨어있는 현재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3. 만약 당신이 의미있는 참여에 강한 의욕이 없다면, 당신은 부정의를 경험한 이들과 연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깨어있는 현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방법을 생각해 보라.
4. 일리야(Ililya), 제링(Zehring) 그리고 박희로 목사는 각각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를 증언한다. 당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누가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가?
5.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버튼이 묘사한 그런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의미 있게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6.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가 쓴 기도를 함께 드리자:

우리가 언제 듣고 배우며, 언제 말하고 가르칠 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히브리 백성들에게서 영감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사야에게서 들은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억압에서 탄생했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뿌리를 둔 희망에 감동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민자 이웃들의 희망과 노력과 강인함에 영감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정의와 평등의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멘.⁵⁶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소서, 능력을 보내주소서. 은총을 내리소서.”⁵⁷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활동들:

1. 당신의 지역사회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생각해 보라. 그 필요중 당신이 가장 열정을 가진 것은 무엇인가? 사회원칙, 결의문집, 그리고 다른 연합 감리교회 자료들, 가령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 총회 교회와 사회부, 세계 선교부 웹사이트 등을 공부하라.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필요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지역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 있는가?
2. 당신네 서클, 주일학교 모임, 기도 모임 등과 함께 북 알라바마 연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위원회가 만든 비디오#그녀의 진실: 사역하는 여성들이 침묵을 깨다 (umcna.org/hertruth), 혹은 북캐롤라이나 연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위원회가 만든 여성 사역자들이라는 비디오를 보라 (vimeo.com/335862568).⁵⁸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 선호하는 미래에 어떻게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가?
3. 이 책에서 제시된 증언의 틀을 사용해서 그 도덕적 증언이 당신을 감동시킨 한 사람을 인터뷰해라 (결론 마지막에 붙은 인터뷰 질문들 참조).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당신이 배운 것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4. 당신은 어떻게 개인적인 변화에서 사회적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 어떻게 증언이 교회를 새로운 형태의 옹호와 조직적인 정의 사역의 형태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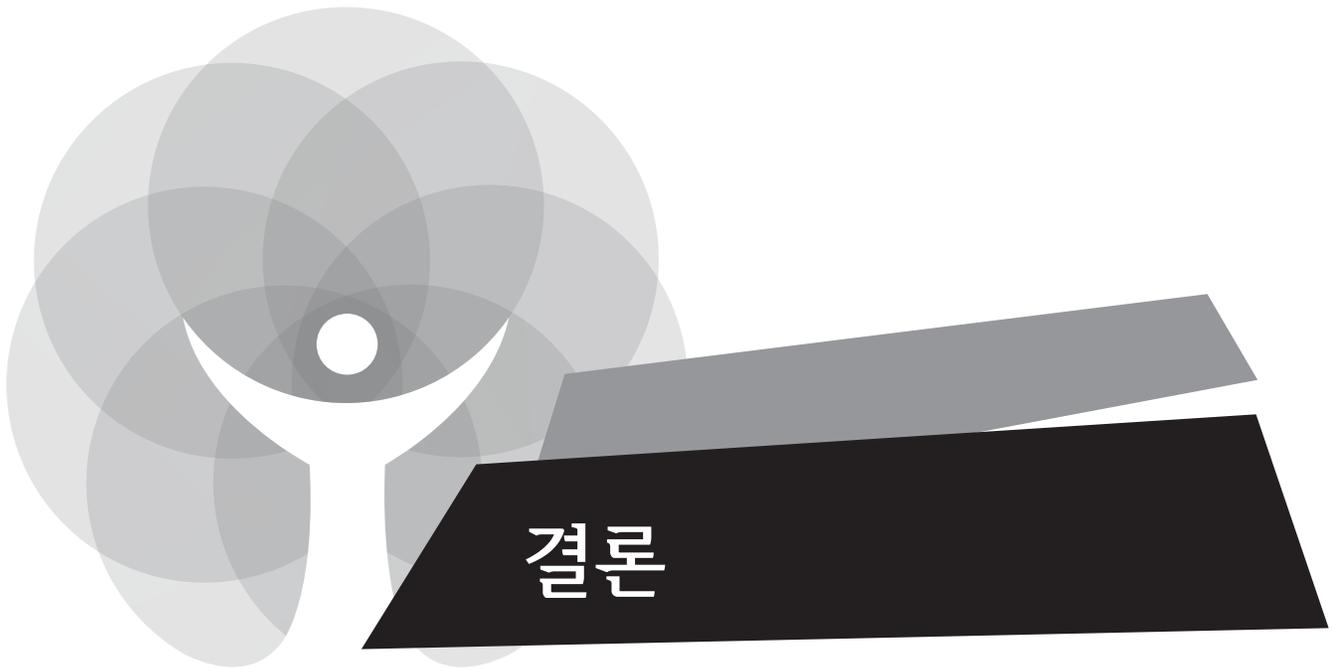
2020년 세계 기도일의 주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반영하는 화해와 살림의 미래이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러한 모든 피조물의 새로와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대 속에서 포용한다. 우리가 하나님의정의를 꿈꿀 때, 우리는 폭력의 구조를 도전하고 변화시킴으로써 의미있는 참여를 발견한다.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삶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드러낸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 증인들이 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후주

1.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그레이스 무수카(Grace Musuka),” unitedmethodistwomen.org/missionaries/musuka, 2020년 5월 12일 접속
2. 세계 기도일 국제 위원회, worlddayofprayer.net; World Day of Prayer USA, wdp-usa.org, both 2020년 5월 12일 접속
3. 세계 기도일 짐바브웨 위원회,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worlddayofprayer.net/index.html, 2020년 5월 12일 접속
4. 앞의 글.
5. “그레이스 무사카(Grace Musaka)와의 페이스 토크스” 팟캐스트, 2019년 11월 7일, 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 2020년 5월 12일 접속
6. 앞의 글.
7. 앞의 글.
8. 연합감리교회 창시자 중의 하나 사람은 마틴 보(Martin Boehm)이라는 펜실베이니아 주 랭카스터 카운티의 메노나이트(Mennonite) 교단 설교자였다. 마틴(Martin)은 성령의 불길을 느끼고 감리교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그는 1775년에 출교 당했다. 240년이 지난 후에, 메노나이트 교단은 그 출교를 철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를 교단의 명예 감독직에 회복시켰다. 린다 블룸(Linda Bloom), “연합 감리교회 창시자와 메노나이트 교단은 다시 연결되다,” 연합 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6년 6월 27일, umnews.org/en/news/mennonites-reconnect-with-umc-founder.
9. 파머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 설교, 산티 채플(Santee Chapel), 랭카스터 신학교, 2019년 11월 19일.
10.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마이클 아이 알레만(Michael I. Alleman), 안드레아 브라운(Andrea Brown), 루스 에이 도어티(Ruth A. Daugherty), 그리고 메리 메리맨(Mary Merriman) 공저, *출애굽에서: 열린 긍정하는 목회로의 여정* (유진, 오레곤: 캐스캐이드, 2018).
11. 데이비드 엔 필드(David N. Field), *우리의 비격거리는 같듯이 그치기를 빈다: 웨슬리안 신학과 교회 일치 행동* (내쉬빌: 파운더리 북스, 2017), xv쪽.
12. 랜디 엘 매독스(Randy L. Maddox), *책임적 은혜: 요한 웨슬리의 실천 신학* (내쉬빌: 킹스우드 북스, 1994), 66-69쪽; 요한 웨슬리, “신생,” II.4.
13. 요한 웨슬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II.1.
14. “신앙 고백,” XI 조,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04.
15. 요한 웨슬리, “기독교인의 완전,” I.9.
16.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G.
17. 엘리자베스 풀머(Elizabeth Fulmer),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6월 27일.
18. 감리교회는 감리교회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그 사명은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와 동역하면서 세계 감리교회가족들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평화, 진리, 정의, 그리고 자비의 사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총회 세계 선교부, “감리교 대표단은 팔레스타인 점령의 ‘쓴 열매’를 본다,” 2019년 7월 17일, umcmmission.org/share-our-work/news-stories/2019/july/methodist-delegation-sees-bitter-fruits-of-palestinian-occupation, 2020년 5월 12일 접속.
19.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
20.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1.
21. 총회 교회와 사회국, “교회와 사회 소수민족 개체 교회 지원금은 중동 난민을 돕는다,” umcjustice.org/news-and-stories/church-and-society-ethnic-local-church-grant-supports-middle-east-migrants-869, 2020년 5월 12일 접속.
22. 앞의 글.
23.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D, I, T, U, V.
24. *연합 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62.V.

25.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 102.
26.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관련된 연합 감리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심도있는 역사를 보려면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환경 청지기직에서 환경적 성결로: 기후 변화에 초점을 둔 감리교 환경 증언의 진화,” 저널 어브 릴리저스 에 스 47권:3호 (2019년 9월): 470–500쪽, doi.org/10.1111/jore.12281, 2020년 5월 12일 접속.
27. “풍성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199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1996 허락을 받아 사용함, 454.
28. 결의문 1035, “기후 변화와 교회의 응답,”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82.
29. “환경적 청지기직,”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1984.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1984 허락을 받아 사용함, 334.
30.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Mary Elizabeth Moore), 지구와의 사역 (세인트 루이스: 찰리스 프레스, 1998), 4쪽.
31. 결의문 1033, “창조세계 돌봄: 청지기직과 정의로의 부르심,”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68.
32. “보존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정의,”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1992.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국에 있음 © 1992 허락을 받아 사용함, 63.
33.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8월 15일.
34.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창조세계: 희망과 행동에의 부르심. 기초 문건,” hopeandaction.org/main/wp-content/uploads/2010/03/Foundation-Doc-Eng-Handout- 2-col.pdf, 2020년 5월 12일 접속.
35. 헤더 한(Heather Hahn), “교회는 여성의 평등에 관한 헌법 수정을 비준하다” 연합 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9년 11월 6일, umnews.org/en/news/church-ratifies-womens-equality-amendment, 2020년 5월 12일 접속
36. 앞의 글.
37. 2013년 4월 10일, 나는 <앤나 하워드 쇼 센터>(Anna Howard Shaw Center)에서 주관한 제 29차 세계 여성 연례 회의(Women in the World Conference)에서 연설하였다. 그 회의의 주제는 “교회를 점령하라”: 21세기 사역을 위한 경제 정의였다. 초청해 준 최 희안 <앤나 하워드 쇼 센터> 소장에게 감사드린다. 이 부분은 내가 주제 장연을 했던 내용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에서 발췌하였다. 보스턴 신학 대학 앤나 하워드 쇼 센터, 2013년 세계 여성 연례회의, bu.edu/shaw/events/women-in-the-world-conference/2013-women-in-the-world-conference, 2020년 5월 12일 접속.
38. 이 단락에 있는 인용문들은 연례 회의 설명에서 따온 것이다. 보스턴 신학 대학 앤나 하워드 쇼 센터, 2013년 세계 여성 연례회의, bu.edu/shaw/events/women-in-the-world-conference/2013-women-in-the-world-conference, 2020년 5월 12일 접속.
39.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ía Isasi-Díaz), <라루차>(La Lucha, 투쟁)는 계속된다: <무헤리스타>(Mujerista, 남미 여성) 신학 (메리놀, 뉴욕: 오르비스 북스, 2004), 92–106쪽.
40. 아다 마리아 이사시-디아즈(Ada María Isasi-Díaz), <엔 라루차>(En La Lucha, 투쟁 가운데): <무헤리스타>(Mujerista, 남미 여성) 신학 해설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04), x쪽.
41. “폭력은 여전히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부터 시작되는 유형의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미스 파운데이션 퍼 워민(Ms. Foundation for Women), “더 할 일들: 미국내 여성의 평등을 위한 길,” 2013년 특별 보고서.
42. 마조리 헤유티 수호키(Marjorie Hewitt Suchocki), 폭력으로서의 타락: 원죄와 관계 신학 (뉴욕: 콘티뉴움, 1999).
43. 트레이시 씨 웨스트(Traci C. West), 영의 상처: 흑인 여성, 폭력, 그리고 저항 윤리 (뉴욕: 뉴욕 대학 출판부, 1999), 209쪽.
44. 제임스 뉴튼 폴링(James Newton Poling), 믿음을 다시 생각함: 실천 신학 구성 (미네아폴리스: 포트레스 프레스, 2011), 86쪽.
45. 미스파운데이션 퍼 워민(Ms. Foundation for Women), “더 할 일: 미국에서 여성의 평등을 위한 길,” 2013 특별 보고서, 30쪽.
46. 니콜라스 디 크리스토프(Nicholas D. Kristof)와 셰릴 우던(Sheryl WuDunn), 하늘 반쪽 (뉴욕: 알프레드 노프, 2009), 61쪽.
47. 수호키(Suchocki)와 이사시-디아즈(Isasi-Díaz) 둘 다 이 연결을 한다. 이사시-디아즈(Isasi-Díaz), <엔라루차>(En La Lucha, 투쟁 속에서), 43쪽; 수호키(Suchocki), 폭력으로서의 타락, 67쪽.

48. 연합감리교회 개발 센터, “나이지리아에서 여성의 삶으르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연합 감리교회 목사,” web. archive.org/web/20170212221039/http://umcdc.paramoredev.com/stories/umc-pastor-working-to-improve-lives-of-women-in-nigeria.
49. 유니스 무사 일리아(Eunice Musa Iliya), 저자와의 인터뷰, 2013년 2월.
50. 앞의 글.
51. 연합 감리교회 개발 센터, “일하는 연합 감리교회 목사.”
52. 메릴린 제링(Marilyn Zehring),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11월 12일.
53. 박희로,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8월 15일.
54. 박희로, 타문화 적응력 개발: 어떻게 타인종 및 타문화 교회를 이끌 것인가 (총회 고등 교육 및 사역국, 2018); 박희로와 수잔 윌호크(Susan Willhauck) 공동편집, 색유리 천장을 뚫고 나가기: 대형교회를 섬기는 여자들 (총회 고등 교육 및 사역국, 2013).
55. 갈린다 버튼(Garlinda Burton), 저자와의 인터뷰, 2019년 7월 10일.
56.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 설교, 산티 채플(Santee Chapel), 랭카스터 신학교, 2019년 11월 19일.
57. 켄 메데마(Ken Medema),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들으소서,” © 1973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2020년 5월 12일 접속
58. 린다 블룸(Linda Bloom), “지지 받으려면 침묵을 깨야한다,” 연합 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7년 3월 9일, umnews.org/en/news/breaking-the-silence-to-build-support, 2020년 4월 14일 접속; 샘 호지스(Sam Hodges), “새로운 비디오는 여성교역자에 대한 성희롱을 경고한다,” 연합 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9년 6월 25일, umnews.org/en/news/new-video-calls-out-harassment-of-clergywomen, 2020년 5월 12일 접속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증언 시점들을 걸어왔다. 나는 당신이 이 여정을 나와함께 한 것에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마치면서 새로운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찬다. 그것은 1월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두 중요한 주일들 사이이다: 주현절과 인간 관계 주일. 그 상징은 강력하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꿈 사이에 있다. 이 둘 사이의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진보적 제자도를 통해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 교재는 단지 시작을 제시했을 뿐이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분열적일 수도 있고, 종종 불확실하며, 언제나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전을 맞부치면서 갈등 속에서 잘 살면서 기꺼이 부정의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 다른 이들은 그렇게 갈등 속에 뛰어들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갈등을 회피하고, 현상태를 흔들지 않는 불평등으로 얼룩진 조용한 평화를 더 선호한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른 두려움과 희망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도덕적 증언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 대다수가 포함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공손한 것은 그러나 도덕적 증언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제자도는 폭풍을 뚫고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제자도는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을 해야되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증언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창조적이면서 변혁적인 방법으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깨어짐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도덕적 증언의 애매모호성이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의 핵심적인 모순은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을 때도 말해야 되는 필요성이다. 교회는 종종 잘못할 때가 있고,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야 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회적 변화와 도덕적 증언의 진화의 여러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누가 1739년에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즈(United Societies, 속회/구역회)를 위해 세운 요한

웨슬리의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시대가 변했고 감리교인들의 도덕도 변했다. 전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법을 배워왔다. 우리는 과거의 부정의들을 폭로해왔다. 우리는 더 회개할 일들이 과거와 현재에도 많이 있다. 우리 증언의 가장 심각한 잘못들을 완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경우에도 함께 일해야 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혹은 믿음이 없는 이웃과 (나그네와) 만나면서 공동체 속으로 확대된다. 증언을 하는 것은 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을 넘어서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선교적인 기획이다.²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담대하게 도덕적 증언을 하고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가?

분열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증언은 교회와 교인들의 필요한 사역이다.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사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은 믿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믿음을 선포한다. 제자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도록 돕는 최선을 사는 삶을 요구한다. 제자도는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최대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제자도는 공동의 증언을 위해 공동체의 믿음을 하나로 묶을 것을 요구한다. 장정은 우리의 도덕적 증언의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개혁을 위한 우리의 갈등은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빛에 비추어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복음은 관련된 사회적 관심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선포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죄인들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 복음도 선포하지 않는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우리 시대의 죄악된 사회 구조를 심판하고 구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³

옹호는 반드시 개인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다. 그것은 잘 다듬어진 개인들과 사회적 원칙들을 포함한다. 공적인 선언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종이위의 단어에 불과하며 하부구조와 자금과 지도력과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준비시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변화는 사회적 행동을 요구한다. 역사적인 죄의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전통을 다루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도덕적 증언을 삶 속에 실천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하고 믿음만한 증언에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해야한다.

이 책은 웨슬리의 관점에서 도덕적 증언을 하는 과정을 각각 은혜로 추진되는 네 구별되는 시점으로 설명하였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시작되어 인간들 사이의 근본적인 평등성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구원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신학적인 주장은 오직 선택된 소수만이 구원 혹은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전통과는 구별된다. 만약 하나님의 은총이 교회에만 국한된다고 믿는다면, 선행은총의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고 평등하게 사랑받는다는 생각은 의문시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님

은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만을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중하다고 하는 주장은 충격적일 것이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한다. 거기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형상의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이해와 동료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심오한 함축성을 가진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만난다—기독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회교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가 없든, 아니면 다른 신앙 전통에 속하였든 다 동등하다.⁴ 이런 신학적인 주장은 인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을 찾게 된다—그것이 사회원칙들로 표현된 것이다.⁵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계속해서 의인은총의 도움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계를 바르게 한다.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다.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하나님의 성화 은총으로 정점에 이르러 모든 피조물들과 화해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번영하고 살람을 경험하게 한다. 이런 증언의 과정은 우리가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배워나갈 때 우리들을 존엄과 사랑과 정의와 연대의 여정으로 인도한다.

이 책은 단지 시작이며 이 여정으로의 초대에 불과하다. 세례에 뿌리박은 교회의 도덕적 증언은 우리 각자 안에서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을 동반한다. 도덕적 증언은 또한 우리의 공동된 삶과 일에 번져 나간다. 교회는 반드시 그 영향력을 정의를 위한 기관으로서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동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로서 우리의 도덕적 임무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다른 이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 자신을 가질 수 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⁶



기도하면서 할 활동들:

1.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증거로 여겨보라.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증언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 수 있는가?
2. 당신의 기도 모임과 서클과 주일학교 모임과 다른 소그룹과 함께 연합 감리교회 사회 원칙들을 공부해 보라. 당신의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제목이 붙은 부분을 찾아 보라. 사회 원칙의 이 선언들 각자가 어떻게 당신의 교회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고 돕고 지원하는가?
3. 앞의 자료들을 통해서 사회적 관심의 여러 영역을 찾아냈다면 더 넓은 교회의 자료들을 사용해 보라.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 기관들, 그리고 연회에 연락을 해라. 당신의 도덕적 증언을 지원할 자료와 자원을 요청하라.



4.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한 증언을 한 방식에 대해서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해라.

다음 질문들을 시작하는 것으로 사용해 보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인터뷰하라고 부탁해라.

- a) “증언을 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증언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때를 묘사해 보라. 구체적인 예나 당신에게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역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 때다.
- b)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묘사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과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셨는가? 어떻게 이 경험이 당신과 당신이 이 세상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는가?
- c) 증언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는, 당신이 본 고통을 고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위에 묘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응답하였는가? 이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d)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말로 하자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하고, 억압당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 교회는 계속해서 삶의 모든 영역, 창조세계 돌봄, 성차별 금지, 인종관계, 가난, 그리고 정치적 책임 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언하는 사역들을 계속 한다. 교회의 이런 지속적인 사역중 한 분야에서 당신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묘사해 보라. 당신에게 의미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나 사건을 나눈다.
- e) 이런 공동체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나 모임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해 보라.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 혹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는가? 이 경험이 당신의 교회나 모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바꾸었는가?
- f) 무엇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른 이들의 고통에 현재하게 동기를 부여했는가? 당신의 신학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언하는데 개인적 및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당신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 g) 당신은 교회와 교인이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가? 이 시점에서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h)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 죄와 부정의와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회 기관이나 단체의 노력에 의도적으로 협조하게 되었는가? 당신은 “죄와 불의와 모든 형태로 드러난 억압에 저항하는” 교회의 노력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후주

1.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한나 아데이어 보너(Hannah Adair Bonner), 외침: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찾기 (내쉬빌: 아빙돈, 2016)을 보라.
2. 데이비드 더블유 스캇(David W. Scott), 경계를 넘어가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내쉬빌: 웨슬리스 파운더리 북스, 2019).
3. 연합감리교회 장정—2016. 판권은 연합 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음 © 2016 허락을 받아 사용함, 55쪽.
4. 결의문 3141, “이웃과 증인으로 부름받음: 종교간 관계를 위한 지침들,” 연합 감리교회 결의문집—2012. 판권은 연합감리교회 출판부에 있음 © 2012 허락을 받아 사용함, 269–79쪽.
5. 대릴 더블유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 감리교회 도덕: 공적인 교회의 증언에서의 사회적 원칙들, 루스 에이 도어티(Ruth A. Daugherty)의 인도자 지침, darrylwstephens.com/?page_id=93 (녹스빌: 테네시 대학 출판부, 2016), 82–92쪽.
6. 켄 메데마(Ken Medema),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들으소서,” © 1973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hopepublishing.com/ find-hymns-hw/hw2988.aspx](http://hopepublishing.com/find-hymns-hw/hw2988.aspx), 2020년 5월 12일 접속.



감사의 말씀

한 권의 책은 공동 작업이다. 그리고 나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초청해 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처음 이 대화를 시작하게 한 메리 정(Mary Cheng)에게 감사하고 프라비나 발라순드람(Praveena Balasundaram)의 인내심과 통찰력과 끝까지 도와준 안내에 감사한다. 나는 이 원고가 발전되는 동안 주어진 비평적인 논평들에 감사한다. 프라비나(Praveena), 메리(Mary), 그리고 다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 특히 제이 갓프리(Jay Godfrey), 샤타리 메스(Chantilly Mers), 올리비아 디아고스티노(Olivia DiAgostino), 그리고 캔더스 심슨(Candace Simpson)에게 감사한다. 나는 또한 엘렌 오토 마샬(Ellen Ott Marshall)과 레베카 나이로스(Rebecca Nyros)가 보내준 논평에 감사한다. 또한 최희안에게 감사한다. 보스톤 신학교 앤나 하워드 쇼 센터(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Anna Howard Shaw Center) 소장으로 나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2013년 세계 여성 연례 회의에서 강연하게 해 주었다. 그것은 오래 전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주제 강연이 이 영적 성장 교재의 씨앗이 되었고 네째 모임에서 발췌되고 채택되게 되었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은 나와 함께 이 일을 위해 자기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어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갈린다 버톤(Garlanda Burton), 리즈 풀머(Liz Fulmer), 유니스 무사 일리야(Eunice Musa Iliya), 신디 안드레이드 존슨(Cindy Andrade Johnson), 트위디 솜브레로 나바레떼(Tweedy Sombrero Navarrete), 박희로(HiRho Park), 제니 필립스(Jenny Phillips), 그리고 메릴린 제링(Marilyn Zehring). 이들 각각은 고맙게도 기관 감사 위원회가 연구작업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연구대상 사람”이 되는데 동의해 주었고 자기들의 믿음을 열정적으로 나누어주었다. 나는 또한 파멜라 브루베이커(Pamela Brubaker)와 제인 덕톤(Jane Dutton)에게 감사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설교에서 인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또한 감사하는 기관으로 랭카스터 신학교(Lancaster Theological Seminary)와 그랜드뷰 연합감리교회(Grandview United Methodist Church)를 빼놓을 수 없다. 두 관련 기관들은 내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 깊은 감사는 마이카(Myka), 지크(Zeke), 그리고 세실리(Cecily)의 지칠 줄 모르는 격려에 돌린다.



저자 소개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펜실베이니아 주 랭카스터에 거주하며 평생 감리교인이다. 그는 안수받은 목사이며 가르치는 특별한 사역에 종사한다. 그는 연합감리교회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의 소속 회원이며 랭카스터 그리스도 연합 교회의 회원이기도 한 이중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랭카스터 신학교의 펜실베이니아 목회 연구소의 소장이자 연합 감리교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대릴(Darryl)은 라이스 대학(Rice University)에서 학사를, 퍼킨스 신학교(Perkins School of Theology)에서 석사를, 그리고 에모리 대학교(Emory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기독교 윤리를 전공했다. 그는 전직 연합감리교회 총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 위원회의 성윤리와 옹호 담당 부총무로 섬겼다. 대릴(Darryl)은 오십개 이상의 논문과 장들과 책들을 저술하였는데, 그 중에는 감리교 도덕: 공적인 교회의 증언 속의 사회원칙들(2016)과 출애굽으로부터: 열린 그리고 인정하는 목회로의 여정(2018)이 들어 있다. 그는 자주 강연도 하고 워크숍도 인도하고 학문적인 편집이나 교회 모임도 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 <윤리를 생각한다>(Ethics Considered)를 darrylwstephens.com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와 연합감리교회 디코네스인 그의 아내 마이카 케네디 스티븐스(Myka Kennedy Stephens)에게는 두 명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다.

참고도서 및 추천도서*

Alexander, Michelle.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New York: New Press, 2012.

Blue, Ellen. *Women United for Change: 150 Years in Mission*.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9.

Bonner, Hannah Adair. *The Shout: Finding the Prophetic Voice in Unexpected Places*. Nashville: Abingdon, 2016.

Cooper-White, Pamela. *The Cry of Tamar: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Church's Response*, secon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2012.

Council of Bishop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God's Renewed Creation: Call to Hope and Action. Foundation Document*. hopeandaction.org/main/wp-content/uploads/2010/03/Foundation-Doc-Eng-Handout-2-col.pdf, accessed April 14, 2020.

Dyck, Sally. "Eight Principles of Holy Conferencing: A Study Guide for Churches and Groups." Minneapolis, 2012. mnumc-email.brtaapp.com/files/eefiles/documents/holy_conferencing_study_guide_2012.pdf, accessed April 14, 2020.

Fassett, Thom White Wolf. *Giving Our Hearts Away: Native American Survival*, with study guide by Brenda Connelly.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08.

Fernandez, Aida, Susan Hysten, and Adrienne Trevathan. *God of the Bible: A Study for United Methodists about How God is Revealed in Scripture*, ed. by Carol Cook-Moore. Chicago: 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2017. gcsr.org/Resources/Curriculum.aspx, accessed April 14, 2020.

Field, David N. *Bid Our Jarring Conflicts Cease: A Wesleyan Theology and Praxis of Church Unity*. Nashville: Foundry Books, 2017.

Flynn, Andrea. *Justice Doesn't Trickle Down: How Racialized and Gendered Rules Are Holding Women Back*. The Roosevelt Institute and the Ms. Foundation for Women, 2017.

"In Search of Unity," A Conversation with Recommendations for the Uni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Dialogue on Theological Diversity with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Bolded texts are recommended for study leaders.**

November 20 – 21, 1997; Dallas, February 19 – 20, 1998. umaffirm.org/cornet/unity.html, accessed April 14, 2020.

Isasi-Díaz, Ada María. *En la Lucha / In the Struggle: Elaborating a Mujerista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04.

Jennings, Theodore W., Jr. *Good News to the Poor: John Wesley's Evangelical Economics*.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0.

Knotts, Alice G. *Fellowship of Love: Methodist Women Changing American Racial Attitudes, 1920 – 1968*.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6.

Kristof, Nicholas D. and Sheryl WuDunn, *Half the Sky*. New York: Alfred Knopf, 2009.

Maddox, Randy L.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Nashville: Kingswood Books, 1994.

Marshall, Ellen Ott.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Conflict, Faith, and Hum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8.

Maruskin, Joan M. *Immigration and the Bible: A Guide for Radical Welcome*.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2.

McClintock, Karen A. *When Trauma Wounds: Pathways to Healing and Hop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9.

Moore, Mary Elizabeth. *Ministering with the Earth*. St. Louis: Chalice Press, 1998.

Noley, Homer. *First White Frost: Native Americans and United Methodism*. Nashville: Abingdon, 1991.

Park, HiRho. *Develop Intercultural Competence: How to Lead Cross-Racial and Cross-Cultural Churches*. Nashvill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2018.

Park, HiRho, and Susan Willhauck, eds., *Breaking Through the Stained Glass Ceiling: Women Pastoring Large Churches*. Nashvill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2013.

Poling, James Newton. *Rethinking Faith: A Constructive Pract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11.

Rambo, Shelly. *Spirit and Trauma: A Theology of Remaining*. Knox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0.

Reiff, Joseph T. *Born of Conviction: White Methodists and Mississippi's Close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Bolded texts are recommended for study leaders.

Roberts, Gary L. Massacre at Sand Creek: How Methodists Were Involved in an American Tragedy. Nashville: Abingdon, 2016.

Robinson, Elaine A. *Godbearing: Evangelism Reconceived*. Cleveland: Pilgrim, 2006.

Scott, David W. Crossing Boundaries: Sharing God's Good News through Mission. Nashville: Wesley's Foundry Books, 2019.

Stephens, Darryl W. Methodist Morals: Social Principles in the Public Church's Witness, with study guide by Ruth A. Daugherty, darrylwstephens.com/?page_id=93.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2016.

Stephens, Darryl W., with Michael I. Alleman, Andrea Brown, Ruth A. Daugherty, and Mary Merriman. *Out of Exodus: A Journey of Open and Affirming Ministry*. Eugene, OR: Cascade, 2018.

Suchocki, Marjorie Hewitt. *The Fall to Violence: Original Sin in Relational Theology*. New York: Continuum, 1995.

Task Force for the Bishop's Initiative on Children and Poverty. *Community with Children and the Poor: A Guide for Congregational Study*. Nashville: Cokesbury, 2003.

Thomas, James S. *Methodism's Racial Dilemma: The Story of the Central Jurisdiction*. Nashville: Abingdon, 1992.

Thompson, Patricia J. *Courageous Past, Bold Future: The Journey Toward Full Clergy Rights for Women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2006.

United Methodist Women. "Faith Talks: A United Methodist Women Podcast."
unitedmethodistwomen.org/faithtalks.

Wesley, John. John Wesley's Sermons: An Anthology, edited by Albert C. Outler and Richard P. Heitzenrater. Nashville: Abingdon, 1991.

West, Traci C. *Disruptive Christian Ethics: When Racism and Women's Lives Matter*.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Wounds of the Spirit: Black Women, Violence, and Resistance Ethic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Williams, Jeffrey. *Religion and Violence in Early American Methodism: Taking the Kingdom by Forc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Bolded texts are recommended for study leaders.**

Williams, Layton E. Holy Disunity: How What Separates Us Can Save U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9.

Wink, Walter. Jesus and Nonviolence: A Third Way. Facets Ser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Wogaman, J. Philip. Surrendering My Ordination: Standing Up for Gay and Lesbian Inclusivity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8.

Wolf, Janet. Practicing Resurrection: The Gospel of Mark and Radical Discipleship. New York: United Methodist Women, 2019.

World Day of Prayer USA, wdp-usa.org, accessed April 14, 2020.

*Bolded texts are recommended for study leaders.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면서 공홀한 마음으로 인도하라

사랑. 정의. 연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는 일은 담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연합감리교회 전통 안에 있는 여성들은 인종 관계 사역, 창조 세계 돌봄 사역, 약물 중독자 치유 사역, 성 정체성 포용 사역, 그리고 여러 관심사들을 가진 사역을 용기있게 인도해 왔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 교단들이 세상에 해를 가하는 폭력과 악에 저항하는 일에 항상 온전히 헌신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그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꿈꾸면서 공홀한 마음으로 인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 함께,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과 부정의의 피해자가 된 이들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증거한다. 이것이 교회의 도덕적인 증언이다.

저자 **대릴 스티븐스(Darryl W. Stephens)**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받은 디컨 목사이며 교육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랭카스터 신학교(Lanca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감리교 과목들을 가르치고 펜실베니아 목회 연구원(Pennsylvania Academy of Ministry)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여성지위 향상 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의 대변인이자 성 윤리 분야 부총무로 섬긴 바 있다. 감리교 윤리: 지역 교회가 증거하는 사회 원칙들(Methodist Morals: Social Principles in the Public Church's Witness, 2016)과 출애굽에서 배우기: 열린 그리고 긍정하는 목회로의 여정(Out of Exodus: A Journey of Open and Affirming Ministry, 2018)을 포함한 50편 이상의 논문과 책들을 저술한 저자는 강연, 워크숍 인도, 학술지 편집, 교회 집회 등을 인도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ISBN: 978-1-952501-06-7

umwmissionresources.org • 800-305-9857

무표백 종이로 제작



M 3 3 5 9